KINU Insight

2017
No.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저

KINU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북한연구실장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서문 ····· v

Ⅰ. 북한의 핵·미사일 주요 활동 내용 분석 및 통계 ····· 1

1.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 분석 ····· 1
2. 핵·미사일 연도별·집권시기별·발사체별 활동 횟수 ····· 33
3. 핵·미사일 활동 연도별 일지 ····· 34
4. 미사일 종류와 발사 이력 ····· 41
5. 핵·미사일 활동 장소와 발사수량 ····· 45
6. 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활동 및 관련 사항 캘린더 ····· 49
7. 김정은 핵·미사일 실험·발사 공개활동(참관·지도) 일지 ····· 51

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 및 활동 연표 ····· 54

Ⅲ.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정책 및 법령 자료 ····· 192

1. 핵정책 주요 발언 ····· 192
2. 1~6차 핵실험 성명 ····· 199
3. ‘조선반도와 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2010. 4. 21) ····· 209
4.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2013. 4. 1) ·· 215
5.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중 핵 관련 부분 (2016. 5. 7) ····· 217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2016. 7. 7) ····· 221
7. 2017년도 김정은 신년사 중 핵·미사일 관련 부분 (2017. 1. 1) ····· 224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2017. 3. 31) ····· 225

참고문헌 ····· 231

차 례

표 차례

〈표 I-1〉 북한의 연도별·집권시기별·월별 핵·미사일 활동 횟수 ····· 5
〈표 I-2〉 김정일 핵·미사일 참관 및 지도 활동 수행자 ····· 28
〈표 I-3〉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 내용 ····· 44
〈표 I-4〉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공개활동 비중 ····· 53

그림 차례

〈그림 I-1〉 러시아·중국·북한의 전략군 창설 과정 ····· 24
〈그림 I-2〉 핵·미사일 관련 기관 및 책임자 ····· 30

서 문

주지하고 있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중심에 놓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리더십의 정당성과 기존 통치체제의 강화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는 내부적으로 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에 걸맞는 '전략적 지위'와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정체성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 및 노선의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능력 자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물론이고 군사전략적 함의,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해 왔는가를 북한이 취했던 '말'과 '행위' 차원에서 연대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조명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군사적·기술적 내용, 북한의 '말'과 '행동'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국제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반응 등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확인해 보고 일정한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과 활동을 시기별, 실험 및 발사체별, 발사장소별 등으로 국내외 정세의 맥락 아래서 정리한 것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전반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패턴 분석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데이터는 한국군에 의해 감지·식별·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연도별·집권시기별·월별·발사체별 활동 빈도, 핵·미사일 활동 연도별 일지, 미사일 종류와 발사 이력, 핵·미사일 실험 및 발사 장소와 미사일 발사 수량,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을 일람할 수 있는 캘린더,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공개활동 일지 등의 데이터를 담았다. 그리고 위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과 활동을 연대기별로 일지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 일지에는 북한 당국(지도자, 당, 군,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주요 발언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활동, 미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남북관계 및 한국에서의 주요 사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형태로 일지를 정리한 것은 시간을 중심축으로 놓고 북한의 말과 행동,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행동, 남북관계 등이 어떻게 상호 교차하고 연계되며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발언 및 담론을 따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일종에 북한 핵·미사일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참조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1~6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의 전문, '조선반도와 핵'이란 제목으로 북한의 외무성이 발표한 북한 핵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외무성 비망록, 핵개발 및 핵능력 증강을 법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법령의 전문, 그리고 제7차 당대회 및 신년사에서 밝힌 핵·미사일 관련 발언, 그리고 2017년 가장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등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본 자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 및 활동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연구와 정책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보다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수행에 기여하기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에 구축된 DB에 기초하여 향후 추가적인 업데이트와 데이터 보정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와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자료의 발간은 여러 분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가능했다. 핵·미사일 관련 기본 데이터 수집·정리 및 특징·패턴 분석은 필자인 홍민이 수행하였고, 자료 정리 및 편집 총괄은 강영은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김혜민, 황형미, 탁민지 연구원이 추가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데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정리된 조사 내용의 초고를 꼼꼼하게 토론해 주신 익명의 토론자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두 분의 토론으로 인해 누락된 일부 내용을 보충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부족한 분석의 밀도를 보다 높일 수 있었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I 북한의 핵·미사일 주요 활동 내용 분석 및 통계

1.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 분석

가. 들어가는 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김정은 참관 아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5월 14일 중장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인 '화성-12'(KN-17), 5월 21일 '북극성-2형'(KN-15), 5월 27일 지대공 유도 미사일 '번개-5호'(KN-06), 5월 29일 스커드-C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6월 7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7월 4일과 7월 28일 화성-14형, 8월 2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8월 29일 화성-12형, 그리고 9월 3일 6차 핵실험 등이 연이어 있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행보는 새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운신의 폭을 좁히는 상황을 낳고 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12년 제16대 대선 직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대통령 취임식 직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한국의 대북정책 성패와 남북관계 수준이 상당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패턴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북 예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활동이 갖는 주요 특징과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전반에 대한 DB화를 통해 활동의 특징과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은 상당부분 미진한 편이다. 최근 들어 몇몇 해외 연구기관을 통해 DB화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데이터의 정밀성에서는 많은 보정과 DB 구축 기관 사이의 상호 교차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미사일 활동의 범주와 유형, 활동 카운트 방식, 한국 정부 및 미군 등 관련 국가기관의 공식 확인 여부, 핵·미사일 관련 북한측 발언과 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려하여 신뢰도 높은 북한 핵·미사일 활동 DB를 만들고자 했고 이번 KINU Insight는 그 결과를 내용분석과 함께 담고 있다.

나. 핵·미사일 활동 범주 및 종류

본 분석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다. 핵실험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번의 실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시험발사 및 훈련 차원에서 발사하여 한국 및 미군에 의해 감지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사거리(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의 미사일 활동을 발사 성공 및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미사일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탄도미사일 이외에 지대함 및 함대함 미사일로 주로 사용되는 순항미사일, 지대공 유도 미사일도 포함시켰다. 보통 언론이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대상인 탄도미사일만을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활동 모두를 포함시켰다.

한편 여기에 '300㎜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KN-09 또는 KN-16) 발사도 포함시켰다. 기본적으로 방사포는 로켓의 일종으로 다연장포에 해당하며 유도성을 갖는 미사일과 달리 비유도성 발사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본다면 방사포는 미사일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활동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새로 개발한 300㎜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은 미사일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진화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의 식별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형으로 개발하여 2014년 이후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300㎜ 구경에 사정거리가 무려 180~200㎞ 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한국군이 '단거리 발사체'로 감지한 발사들의 상당수가 이후의 북한 보도에서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소개되었다. 실제로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은 기존의 KN-02(북한명 '화성-11호', 사정거리 120~170㎞) 단거리 미사일과 구분이 힘든 측면이 있다. 2014년 처음으로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 발사체가 감지된 이후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33발이 발사되었는데, 대부분 발사 거리가 150~250㎞에 달했고 KN-02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실제로 미국 국방정보 탄도미사일 분석위원회(DIBMAC)의 '탄도·순항미사일 위협'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13종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300㎜ 방사포를 탄도미사일에 포함시키고 있다.[1]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추

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는 일단 미사일 활동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이유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가 기존 방사포와 달리 다양한 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유도장치를 부착하는 등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가령 북한은 2016년 3월 22일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참관 아래 3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실전 배치를 앞 둔 최종시험 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목표물 타격 장면을 공개하며 이 무기를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체계"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밀유도체계는 영상유도장치의 장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신형 방사포에 "파편지뢰탄, 지하침투탄, 산포탄" 등을 탑재하여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인명 살상 반경이 넓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탄을 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단거리 미사일에 준하는 사거리나 살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함을 시켰다.

다만 이후 기술적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면 별도로 분류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그 외의 NLL 인근에서 다량으로 발사하는 구형 방사포나 해안포는 핵·미사일 활동에서 제외하였다.

다. 활동 내용 조사 방법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시기별 당시 언론 주요 보도 내용,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공식 발표, 국방부『국방백서』의 '북핵 동향 및 도발 일지', 통일연구원의『북핵일지 1955~2014』등을 일차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영국의 제인무기연감(IHS Jane's Weapon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구축한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DB, 미국 국방정보 탄도미사일 분석위원회(DIBMAC)의 '탄도·순항미사일 위협'보고서(2017)와 교차 확인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다.

한편 각 연대기별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 등 주변국, 남북관계

1)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 (2017), p.17.

및 한국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의 『남북관계연표 1948~2013』, 통일부의 『남북관계주요일지』, 외교부의 『북핵일지』 및 정상회담 일지, 통일연구원의 『주간통일정세』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김형기의 『남북관계 변천사』 (2010, 연세대학교출판부) 중 '남북관계 연표'도 참조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과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기초로 조사했다.

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빈도 분석

(1) 연도별·집권시기별 횟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북한은 1984년부터 2017년 9월 3일 현재까지 총 119회의 핵·미사일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권 시기별로 보면, 각각 8회, 28회, 83회였다. 김일성-김정일 시기 25년간 진행된 36회의 핵·미사일 활동보다 두 배 이상 많은 83회의 활동이 김정은 집권 5년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이 급격히 활성화되었으며 호전적 행보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미사일 활동 추이로 보면, 대체로 2006년 이후로 활성화되어 2010년과 2011년의 휴지기를 지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활동이 재개되면서 적극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기적으로 크게 김정은 집권 전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시기는 활동의 횟수, 다양성, 타이밍 등의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며, 무기의 다양성과 활성화 수준이 높아졌다. 가령 2016년에 무려 25회의 핵·미사일 활동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준)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핵실험 등 활동 유형이 다양해졌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던 2012년 이전과는 구분된다. 2017년 들어서는 현재(9월 3일)까지 총 16회의 활동을 벌써 진행하였는데, 모두 '신형' 또는 '개량형'이란 수식이 들어가는 (준)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실험(6차) 활동들이다.

〈표 I-1〉 북한의 연도별·집권시기별·월별 핵·미사일 활동 횟수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984	김일성(8)				1									1
1985														0
1986						1								1
1987														0
1988														0
1989														0
1990						1								1
1991							1				1			2
1992							1							1
1993						2								2
소계					1	4	2				1			8
1994	김정일(28)					1								1
1995														0
1996														0
1997														0
1998									1					1
1999														0
2000														0
2001														0
2002														0
2003			1	1	1						1			4
2004					1									1
2005						1								1
2006				1				2			1			4
2007						1	3							4
2008				1		1	1				1			4
2009					1	4		2			1			8
2010														0
2011														0
소계			1	3	3	8	4	4	1		4			28
2012	김정은(79)	1		1	1					1			1	5
2013			1	1		3								5
2014			2	6			2	5	1	2				18
2015		1	3	2	3	2	1					1	1	14
2016		1	1	6	5	1	2	3	2	2	2			25
2017			1	2	3	4	1	2	2	1				16
소계		3	8	18	12	10	6	9	5	6	2	1	2	83
합계		3	8	21	16	22	12	13	6	6	7	1	2	119

(2) 집권시기별·월별 횟수

월별 활동 횟수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1984~2017년 현재(9월 3일)까지 연중 5월이 22회로 가장 많은 활동이 있는 달로 파악됐다. 3월이 21회, 4월이 16회로 뒤를 이었다. 구간으로 보면, 3~5월 사이가 59회(50%)로 거의 절반이 넘는 핵·미사일 활동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조금 더 구간을 넓히면, 3~7월에 84회(71%)가 발생했다. 반면 10~12월에는 횟수에서는 활동이 크게 줄면서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패턴의 반복은 상당 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일정 부분 주기나 리듬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각 집권 시기별로 월별 활동 횟수를 보면, 김일성 때는 전체 횟수가 8회밖에 되지 않지만 이중 5월(4회)이 절반을 차지했고, 김정일 시기 역시 총 28건 중 5월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전체 83회 중 18회가 3월에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4월이 12회였다. 김일성-김정일 시기에는 5월이 공통적으로 많았다면, 김정은 시기에는 3~4월에 핵·미사일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3~4월은 연례적인 한미연합 연습(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기간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한미연합 연습·훈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한편으로 4월에 김일성 생일을 비롯한 주요 기념일에 맞춰 내부 결속과 정통성 강화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사거리별 발사횟수 및 집권시기별 발사수량

미사일 사거리별 발사 횟수를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발사 추이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증가이다. 33년간 전체 사거리별 횟수는 단거리 70회, (준)중거리 24회, 장거리(위성발사체 포함) 11회, SLBM 8회 등이다. 수도권과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집권시기별 미사일 사거리 횟수를 보면, 단거리 미사일(발사체)은 김일성 시기 5회, 김정일 시기 20회, 김정은 시기 44회 등으로 김정은 시기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거리 미사일 역시 김일성 3회, 김정일 3회, 김정은 18회로 김정은 시기에 압도적

으로 많았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총 11회 중 김정은 시기에 9회가 이루어져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핵실험 역시 김정일 시기 2회, 김정은 시기 4회 등으로 전반적으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사거리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모두에서 활동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시기 단거리 2배, (준)중장거리가 6배 증가한 부분이다.

발사횟수 이외에 전체 발사수량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발사수량은 1회 발사시에 발사하는 미사일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북한은 2015년 4월 3일 오후 16:15~17:00 사이 단거리 미사일 KN-02(북한명 '독사')를 발사했는데, 발사횟수는 1회로 간주했지만 발사수량은 총 4발을 발사했다. 여러 발을 발사할 경우 동시 일제 발사 또는 1시간 내에 3~5발 정도 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시간대에 동일 유형의 미사일로 발사할 경우 발사횟수로는 1회로 간주하지만 발사수량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이다. 물론 오전에 노동 미사일을 쏘고 오후에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다른 유형의 미사일을 다른 시간대에 쏘았기 때문에 발사횟수는 2회가 된다. 가령 2006년 7월 5일에 대포동 2호 1발과 노동급 미사일 6발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발사한 경우 구분하여 2회로 간주했다.

김일성 시기 단·(준)중·장거리 포함 모두 약 15발 정도, 김정일 시기 약 58발, 김정은 시기에는 무려 약 185발을 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발사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결과이다. 김정은 시기 발사수량의 비약적 증가는 단거리 미사일(발사체)과 특히 (준)중거리 미사일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2014년에 소련제 프로그(Frog, SRBM) 지대지 미사일을 3월 16일~23일 사이 7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도 지대지 이외에 지대함, 지대공, 함대함 등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4) 실험용 단발 발사와 훈련용 다발 발사의 이원화된 체계 가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패턴은 크게 1회 1기를 쏘는 단발형과 1회 2~7기로 쏘는 다발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체로 1회 1기를 쏘는 단발형은 KN-17(화성-12형), KN-15(북극성 2형), KN-14(화성-14형), KN-07(화성-10, 무수단), KN-11(북극성 1호). 광

명성 4호, 광명성 3호, 광명성 2호 등과 같이 장거리, 중장거리, 준중거리, SLBM 등이 대부분이다. 반면 1회에 수기를 쏘는 다발형의 경우 노동 1호(화성-7), 스커드 계열, KN-01(금성-1) 지대함·함대함 순항미사일, KN-02(화성-11호), KN-06 지대공 미사일, 프로그 미사일 등 주로 단거리와 준중거리(노동 1호)가 대부분이다. 발사횟수와 발사수량에서 보면, 스커드(약 16회, 40발), KN-01(약 14회, 23발), KN-02(약 12회, 29발), 노동 1호(약 8회, 15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미사일의 단발형 발사와 다발형 발사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회 1기만 쏘는 단발형의 경우 대개 개발 단계에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실험 차원에서 발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은 대체로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과 '신형'이 붙는 미사일을 단발로 발사해 왔다. 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된 경우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는 여러 발을 동시에 쏘거나 15~2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전 배치된 미사일의 훈련이나 특정 타이밍과 용도에 맞춰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시에 일제 발사를 하는 경우는 한미 연합훈련 때 전략자산 전개에 대응한 용도로도 볼 수 있다. 가령 2017년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KH-35 추정)을 수발 쏜 경우나 8월 26일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쏜 경우는 동해에 전개되어 있던 미군 항모 전단에 대응하거나 훈련에 대한 시위 용도로 볼 수 있으며, 한미의 요격능력을 회피하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시 또는 다발 형태로 발사하는 경우는 실전능력을 검증하는 훈련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실전 교리가 상당부분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반면 2016년과 2017년 주로 이뤄지고 있는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 단발 발사는 개발 중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능을 실험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크게 시기적으로 본다면, 2007~2015년 기간에 다발성 단거리 중심의 발사가 많았다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는 주로 단발성 (준)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금 세부적으로 시기별 특징을 보면, 2007년 6월 이후 2013년까지 단거리 지대지·함대함·지대공·지대함 미사일을 2~7기 동시·순차로 쏘는 다발 발사 현상이 나

타나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스커드계 및 노동 미사일을 2~3기 집중적으로 쏘는 양상을 보였고, 2015년에는 지대지, 함대함, 지대공, SLBM 등 단거리 전술 미사일을 2~7기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주로 준중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SLBM 등의 사거리가 긴 단발성 미사일 발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16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두 개의 분리된 섹션으로 구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는 신뢰도가 검증되거나 이미 실전화된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과정을 숙달시키는 전술적인 실전훈련이고, 후자는 개발 중에 있는 (준)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에 대한 성능 테스트에 해당한다.

이런 해석을 종합하면, 실전훈련에 해당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2014년 이후 대폭 증가한 부분은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이 실제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훈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빈도 증가는 남한 및 한반도 주변 한·미·일 작전구역 및 전시증원 통로를 타격하는 미사일 교리를 실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2016년 이후 사거리 확장에 매진함으로써 보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미사일을 통한 억제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준으로 치부하기 힘든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5) 미사일 종류별 발사 횟수

현재까지 북한이 열병식, 발사실험, 훈련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한국군 및 미군에 의해 식별된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종류는 21개 정도이다. 물론 미군이나 한국군이 식별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세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113회(전체 핵·미사일 활동 중 핵실험 6회 제외)의 미사일 활동에서 확인된 미사일 종류는 크게 21개 였다. 미국은 여기서 13종을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9월 3일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횟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미사일 종류에서도 '다종화'가 확연하게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사일 종류에

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사한 것은 KN-03(화성-5호, SRBM), KN-04(화성-6호, SRBM) 등으로 분류된 스커드-B, 스커드-C, 스커드-ER 등 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총 16회 발사되었다. 김정일 시기에는 2009년 7월 4일에 스커드 및 노동 추정 미사일 7발을 1회 발사한 것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기에 와서 스커드 계열 및 개량형, 동급의 미사일을 이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이 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위력을 증가시키고 과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대함 순항미사일인 KN-01(금성-1호)이 14회, 단거리 미사일 KN-02(독사, SRBM)가 11회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KN-01, KN-02, KN-03 등의 단거리 미사일이 약 44회로 전체 활동 중 37%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다종화 양상이 확연하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스커드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 KN-06(번개-5호), KN-07(화성-10, 무수단), KN-08(화성-13 추정, ICBM), KN-09(신형 대구경 방사포 추정), KN-11(북극성). KN-14(화성-14, ICBM), KN-15(북극성-2형, MRBM), KN-16(신형 대구경 방사포 추정), KN-17(화성-12, IRBM), 은하 3호, 광명성호 등이 처음으로 공개되거나 발사실험을 했다. 김정일 시기에 KN-01, KN-02, 노동 1호, 대포동 1호, 2호 정도로 단조롭던 미사일 종류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대폭 다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미사일 발사 '타이밍': 한미연합훈련 기간 집중

미사일 발사 '타이밍'에서도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 중 한미연합 연습(훈련) 기간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활동 83회 중 한미연합 연습(훈련)기간 활동은 무려 49회였다. 약 59%가 한미연합 연습·훈련 기간 또는 직전에 이루어졌다. 특히 미군 증원 전력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전구급 훈련기간에 집중되었다.[2] 가령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의 경우 한미연합 연습(훈련) 기간에 무려 14회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광명성 4호를 시작으로 스커드계 및 노동, SLBM, 무수

단(화성-10) 등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역시 2014년 키 리졸브·독수리훈련 기간에 KN-09(단거리 발사체 추정) 4발을 시작으로 스커드-B 추정 미사일, 프로그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 90발을 쏟아 부었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키 리졸브와 독수리, 쌍용훈련이 진행된 3월 1일~4월 30일 기간에 '새형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 실험'과 5회의 미사일 발사 등 총 6회의 미사일 관련 활동이 있었다. 또한 8월 21일~31일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에 단거리미사일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의 발사를 한 바 있다. 한미연합 훈련기간 발사되는 미사일은 훈련의 성격에 맞춰 전술적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대규모 상륙훈련에 대응해서는 프로그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해안포 등과 상륙지원 무기체계에 대응한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것이다. 또 항공모함전단 전개에 대응해서는 지대함·함대함 미사일 등의 훈련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훈련 성격에 대응해 미사일 활동을 나름대로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연중 훈련 주기 차원에서 보면, 북한 '동계훈련' 기간(12.1~4.30)에 상대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 기간 국방지휘 참모훈련(전시 전환훈련, 매년 2~3월), 군단급 기동훈련(매년 1~2월), 특수전부대 야외전술훈련(매년 1~2월), 포병 실탄사격(매년 1~3월) 등이 이루어진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전투준비판정검열' 기간이다. 결국 양쪽의 훈련구조가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대응 명분 아래 전시 대비 훈련을 이 기간 체계화해 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4월 위기론'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과 위협 발언을 쏟아내며 대외적 긴장을 상승시켜 이를 내부 통치와 군사적 필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2) 한미연합의 군사활동은 크게 연습과 훈련으로 구분된다. 전구급 연합 연습에는 '키 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대표적이다. 전구급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해병 중심의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이 대표적이다.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워 게임 형식이라면, '훈련'은 실제 대규모 병력이 참여하는 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은 연합해상훈련, 항모강습단 훈련, 연합잠수훈련, 특수전부대훈련, 미사일경보훈련 등 군종별 다양한 하위 훈련을 포괄하는 훈련 개념이다. 여기에 2011년 11월 한미가 23년 만에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시작하여 독수리훈련 기간에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직후나 도발 예상 시기에 수시로 대응 훈련이 펼쳐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매년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다양한 한미연합 전구 및 구성군 연습·훈련의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된다.

있다.

(7) 미사일 발사 '타이밍': 한국·미국 대선과 대통령 취임

미사일 발사 '타이밍'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을 앞둔 핵·미사일 활동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에서는 각각 두 번의 대통령 선거(2012, 2017)와 국회의원 선거(2012, 2016)가 있었다. 이들 선거 직전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14일전(3.29) 단거리 미사일 2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12.12)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14일 전(4.1)과 당일(4.15)에 단거리 미사일과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10일 전(4.29), 취임 5일 후(5.14), 12일 후(5.21), 18일 후(5.27), 20일 후(5.29), 30일 후(6.8) 등에 중장거리(KN-17), 준중거리(KN-15), 지대공(KN-06, 스커드-C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주목할 부분은 대선과 취임 전후로 발사된 미사일은 대부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대체로 4월과 12월에 치러지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달은 북한의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달이다. 4월에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생일과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있고, 12월에는 김정일 사망일(12.17)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일정에 맞춘 미사일 발사와 한국 정치 일정과의 개연성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어떻든 이 시기 발사 자체가 양쪽 모두에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12일 전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 이외에 특별히 선거 전후로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및 취임 주기와 핵·미사일 활동과의 관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3] 2012년 미국 대선 한 달 후인 12월

3) 2012년 11월 6일(취임: 2013년 1월 20일)과 2016년 11월 8일(취임: 2017년 1월 20일)이다.

12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고, 취임 20여일 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2016년 대선 때는 대선 두 달여 전에 5차 핵실험(9.9),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무수단 준중거리 미사일(10.15, 10.20) 발사 등 선거 두 달 여 정도 사이에 핵과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1.20) 후에는 2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무려 7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참고로 김정일 정권으로 거슬러 가면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두 달 보름 후 광명성 2호 장거리 미사일(4.5)을 발사했고 3개월 가량 후인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대선 직후나 대통령 취임 직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취임 주기와 일정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일정하게 패키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2008년 대선 1개월 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09년 취임 2개월 보름 후 2차 핵실험, 2012년 대선 1개월 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취임 20일 후 3차 핵실험, 2016년 대선 2개월 전 5차 핵실험과 2017년 취임 5일 후부터 1개월 사이 '북극성-2'형 및 '화성-12', '번개-5호' 등 중장거리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대체로 대선 및 취임 이후 약 1-6개월 사이에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쇄적으로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취임 이후 대북정책 초기 구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협상의 레버리지를 한껏 올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8) 미사일 발사 '타이밍: 주요 정상회담 일정

미사일 발사 '타이밍'과 관련해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이 발견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83회의 핵·미사일 활동 중 17회가 한·미·중 사이의 양자·다자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G20 등을 전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핵안보정상회

의' 개최 즈음에 집중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졌다.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핵안보정상회의(3.26-27) 직후 단거리 미사일(3월 29일, KN-01 추정, 2발) 및 장거리 미사일(4월 13일, 광명성 3호 1발) 발사가 있었고,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회 핵안보정상회의(3.24-25) 전후로 스커드-B. 대구경 방사포, 프로그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을 82발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2016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회 핵안보정상회의(3.31-4.1) 때는 한 달 전부터 개최 전까지 단거리 미사일 총 13발, 스커드계열 2발, 노동계열 2발, SLBM(KN-11) 사출실험, 무수단 미사일 1발 등 18발을 발사했다. 심지어 정상회의가 한창이던 3월 31일에는 서해 NLL에서 해안포와 방사포를 무려 500여 발을 발사하는 사격훈련을 하기도 했다. 물론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미연합 훈련 기간과 겹쳐 어느 하나를 겨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한·미,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도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가령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박근혜-시진핑) 직전에 KN-09 추정 단거리 발사체 5발, 스커드계열 2발 등을 발사했으며, 회담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스커드계열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3월 31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단거리, 지대공, ICBM 대출력 엔진 분출시험, 무수단 등을 연이어 발사했다. 같은 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직전 '북극성-1호'(SLBM, KN-11), 개최 도중 '화성-10'(무수단, KN-07)을 발사했다. 또 2016년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노동급 미사일 3발, 정상회의 직후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4월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 전날 불상의 탄도미사일(KN-17 추정)을 발사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3일 앞둔 7월 4일 ICBM(화성-14형)을 발사한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9) 김정은 참관 미사일 발사 활동 증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참관·지도하는 공개된 핵·미사일 활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김정일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지점

이다. 집권 이후 참관, 지도 등으로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김정은이 참석한 미사일 발사시험은 총 30회로 전체 미사일 발사 활동 83회 중 36%가 직접 참관이었다. 미사일 종류를 불문하고 보면, 2~3회 중에 1회는 참관을 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공식 집권 첫 해인 2012년 1회, 2013년에는 없었고, 2014년 6회, 2015년 4회, 2016년 11회, 2017년 9월 3일 현재 10회 등이다. 연도별 횟수로 본다면,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발사 실패로 공개하지 않은 참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외에 핵·미사일 과학자나 지휘통제소 지도, 시험지도, 작전회의 참가, 축하·사진촬영, 연회 등을 포함한 김정은의 활동은 현재까지 총 57회에 달한다. 여기에 핵·미사일 관련 군수공장 방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지도, 현지지도 포함)했던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2기, 북극성 1호(SLBM), 북극성 2형, 화성-10호(무수단),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화성-14형), 지대공 전술유도탄(SA계열),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반항공 요격 미사일 등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전술적으로 중요한 신형 미사일 발사 등에 참관했다. 2016년 이후에는 중장거리 미사일부터 신형 대구경방사포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참관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들어서 준중거리급 이상의 발사 대부분에 참관을 하고 있어 기술적 고도화 차원에서 김정은의 참관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발사 장소 및 미사일 궤적

발사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국 정부 및 주변국의 정보를 종합해서 확인된 미사일 발사 활동 중 장소 및 궤적이 추정 또는 확인된 것에 기초해 살펴보았다. 물론 특정 좌표로 확인되지 않고 동해 일대와 같이 폭넓게 장소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32회로 가장 많고, 함경남도 16회, 함경북도 14회, 평안북도 13회, 평안남도 5회, 황해북도 4회, 황해남도 3회, 자강도 2회, 남포직할시 및 평양시가 각각 1회 등이었다. 범위를 좁혀 시·군·리 단위의 구체적 장소로 보면, 원산시 일대(원산시, 앞바다, 갈마반도 포함)가 총 22회로 가장 많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였다. 다음

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지상 및 해상(신포조선소) 일대가 7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역시 7회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수단리는 2009년 이후 사실상 발사실험 장소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최근 발사 활동이 활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가 5회, 그리고 구성시 방현비행장 일대가 5회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일대가 4회였다.

발사 장소와 미사일 유형을 매치시켜보면, 원산시 일대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미사일은 지대지, 지대함, 함대함 등의 단거리 미사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들어서는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원산시 일대에서 발사한 바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해서는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조선소 일대가 거의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초기 SLBM 발사시험이 이루어지던 2015년에 원산시 앞바다 일대에서 2회가 발사된 바 있다. 최근 2017년 들어서는 기존 북극성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함 미사일을 신포 일대에서 발사하고 있다.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2017년 들어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장소로 자강도 무평리,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를 선택하는 등 장소를 예측하기 힘들게 다양한 장소에서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미사일 발사 중 내륙 통과 발사는 18회 정도였다. 발사가 실패하여 내륙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2016년 10월 15일과 10월 20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동해 방향으로 궤적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륙 통과 미사일 첫 발사가 확인된 것은 2014년 3월 26일 노동 계열로 추정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평안북도 순천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것이다. 이후 주로 스커드 및 노동 계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황해남북도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해 왔다. 최근 2016년 말과 2017년 들어서는 무수단 개량형, 북극성-2형, 그리고 5월 14일 발사한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내륙을 통과하여 동해상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사거리 확장성으로 인해 평안도에서 남쪽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광명성 4호 발사는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를 했다. 정리하면, 내륙 통과로 확인된 발사는 전부 김정은 집권 이후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주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그리고 준중거리 이상일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륙을 통과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1) 주요 기념일 발사(실험)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맞춘 발사 또는 실험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월별 핵·미사일 활동 횟수를 보면, 1월에 3회, 2월에 8회, 3월에 18회, 4월에 12회, 5월에 10회, 6월에 6회, 7월에 9회, 8월에 5회, 9월에 6회, 10월에 2회, 11월에 1회, 12월에 2회 등이었다. 정리하면, 3월에 핵·미사일 활동이 가장 많았고 4월, 5월, 7월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앞서 분석했듯이, 3월은 특별한 기념일이 없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4월, 5월, 7월은 북한 내부의 주요 기념일에 맞춘 도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이외에도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일(4.1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4.13), 김일성 대원수 칭호 수여일(4.13), 김정일 원수 칭호 수여일(4.20), 조선인민군 창건일(4.25) 등 굵직한 기념일들이 몰려 있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대부분 겹쳐 있다. 따라서 '4월 위기론'은 사실상 내부적 필요와 한미연합훈련 대응용 등이 중첩되면서 미사일 도발이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7월에는 김일성 사망일(7.8)과 정전협정 체결일(7.27) 등에 맞춘 미사일 활동이 활발한 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는 7월 2일, 7월 9일, 7월 13일, 7월 14일, 6월 26일, 7월 30일 등에 KN-09, 스커드 계열, KN-10 등 다양한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고, 2016년에는 7월 9일 북극성-1호(SLBM) 시험발사, 7월 19일에는 노동 계열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7월 4일과 7월 28일에 장거리 미사일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반면 10월, 11월, 12월 등 연중 하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핵·미사일 활동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연중 일정한 주기로 본다면, 10~12월은 핵·미사일 활동이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 북한 핵·미사일 정책의 내용 변화

(1) 핵정책 및 핵독트린(핵교리)의 전환점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실질적인 기술적 성과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고 보다 공격적인 내용을 추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활동을 통해 기술적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발언의 수위도 높아져 왔다. 핵·미사일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개념이 새롭게 늘어나고 추가되면서 핵독트린(핵교리)을 구체화해 왔다.[4] 상식적으로 본다면, 공격적 핵독트린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유리할 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에 따라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독트린을 보다 기술적 성취에 맞게 구체화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5]

북한의 핵전력 및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독트린의 내용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핵무기 개발 의사를 밝히며 핵정책 변경을 알린 바 있다. 북한이 ‘핵억제’를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은 2003년 6월 외무성 담화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핵개발 및 핵보유를 ‘억제력’ 차원에서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핵무기가 갖는 ‘억제력’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논

4) 북한은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략로케트, 전략군,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핵탄적 용수단, 전략적 핵무력, 핵탄두폭발조정장치, 전략잠수함탄도탄, 핵무기 병기화 등과 같은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적 용어를 언급해 왔다.

5)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정성윤·이동선·김상기·고봉준·홍민 저,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95.

리로 '핵억제력'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은 2003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2003년 이후 핵정책 및 핵독트린(핵교리)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6)]

이후 북한의 핵 관련 발언은 '자위적 핵 억제력' 실현을 목표로 빠르게 진전돼 왔다. 2004년 7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리비아식 선핵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힌 직후 9월 27일에는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2009년 1월 16일에는 "핵억제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핵무기 영구 보유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이때까지 북한의 핵 관련 내용은 '자위적 핵억제력', '핵무기 보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핵독트린이라고 보기에는 핵보유 목적, 핵무기 사용범주, 핵무기 관리, 국제적 핵 규범 준수 등 기본적인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7)]

(2) 핵정책 및 핵독트린의 구체화 과정

북한이 구체적인 핵독트린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인 2010년 4월 21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서였다.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억제력을 보유할 것이며, 핵보유국과 음모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 비확산 및 비핵화에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것 등을 밝힌다. 핵무기 보유 목적, 핵무기 사용범위, 국제적 비확산 규범 준수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구체성을 갖고 있다.[8)]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국 법령〉) 법령은 현재까지 북한이 공개한 핵 관련 내용 중

6) 위의 책, pp. 202~203.
7) 위의 책, p. 203.
8) 위의 책, pp. 203~204.

가장 세부적인 핵독트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령'의 형태로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핵독트린의 확고한 의지와 규정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밝힌 핵독트린과 비교해도 핵무기 보유 동기, 목적, 사용범위, 국제적 핵규범 준수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어 핵독트린으로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갖추고 있다.

2013년 〈핵보유국 법령〉제정 이후 북한의 핵독트린은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다. 기존 핵독트린을 재확인하면서도 보다 공격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한다. 우선 핵 타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 '백악관', '펜타곤', '태평양 미제 군사기지', '미국 대도시들',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있는 남조선 작전지대',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 '남조선 미군기지', '괌도' 등 매우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타격 대상을 세분화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전략군'의 존재를 드러내며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지도와 참관이 본격화된 시점과 중첩된다. 가령 2013년 3월 29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일촉즉발 위기가 조성되자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타격 대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9] 이런 핵 타격 대상의 선정과 세분화는 다양한 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확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등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10]

(3) 핵독트린과 핵군축의 연계

북한 핵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보다 체계적으로 핵군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3년 4월 〈핵보유 법령〉을 통해 핵군축과 관련 국제적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같은 해 10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핵군축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이 핵군축을 내세우는 의도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 또는

9) 『조선중앙통신』, 2013. 3. 29.
10)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pp. 204~205.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동등하게 군축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프레임으로 핵군축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先)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핵군축 프레임 안에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핵독트린이 보다 대외적 협상의 포석 형태로 변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1]

(4) 통치체제 및 김정은 정권 존립기반으로서 핵무력

북한은 2013년 6월 39년 만에 수정된 북한 통치의 핵심 강령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서문에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갖추게 됐다"고 명기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을 개정하며 서문에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과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확고히 할 것을 명기하였다.[12] 종합해 보면, 김정은 정권 들어 당규약, 당의 전략적 노선, 헌법, 법률, 〈10대 원칙〉 등 거의 모든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규범에 '핵보유' 및 '핵무력'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력이 대외적인 군사·안보적 무기 이상의 체제 통치수단의 근간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사실상 김정은체제의 존립기반은 수령체제와 핵·미사일을 앞세운 군사국가라고 할 수 있다.[13]

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략군'의 역할 강화

(1) 전략군의 대외 공개 과정

북한은 2016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을 제정할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7호) 발표하고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했다. 6월 26일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1999년 7월 3일 독자적인 군종인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하였다고 설명하며, 김정은이 여기에 "조성된 정세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11) 홍민, 위의 책, p. 206.
12) 「조선로동당 규약」(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정) 서문.
13)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pp. 209~210.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들을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전략군은 소형화, 정밀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14] 이어 2016년 7월 3일 첫 '전략군절'을 맞아 노동신문은 전략군을 "가장 강위력한 타격무력",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핵보검"으로 한껏 추켜세웠다.[15] 한편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전날을 전략군절로 제정한 것은 의도성도 엿보이는 부분이다.[16]

북한의 전략군은 핵·미사일 전력 운용을 전담하는 제4군종으로 현재 단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주도하는 핵심부대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부대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군단급 이상, 1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17] 북한은 전략군(창설 당시 전략로케트군)의 창설을 1999년 7월 3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창설 배경과 유래는 밝히지 않고 있다.[18] 북한에서 전략군이 실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2012년 3월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 소식부터이다. 전략로케트사령부는 기존의 미사일지도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보이며,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영용한 육·해·공군 그리고 전략로켓군'이라고 직접 호명하면서 전략로켓군이 새로운 군종임을 알린 바 있다.[19]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직후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에 따라 2013년 3~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샤이엔 공격형 핵잠수함, 최신예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Raptor) 등을 동원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은 '선제핵타격'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전략군'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 6. 26.

15)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조선인민군 전략군," 『로동신문』, 2016. 7. 3.

16)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pp. 224~225.

17) 『2016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전략군 규모를 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18) 실제 전략군이 이 때 창설되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창설은 김정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일부러 전략군의 역사를 김정일 시기로 소급하여 핵·미사일 고도화의 역사적 성과를 아버지와 공유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9)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pp. 225~226.

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 기지들과 남한 등 '적 대상물' 등을 타격할 전략로켓군과 야전 포병군에게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하면서 전략군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때 북한은 괌을 사정거리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하는 데 전략군이 그 역할을 했다.

이어 2014년 5월 29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다. 이로써 '전략로케트사령부' → '전략로켓트군' → '전략군'의 명칭 변경을 통해 제4군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령관계급도 초기 소장(별 1개)에서 현재 대장(김락겸, 별 4개)로 격을 올렸다.[20] 이후 전략군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등장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체계 운용의 핵심 부대로 활약하고 있다.[21]

(2) 전략군의 기능과 미사일 활동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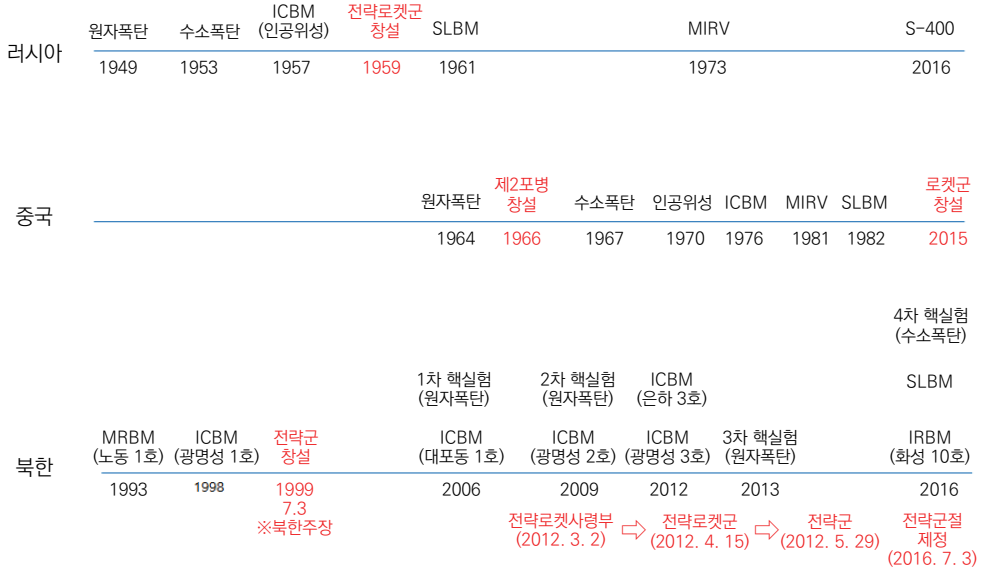
'전략군'의 신설 및 체계화는 단·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SLBM,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등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따른 다종화된 타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력한 지상·공중·수중의 전략적 타격수단을 기둥으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더 완벽하게 강화"[22]하겠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전략군의 창설은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규군 형태의 '전략군'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핵·미사일의 실전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략군 신설은 과거 소련, 중국이 핵무기를 다종화, 첨단화하면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략로켓부대를 창설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20)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5 2015. 9. 21.), p. 3. 전략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락겸은 2014년 2월 15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상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다.

21)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pp. 226~227.

22)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 5. 20.

〈그림 I-1〉 러시아·중국·북한의 전략군 창설 과정



실제로 북한의 전략군이 2012년 처음 제4군종으로 김정은에 의해 호명되며 등장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및 훈련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2년 5회, 2013년 4회, 2014년 18회, 2015년 14회, 2016년 23회, 2017년 9월 3일 현재 15회 등 총 79회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김정일 시대 28회에 두 배가 훌쩍 넘는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발사수량도 크게 늘어났다. '전략군'으로 이름이 최종 변경된 2014년에만 무려 115발을 쏘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빈도나 수량뿐만 아니라 미사일 종류도 대폭 늘어났다. 이런 증가는 전략군으로의 확대·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전략군을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화한 것은 핵전력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한미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작동하면서 전략군을 억제 수단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23)]

23) 북한이 2012~2013년 전략군의 존재를 공개하고 2014년에 미사일 발사 횟수와 양을 갑작스럽게 늘린 것은 미군 대한 위협 인식에 반응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2014년 총 18회에 걸쳐 11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 한미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그 미사일, 300mm 방사포 등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반거부' 훈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한 내륙 방향으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등 순서로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사일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벨트 내에서도 전술적인 이동을 통해 미사일의 운용을 유연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거리 투발 능력을 시현해 주일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유사시 해상으로 이동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각도 조정, 발사 위치 이동,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다양한 목표지점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주일미군,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 및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24]

소련, 중국 모두 전략로켓부대가 창설된 이후 핵 억제력 및 핵무기를 통한 반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비행체(MIRV)를 차례로 구비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련과 중국 모두에서 전략로켓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외에 별도 군종으로 취급되고 군이 아닌 국가지도부(당)가 직접 통제하고 관할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전략군 역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당이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는 점과 동일하다. 중국, 소련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전략군 역시 핵실험 및 ICBM 능력 등 무기체계 진화에 따른 군사전략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무기 삼원체계(ICBM, SLBM, MIRV)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개발의 완성을 통해 향후 전략 핵잠수함 부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은 향후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할 경우,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비행체(MIRV)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탄두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25]

련의 일환이었다. 한미 군사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 1월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포항 일원에서 실시한다. 북한은 여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반상륙작전을 2013년부터 실시한다. 2013년 3월 조선중앙통신은 "적 상륙 집단을 해상에서 타격 소멸하는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2014년 3월 쌍용훈련 기간에는 원거리에서 한미 연합군을 타격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까지 동원한다. 심지어 사정거리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노동미사일을 평소 사격하는 고각인 45도가 아니라 70도까지 높여 사거리를 650킬로미터로 줄인 새로운 전술까지 시험해 보였다.

24) 김진무·조남훈·정상돈·이호령·전경주, "2016년 상반기 정세 평가와 전망: 북한,"『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p. 4~5.

사. 핵·미사일 담당 엘리트들의 세대교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은 김정은 당 위원장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군수담당 부위원장 겸 당 군수공업부장을 맡고 있는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병철(대장), 부부장 김정식(중장), 전일호(중장), 홍영칠, 홍승무 등이 중심이 돼 핵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산하 8개 총국 및 국방과학원, 위원장 조춘룡)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고,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과학원(구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창하 상장)이 핵·미사일의 기술적 개발을 주도하고, 내각의 원자력공업성(구원자력총국 또는 131지도국, 2013년 4월 확대·개편, 왕창욱)이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 직할로 당이 직접 관리하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 대장)이 핵·미사일의 실험 및 훈련, 관리 등 실전화 전반을 맡고 있다. 사실상 전략군 체계가 꾸려짐으로써 군사·기술적 차원에서의 핵무력 증강 및 미사일 고도화의 시스템이 외형적으로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정권 들어 핵·미사일 담당 엘리트들의 세대교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세대교체를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참관 및 지도 활동 수행자 면면의 변화를 통해서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자신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김정일이 핵·미사일 활동의 은폐와 모호성에 입각해 있었다면, 김정은은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공개하고 노출하는 매우 적극적인 과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김정은은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직접 참관한 발사실험의 공개를 대폭 늘렸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엘리트들의 면면도 공개되고 있다.

아래 〈표 I-2〉 김정은 핵·미사일 참관 및 지도 활동 수행자를 살펴보면, 김정은은 지난 5년 8개월의 집권 기간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핵·미사일 개발 및 실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집권 초기 핵·미사일 활동이 적고 소극적이던 시기에는 김정

25) 홍민,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p. 233.

일 시대 핵·미사일 개발의 주축을 이룬 연로한 주규창, 박도춘 등 당 군수공업부 및 군수담당 비서, 황병서, 장성택, 김영철 등 당 실세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2014년 이후로는 핵·미사일 개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참관을 수행하며 공개되고 있다. 2014~2015년 사이에는 주로 황병서(총정치국장), 리영길(총참모장), 박정천(군 포병국장), 변인선(총참모부 작전국장), 오금철(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군 지휘계통 핵심 엘리트 등과 함께 소위 핵·미사일 3인방 홍영칠(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홍승무(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윤동현(당시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 인민무력성 부상) 등의 수행이 두드러졌다. 특히 홍영칠, 홍승무, 윤동현은 소위 김정은 초기 미사일 3인방으로 꼽을 수 있다.

〈표 I-2〉 김정일 핵·미사일 참관 및 지도 활동 수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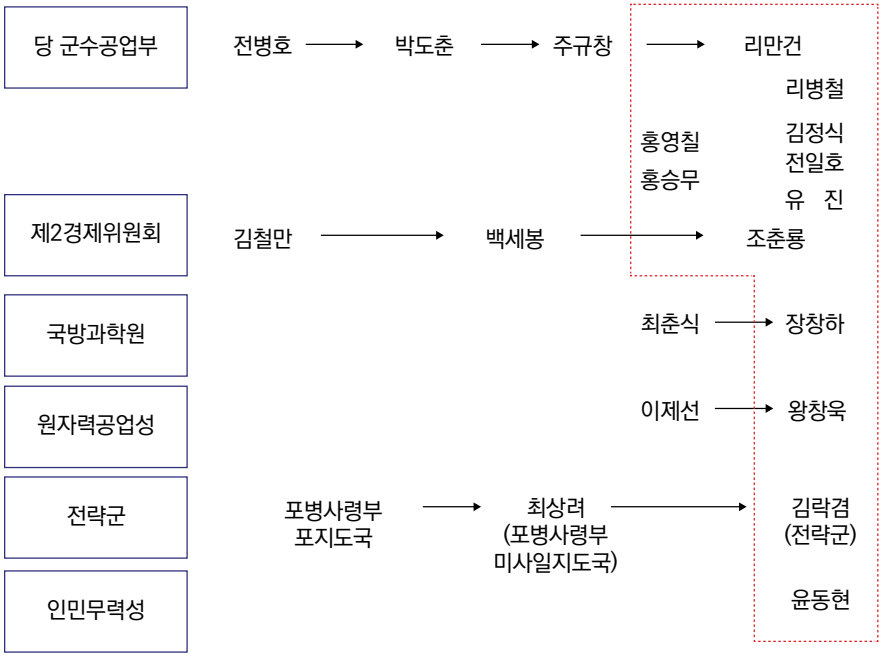
순위	성명	소속 및 직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	김정식	·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중장					8	11	19
2	리병철	·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 당 중앙위 위원 · 당 정치국 후보위원 · 대장			1		5	11	17
3	황병서	· 군 총정치국장 · 당 정치국 상무위원 · 당 중앙군사위 위원 · 당 중앙위 위원 ·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 차수	1		6		2	2	11
4	홍영칠	·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당 조직지도부 군수공업담당 부부장 겸직 추정) · 중장			3	1	5		9
	김락겸	· 전략군 사령관 · 당 중앙군사위 위원 · 대장		1			3	5	9
5	조용원	·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3	5	8
6	윤동현	· 인민무력성 부상 · 당 중앙위 위원 · 상장			2	1	4		7
7	리영길	· 군 총참모장 · 대장		1	3			2	6
	정승일	·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6	6
8	장창하	· 국방과학원장 · 상장						6	6
9	유진	·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5	5
	전일호	· 당 중앙위원회 위원 · 중장						5	5

순위	성명	소속 및 직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박정천	·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 상장			5				5
10	리만건	· 당 군수공업부장 · 당 정치국 위원 · 당 중앙위 부위원장 · 당 정무국 군수공업담당 부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					4		4
11	홍승무	·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당 중앙위원회 위원 · 대장					2		2
	변인선	· 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2				2
	오금철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대장			1			1	2
12	김광혁	· 항공·반항공군 사령관 · 상장						1	1
	리명수	· 군 총참모장 · 대장					1		1
	최룡해	· 당 정치국 상무위원 ·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 대장					1		1
	김여정	·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1		1
	김영철	· 당 통일전선부장 · 군 정찰총국장 · 대장		1					1
	박도춘	· 전 당 군수담당비서	1						1
	장성택	· 전 당 행정부장	1						1

*여기서 집계한 활동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 및 지도한 핵·미사일 발사실험·훈련 활동에 한함.(핵·미사일 관련 기념촬영, 연회 등은 제외)

이후 2016-2017년 사이 핵·미사일 활동이 부쩍 증가하면서 수행 인물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이 기간 각각 19회, 17회의 수행 빈도를 보이며 가장 두드러진 활동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김락겸(9회), 홍영칠(9회), 조용원(8회), 윤동현(7회), 정승일·장창하·리영길(6회), 유진·전일호(5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수행자 면면에서 나타난 변화는 총참모부나 총정치국 등 군 지휘계통보다는 '당 군수공업부' 중심의 핵·미사일 정책 및 개발 실무진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수행 빈도 상위 인물 대부분이 당 군수공업부 실무자나 전략군 및 기술적 개발 실무를 맡은 인물들이다. 소위 미사일 4인방으로 꼽히는 리병철, 김정식, 전일호, 장창하 등이 모두 당 군수공업부 및 산하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인물이다. 〈그림 I-2〉에서 보듯, 현재 북한 핵·미사일 정책 및 개발 실무 엘리트는 점선으로 표시된 칸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2〉 핵·미사일 관련 기관 및 책임자



아. 나가며: 고도의 정치성과 구조적 관성의 이중운동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월 3일까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화성-14형'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친 핵·미사일 활동을 두고 대체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이웨이'를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발보다는 관망이나 대화를 모색해야할 타이밍에 자신의 일정과 의지대로 발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활동 패턴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은 조성된 정세와 기술적 필요,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교묘하게 교차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타이밍'을 선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한국 및 미국의 대선과 대통령 취임 이후 도발 패턴이 그것을 증명한다. 물론 이 고도의 정치적 타이밍 속에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정교하게 배치돼 있는 한미연합 훈련체계 및 북한의 훈련체계가 맞물리는 '긴장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긴장구조를 발판 삼아 국면적 정세논리, 기술적 필요, 정치적 메시지가 핵·미사일 도발 '타이밍'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이 웨이'라는 표피적 설명 이상으로 우리는 구조적 관성과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이중운동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활동 '타이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핵·미사일 활동의 동기와 배경, 노리는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갖는 상황적 의미와 연례적인 시간 테이블 상에 압축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군사훈련의 지정학적 구도를 꼼꼼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북한의 '핵문제'로 환원하여 하나의 상식으로 보는 방식은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북한 '문제화'의 핵심적 인식틀이 되어왔다. 또 한편 핵무기를 통해 자신의 체제 생존과 존재를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북한의 '번역'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문제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누구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경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도록 '번역'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반도 문제의 '의무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 된 것이다.[26]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핵·미사일이라는 번역 프레임에 갇힐수록 해결의 출구는 좁아지는 역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26)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 284.

'평화'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 번역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체제지속을 위한 하나의 독자적 시스템 구축 과정과도 같다.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사회주의권 및 세계 질서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왔고, 기존 냉전 시스템에 의존하던 북한체제에게는 크나큰 도전과 시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냉전 의존적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지속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북한체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했다. 핵무기가 체제지속의 시스템 건설자(system builder)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기존 시스템(수령-당-국가체계-계획경제)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대외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 체제지속, 협상능력을 최대화하는 수단인 것이다. 핵·미사일 무기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정치문화 및 가치체계, 지리적 조건, 규제 법령,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기술스타일'이 달라지는데, 북한의 경우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당·국가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란 점,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쟁, 법적 규제와 절차, 국민 여론, 막대한 재원의 마련 절차 등을 생략하거나 보다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제재를 버텨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실험·보유·유지를 위한 자원 제약에 구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희생을 통해 자원 추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치사회적 저항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에 '올인'하며 급속도로 무기체계 완성에 박차를 가하며 위협 수준을 높이는 것은 상당부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27) 홍민, 위의 글, p. 298.

2. 핵·미사일 연도별·집권시기별·발사체별 활동 횟수

통치		김일성(8)*										김정일(28)*																		김정은(79)*						합계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		1	0	1	0	0	0	1	2	1	2	1	0	0	0	1	0	0	0	0	4	1	1	4	4	4	8	0	0	5	5	18	14	25	16	119
단거리		1 (7)		1 (1)					2 (2)		1 (2)	1									4 (4)	1 (1)	1 (2)	1 (2)	4 (7)	4 (11)	5 (15)			3 (6)	4 (8)	17 (113)	10 (31)	6 (18)	4 (6)	70 (236)**
중거리	준							1 (1)		1 (1)	1 (1)													1 (6)			1 (7)					1 (2)		4 (9)	4 (7)	14 (34)	24 (44)**
	중															1 (1)																		8 (8)	1 (1)	10 (10)	
장거리																								1 (1)			1 (1)			2 (2)				1 (1)	6 (6)	11 (11)**
SLBM																																	4 (3)	4 (4)		8 (8)**
핵실험																								1			1				1			2	1	6

* 발사 횟수
** ( ) 총 발사 수량
*** 2017년 6월 7일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에서 발사수량을 '수발'로 추정하여 발사횟수는 1회로 간주하지만, 발사수량은 포함시키지 않음.
※계수 기준: 발사 수량은 공식적으로 합동참모본부나 미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사 수량이 확인된 것만 계수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음.

3. 핵·미사일 활동 연도별 일지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1984	4/9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화성-5호) 첫 시험발사	7	300		
1986	5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화성-6호) 시험발사	1	500		
1990	5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화성-7호) 첫 시험발사 (실패)	1	150	무수단	
1991 (2건)	6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화성-6호) 발사	1			
	10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화성-6호) 발사	1			
1992	6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화성-7호) 시험발사	1			
1993 (2건)	5/29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화성-6호) 발사(2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화성) 시험발사 (500km 비행, 성공 추정)	3	1,300	함북 무수단 → 동해	
1994	5/31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998	8/31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시험발사	1	1,800~2,500	함북 무수단 → 동해	
2003 (4건)	2/24	중국제 실크윔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	100	함남 → 동해	
	3/10	중국제 실크윔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	100	함남 → 동해	
	4/1	중국제 실크윔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	60	서해 → 육지	
	10/20	중국제 실크윔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	100	함남 → 동해	
2004	4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독사, KN-02) 첫 시험발사 (실패)	1		강원도 깃대령	
2005	5/1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독사, KN-02)	2	120	함북 청진 → 동해	
2006 (3건)	3/8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독사, KN-02)	2	100~120	동해 → 동해	
	7/5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1발) 시험발사 실패 (공중 폭발)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노동 및 스커드급(6발) 시험발사	7		함북 무수단 → 동해	
	10/9	1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5/25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	100	함남 단천→동해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2007 (4건)	6/7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2	100	서해→서해	
	6/19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	100	동해→동해	
	6/27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독사, KN-02)	3	100	함남 신상리→동해	
2008 (4건)	3/28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	40	서해→서해	
	5/31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		평남 중산군→서해	
	6/27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3	100	함흥인근→동해	
		영변 냉각탑 폭파				
	10/7	공대함 단거리 미사일 (KN-01 개량) 추정	2		서해→서해	
2009 (7건)	4/5	장거리 미사일 (은하2호/광명성 2호 탑재) 시험발사	1	1단: 280 2단: 2,300	함북 무수단	
	5/25	2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무수단리 12:08 1발, 원산 17:03 2발)	3	130	원산 인근→동해 함북 무수단→동해	
	5/26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2	130	함흥 신상리→동해	
	5/29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18:12)	1		함북 무수단→동해	
	7/2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17: 20, 18:00, 19:50, 21:26)	4	100	함흥 신상리→동해	
	7/4	스커드 5발 (화성 7호) 노동1호 2발 (8:00 2발, 10:45, 12:00, 15:00, 16:10, 17:40 1발)	7	300-450	강원 깃대령→동해	
	10/1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KN-02 추정)	5	단거리	무수단-원산 사이→동해	
2012 (5건)	1/11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추정)	3	90-100	동해 인근 → 동해	
	3/29	지대함 단거리 순항미사일 (KN-01 추정)	2	120	동해 인근 → 동해	
	4/13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광명성 3호) 발사 실패	1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남쪽	
	9/27	지대함 단거리 순항미사일 (KN-01 추정)	1	80-90	평남 인근 → 서해	
	12/12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2기 운반로켓 은하 3호) 발사 정상궤도 진입	1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남쪽	○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2013 (5건)	2/12	3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3/15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추정) 발사 (16:30)	2		동해 인근 지상	
	5/18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추정) 발사 (오전 9:00, 11:00, 오후 4:00)	3	100	강원 원산→동해	
	5/19	300mm 방사포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추정) 발표	1		강원 원산→동해	
	5/20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추정) 발사	2		강원 원산→동해	
2014 (18건)	2/21	300mm 대구경 신형 방사포 추정 (KN-09) 4발 (16:00)	4		강원 원산→동해	
	2/27	스커드-B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05:42~)	4	200	강원 깃대령→동북 방향 해상	
	3/3	스커드-C 또는 ER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06:19)	2	500	강원 원산 송전리→동북방향	
	3/4	300mm 대구경 신형 방사포 (KN-09) 4발(04:17, 04:57, 05:07) 240mm 구형 방사포 3발 (06:00)	7	155 50	법동/호도반도→동북방향	
	3/16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비유도) 추정 발사 (18:20 10발, 20:03 8발, 21:28 7발)	25	70	원산 갈마반도→ 동해	
	3/22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비유도) 추정 발사(04:00~06:10)	30	70	원산 일대→ 동해	
	3/23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비유도) 추정 발사 (00:52~02:21)	16	60	원산 일대→ 동해	
	3/26	준중거리 (노동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02:35, 02:45)	2	650	평북 숙천→동해 * 내륙통과	
	6/26	단거리 미사일 (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17:00)	3	190	원산 호도반도 일대→동해	○
	6/29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발사 (04:50, 04:58)	2	500	원산 일대→동해	○
	7/2	단거리 발사체 (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 (06:50, 08:00)	2	180	원산 북쪽→동북	
	7/9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04:00, 04:20)	2	500	황남 평산→동해 * 내륙통과 (공군기지 부근)	○
	7/13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01:20, 01:30)	2	500	개성 북쪽→동해 * 내륙통과	○
	7/26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09:40)	1	500	황남 장산곶→동북 동해 * 내륙통과	○
	7/30	단거리 발사체(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07:30, 17:50)	4	130-210	평북 묘향산 일대→동해 * 내륙통과	
	8/14	단거리 발사체(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5	220	원산 일대→동해	○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09:30, 09:40, 09:55, 12:56, 13:05)				
	9/1	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 (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10:30)	1	220	자강도 용림→동해	
	9/6	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 (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07:00)	3	210	원산 일대→동북방 동해	
2015 (14건)	1/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비행시험으로 보는 의견)	1		함남 신포조선소	
	2/6	신형 함대함 미사일 (KN-01) 시험발사	4	100	원산 일대→동북방 동해	○
	2/8	단거리 전술 미사일 추정 발사 (04:20~05:10)	5	200	원산 일대→동북방 동해	
	2/20	실크웜 미사일 지대함 및 SA-3 지대공 미사일, 122mm방사포 등 발사시험			서해 남포	
	3/2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06:32, 06:41)	2	490	서해 남포 인근→동해	
	3/12	지대공 미사일 (SA 계열) 발사 (06:00-07:00)	7	250	함남 선덕 일대→동해	
	4/2	단거리 발사체 (KN-02 추정) 미사일 발사 (10:30)	1	140	서해 인근 지상→미확인	
	4/3	단거리 발사체 (KN-02 추정) 미사일 발사 (16:15~17:00)	4	140	평북 동창리→ 대동강 하구 해안	
	4/7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KN-06 추정) 발사	2	100	평남 화진리 일대→서해	
	5/8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 KN-11) 수중 사출시험	1		신포 인근 해역	○
	5/9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KN-01 추정) 발사 (04:25~05:23)	3		원산 호도반도→ 동해 마양도 방면	
	6/14	단거리 미사일 (KN-01 추정) 발사 (16:21~16:47)	3	100	원산 호도반도→ 동해 마양도 방면	○
	11/28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 1호, KN-11) 시험 발사 실패 (14:20~14:40)	1		원산 앞 바다	○
	12/21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실패 추정	1		원산 앞 바다	
2016 (25건)	1/6	4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2/7	장거리 탄도미사일(광명성 4호) 발사 (09:30) 3단 로켓 분리, 궤도진입	1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오키나와 상공 통과 * 남해방향	
	3/3	단거리 미사일 (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10:00)	6	100	원산 일대→ 동북방 동해	○
	3/10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계열 추정) 발사 (05:20)	2	500	황북 황주 일대→ 동해 * 내륙통과	○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3/16	SLBM(KN-11) 사출시험			신포조선소 지상시설	○
	3/18	준중거리 미사일 (노동 계열 추정) 발사 (05:55)	1	800	평남 숙천 일대→동해 * 내륙통과	
	3/21	단거리 발사체 (300mm 방사포 추정) 발사 (15;19~16:05)	5	200	함흥 북방 일대→동해	○
	3/29	단거리 발사체 (300mm 방사포 추정) 발사 (17:40)	1	200	원산 일대→ 동북방 내륙	
	4/1	신형 단거리 지대공 탄도미사일 (SA 계열 추정) 발사 (13:00)	3		함북 신덕→양강 내륙	○
	4/15	(1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무수단 계열 추정) 시험 발사 (05:30) *공중폭발, 실패	1		동해안 일대→동해	
	4/23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1, KN-11) 시험 발사 (18:30)	1	30	함남 신포→동북 동해상	
	4/28	(2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무수단 계열 추정) 시험 발사 (06: 40) (3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무수단 계열 추정) 시험 발사 (19:26) *1발 수초만에 추락(06: 40) *1발 공중폭발, 실패(19:26)	2		원산 일대→동해	
	5/31	(4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무수단 추정) 시험 발사 (05:20) *발사 단추 누르자마자 폭발, 실패(05:20)	1		원산 일대→동해	
	6/22	(5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무수단 계열 추정) 시험 발사 (05:58) (6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무수단 계열 추정) 시험 발사 (08:00) *1발 150km 비행 후 공중폭발(05:58) *1발 400km 비행 후 낙하(08:05)	2	400 (고각: 1,413)	원산 일대→동해	○
	7/9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 1호, KN-11) 시험 발사 (12:50) *공중폭발, 실패	1	10	함남 신포→동남방 동해	
	7/19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추정) 2발 발사 (05:45)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계열 추정) 1발 발사 (06:40)	3	500-600	황북 황주 일대→ 동해상 * 내륙통과	○
	8/3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추정) 2발 발사 (07:50)	2	1,000	황북 은율 일대→ 동해상 * 내륙통과	
	8/2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 1호, KN-11) 시험 발사 (05:30)	1	500	함남 신포 해상→동해	○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일본 방공식별구역 낙하				
	9/5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추정) 발사 (12:14) *일본 방공식별구역 낙하	3	1,000	황북 황주 일대→동해 * 내륙통과	○
	9/9	5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10/15	(7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 무수단, KN-07 추정) 발사(12:33) *공중폭발, 실패	1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10/20	(8차 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 무수단, KN-07 추정) 발사(07:00) *공중폭발, 실패	1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2017 (12건)	2/12	준중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KN-15) 발사 (07:55)	1	500	평북 구성시 방형비행장→동해 * 내륙통과(평북 방현 일대)	○
	3/6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 화성-7호 추정) 발사 (07:36) *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3발	4	1,000 (고도: 260)	평북 철산군 동창리→동해 * 내륙통과(평북 동창리)	○
	3/22	중거리 불상 발사체 (무수단 추정) 발사, 실패 (07:00)	1		강원 원산비행장 일대	
	4/5	준중거리 불상 발사체 (북극성-2형 추정) 발사 (06:40)	1	60	함남 신포 일대 → 동해	
	4/16	중장거리 불상 발사체 (KN-17 추정) 발사, 실패 추정 (06:20)	1	발사 직후 폭발	함남 신포 일대	
	4/29	중장거리 불상 발사체 (KN-17 추정) 발사, 실패 추정 (05:30)	1	발사 직후 폭발	평남 북창 일대 → 북동 방향 * 내륙통과	
	5/14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화성-12, KN-17) 발사 (05:37)	1	787 (고도: 2,110)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 → 북동방향(블라디 남쪽 97km) * 내륙통과	○
	5/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KN-15 추정) 발사 (16:59)	1	500	평남 북창 일대 → 동쪽 * 내륙통과	○
	5/27	지대공 유도 미사일 (번개 5호, KN-06) * 신형 반항공 요격 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1		함경남도 선덕 일대 → 동북 방향	○
	5/29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 계열 추정) * 지대함 칼빈슨호 대응용	1	450 (고도: 100)	강원도 원산 일대 → 동해상	○

연도	월	발사체 및 실험체 (시간대)	수량	발사거리 (km)	발사(실험) 장소 및 궤적	김정은 참관
	6/8	지대함 순항미사일(KH-35 추정) 시험발사 (06:18)	수발	200 (고도: 2)	강원도 원산 일대 → 동해	○
	7/4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 KN-14) (09:00) *39분 비행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1	933 (고도: 2,802)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 → 동해 (일본 EEZ) * 내륙통과	○
	7/28	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4형, KN-14) 시험발사(23:04)	1	998 (고도: 3,724)	자강도 무평리 일대 → 동해 * 내륙통과	○
	8/26	단거리 탄도미사일(3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 또는 스커드 개량형 추정) 발사(06:49)	3	250 (고도: 50)	강원도 깃대령 → 동북방향(김책시 남단)	
	8/29	중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KN-17) 시험발사 (05:27)	1	2,700 (550)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 → 동해 * 내륙통과	○

4. 미사일 종류와 발사 이력

미사일 유형	미사일명		사거리	공개시기	발사 연월	
	KN 명	북한명				
ASCM 지대함 순항미사일	KN-01	금성-1호	160		1994. 05. 31 2003. 02. 24 2003. 03. 10 2003. 04. 01 2003. 10. 20 2007. 05. 25 2006. 06. 07 2006. 06. 19 2008. 10. 07 2012. 03. 29 2012. 09. 27 2016. 02. 06 2016. 05. 09 2016. 06. 14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화성-11호 “독사” (소련명 Tochka 유래)	120- 170		2004. 04. __ 2005. 05. 01 2006. 03. 08 2006. 06. 27 2008. 06. 27 2009. 10. 12 2013. 03. 15 2013. 05. 18 2013. 05. 19 2013. 05. 20 2015. 04. 02 2016. 04. 03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3 (스커드 B)	화성-5호	300		1984. 04. 09 2013. 02. 27 2013. 03. 03	2014. 06. 29 2014. 07. 09 2014. 07. 13 2014. 07. 26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4 (스커드 C)	화성-6호	500		1986. 05. __ 1991. 06. __ 1991. 10. __ 1993. 05. 29	2014. 09. 01 2014. 09. 06 2016. 03. 02 2016. 03. 10 2017. 05. 29

미사일 유형	미사일명		사거리	공개시기	발사 연월
	KN 명	북한명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KN-05 (노동 1호)	화성-7호	1,000- 1,300		1990. 05. __ 1992. 06. __ 2006. 07. 05 2009. 07. 04 2014. 03. 26 2016. 03. 18 2016. 08. 03 2016. 09. 05
SABM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	번개-5호	150		2012. 01. 11 2015. 03. 12 2015. 04. 07 2016. 04. 01 2017. 05. 27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KN-07 (무수단) (BM-25)	화성-10	3,500		2016. 04. 15 2016. 04. 28 2016. 05. 31 2016. 06. 22 2016. 10. 15 2016. 10. 20 2017. 03. 06 2017. 03. 22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화성-13	5,500- 11,500		2012. 04. 15
SRBM 단거리 발사체 (신형 대구경 방사포)	KN-09		200		2014. 02. 21 2014. 06. 26 2014. 07. 02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KN-10		1,000	2010 포착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KN-11	북극성	900		2015. 05. 08 2015. 11. 28 2015. 12. 21 2016. 03. 16 2016. 04. 23 2016. 07. 09 2016. 08. 24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KN-14	화성-14	8,000- 10,000	2012. 4. 5	2017. 07. 04 2017. 07. 28

미사일 유형	미사일명		사거리	공개시기	발사 연월
	KN 명	북한명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KN-15	북극성 2형	1,200- 2,000		2017. 02. 12 2017. 05. 21
신형 방사포	KN-16				2014. 07. 30 2014. 08. 14 2016. 03. 03 2016. 03. 21 2016. 03. 29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KN-17	화성-12	4,500- 5,500	2017. 4. 15	2017. 04. 05 2017. 04. 16 2017. 04. 29 2017. 05. 14 2017. 08. 29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	백두산로켓 (광명성 1호)	1,800- 2,500		1998. 08. 31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	은하로켓	3,500- 4,500		2006. 07. 05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 (개량 발사)	은하 2호 (광명성 2호)	6,700- 10,000		2009. 04. 05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은하 3호 (광명성 3호)			1호기: 2012. 04. 13 2호기: 2012. 12. 12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광명성호 (광명성 4호)			2016. 02. 07
지대함 순항미사일	KH-35		200		2017. 06. 08

〈표 I-3〉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 내용

종류	이름	추진방식(단)	탄두	엔진방식	운용방식	최대사거리(km)	발사대수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	독사	1	1	고체	이동식	120	-
	300mm 방사포	1	1	고체	이동식	190	-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스커드-B	1	1	액체	이동식	300	100대 미만
	스커드-C	1	1	액체	이동식	500	100대 미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2	1	고체	이동식	1,000+	미배치
	스커드_ER	1	1	액체	이동식	1,000	-
	노동	1	1	액체	이동식	1,200+	100대 미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	1	액체	이동식	3,000+	-
	화성-10형	1	1	액체	이동식	3,000+	50대 미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호	3	1	액체	고정식	12,000+	-
	화성-13형	3	1	액체	이동식	5,500+	-
	화성-14형	2	-	액체	이동식	5,500+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2	1	액체	신포급 잠수함	미상	1(미배치)

*자료: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2017)

5. 핵·미사일 활동 장소와 발사수량

도	시·군·리	발사시점 및 발사체	횟수 (발사수량)	합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	(1993. 05. 29)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화성-7호) (1998. 08. 31)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광명성-1호) (2006. 07. 05)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1기), 노동 및 스커드급(6기) (2009. 04. 05) 장거리 미사일(은하2호(로켓)에 광명성 2호(위성) 탑재) 시험발사 (2009. 05. 25)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2009. 05. 29) 신형 지대공 미사일 (2009. 10. 12)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7 (18발)	14 (17발)
	청진시 일대	(2005. 05. 01) 소련제 단거리 마시일 SS-21 개량형(독사, KN-02)	1(2발)	
	연사군 신덕	(2016. 04. 01) 신형 단거리 지대공 탄도미사일(SA계열)	1(3발)	
	길주군 (풍계리)	(2006. 10. 09) 1차 핵실험 (2009. 05. 25) 2차 핵실험 (2013. 02. 12) 3차 핵실험 (2016. 01. 06) 4차 핵실험 (2016. 09. 09) 5차 핵실험	5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	(2008. 06. 27)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3 (2016. 03. 21) 단거리 발사체 (300mm 방사포 추정) 발사 (17:40)	3(4발)	16 (26발)
	단천시	(2007. 05. 25)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1호, KN-01 추정)	1(1발)	
	북청군 신상리	(2007. 06. 27)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독사, KN-02) (2009. 05. 26) 지대함 단거리 탄도미사일 (2009. 07. 02) 지대함 단거리 탄도미사일	3(9발)	
	정평군 선덕리	(2015. 03. 12) 지대공 미사일 (SA계열) (2017. 05. 27) 지대공 유도미사일 (번개-5호, KN-06)	2(5발)	
	신포시(신포조선소)	(2015. 05. 08)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2016. 03. 16)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7(7발)	

도	시·군·리	발사시점 및 발사체	횟수 (발사수량)		합계
		(2016. 04. 23)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2016. 07. 09)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2016. 08. 2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2017. 04. 05) 지대함 미사일 추정(북극성 개량형, KN-17) (2017. 04. 16) 지대함 미사일 추정(북극성 개량형, KN-17)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2004. 04)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도사, KN-02) (2009. 07. 04) 스커드 계열(화성-7호) 5발, 노동 1호 2발 (2014. 02. 27) 스커드-B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2017. 08. 26)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방사포 또는 스커드 개량형) 3발	4(15발)		31 (136발)
	원산시 일대	(2009. 05. 25)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1 (2013. 05. 18) 단거리 탄도미사일(KN-02 추정) (2013. 05. 19) 단거리 탄도미사일(KN-02 추정) (2013. 05. 20) 단거리 탄도미사일(KN-02 추정) (2014. 02. 21) 300mm 신형 대구경방사포 (KN-09 추정) (2014. 03. 22)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 (2014. 03. 23)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 (2014. 06. 29)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2014. 07. 02) 단거리 발사체(신형 대구경 방사포 추정) (2014. 08. 14) 단거리 발사체(신형 대구경 방사포 추정) (2014. 09. 06) 신형 단거리 전술미사일(스커드계열 추정) (2015. 02. 06) 신형 함대함 미사일(KN-01) (2015. 02. 08) 단거리 전술 미사일 (2016. 03. 03) 단거리 발사체(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2016. 03. 29) 단거리 발사체(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2016. 04. 28)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호, 무수단) (2016. 05. 31)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호, 무수단) (2016. 06. 22)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호, 무수단) (2017. 03. 22) 불상 발사체(무수단 추정)	20 (91발)	22 (119발)	

도	시·군·리	발사시점 및 발사체	횟수 (발사수량)	합계
		(2017. 05. 29)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 계열 추정) (2017. 06. 08) 지대함 순항미사일(KH-35 추정)		
	원산시 앞바다	(2015. 11. 28)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2015. 12. 21)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 KN-11)	2 (2발)	
	원산시 송전리	(2014. 03. 03) 스커드-C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1 (2발)	
	원산시 갈마반도	(2014. 03. 16)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	1 (25발)	
	금야군 호도반도	(2014. 03. 04) 신형 대구경 방사포(KN-09 추정) (2014. 06. 26) 신형 대구경 방사포(KN-09 추정) (2015. 05. 09)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KN-01 추정) (2015. 06. 14)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KN-01 추정)	4(16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2012. 04. 13)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광명성 3호) (2012. 12. 12)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2기) (2015. 04. 03) 단거리 발사체(KN-02 추정) (2016. 02. 07)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 (2017. 03. 06)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1호, 화성-7호 추정)	5(8발)	13 (20발)
	숙천군 일대	(2014. 03. 26) 노동 계열 추정 중거리 탄도미사일 (2016. 03. 18) 준중거리 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2(3발)	
	묘향산 일대	(2014. 07. 30) 단거리 발사체(신형 대구경방사포 추정)	1(4발)	
	구성시 방현비행장	(2016. 10. 15) 준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호, 무수단, KN-07) (2016. 10. 20) 준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호, 무수단, KN-07) (2017. 02. 12)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KN-15) (2017. 05. 14) 중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2017. 07. 04) 중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화성-14호, KN-14)	5(5발)	
평안남도	증산군 일대	(2008. 05. 31)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1(3발)	5 (8발)
	북창군 일대	(2017. 04. 29) 불상 발사체, 지대함 미사일(북극성 개량형 추정) (2017. 05. 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KN-15 추정)	2(2발)	

도	시·군·리	발사시점 및 발사체	횟수 (발사수량)	합계
	평원군 화진리	(2015. 04. 07)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KN-06 추정)	1(2발)	
	평안남도 인근	(2012. 09. 27) 지대함 단거리 순항미사일(KN-01 추정)	1(1발)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	(2016. 03. 10) 단거리 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2016. 07. 19)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추정)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2016. 09. 05)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추정)	3(8발)	4 (10발)
	은율군 일대	(2016. 08. 03)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추정)	1(2발)	
황해남도	평산군 (공군기지)	(2014. 07. 09)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1(2발)	3 (5발)
	개성 인근	(2014. 07. 13)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1(2발)	
	장연군 장산곶	(2014. 07. 26)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1(1발)	
자강도	용림군 일대	(2014. 09. 01) 신형 단거리 전술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1(1발)	1 (1발)
	무평리	(2017. 07. 28) 장거리 미사일(화성-14형, KN-14) 1발	1(1발)	2 (2발)
남포직할시	남포 인근	(2015. 03. 02)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1(2발)	1 (2발)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	(2017. 08. 29)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KN-17)	1(1발)	1 (1발)

6. 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활동 및 관련 사항 캘린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 1/11 KN-06 (3발) • 김정일 사망(12/27) • 김정은 생일(1/8) • 한미, 대규모 상륙훈련 정례화 합의 * 쌍룡훈련 (1/16-18)			* 1/23 SLBVM (함남 신포)	* 1/6 4차 핵실험 (함북 풍계리) • 김정은 생일(1/8)	
2		* 쌍용훈련 (2/4-6) * 한미연합대잠훈련 (2/19 -24) * 2/12 (3차 핵실험) • 김정일 생일(2/16) • 박근혜 대통령 취임(2/25)	* 키리졸브 (2/24-4/6) * 독수리 (2/24-4/18) * 2/21 KN-09 (4발, 원산) • 이산가족 상봉 중 발사(2/20-2/25) * 2/27 스커드-B (4발, 강원 깃대)	* 2/6 신형 반함선 로켓 시험발사 (KN-01 4발, 원산) 김정은 참관 * 2/8 단거리 전술 (5발, 원산) • 김정일 생일 * 2/20 실크웜 미사일 지대함 및 SA-3 지대공 미사일, 122mm방사포 등 (서해남포)	* 2/7 광명성 4호 (평북 동창리-오키나와) • 김정일 생일 • 한미연합잠수훈련 (2/13-2/15) • 대북화성기 재개(1/8)	* 2/12 북극성2형 (1발, 평북 구성) 김정은 참관 • 김정일 생일(2/16) • 트럼프 취임(1/20)
3	* 키 리졸브(2/27-3/9) * 독수리훈련(2/27- 4/30) • 3/2 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 * 3/29 KN-01 (2발) • 한미정상회담(3/25) • 국회의원 선거(4/11)	* 키 리졸브 (3/11-21) * 독수리연습(3/11-4/30) * 3/15 KN-02 (2발) • 3/7 유엔 인보리 대북제재 채택 • 3/31 병진노선 채택 • 3/29 전략로케트군 작전회의 참가	* 쌍용훈련 (3/27-4/7) * 3/3 스커드-B (2발, 원산) * 3/4 대구경방사포 (7발, 원산 호도) * 3/16 프로그 (25발, 원산 갈마) * 3/22 프로그 (30발, 원산호도) * 3/23 프로그 (16발, 원산호도) * 3/26 노동 (2발, 평북숙천) •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3/24 미중 정상회담 3/25 한중 정상회담 3/26 한미일 정상회담 * 3/31 해안포 (500발, 서해)	* 키 리졸브 (3/2-13) * 독수리 (3/2-4/24) * 쌍용훈련 (3/30-4/1) * 3/2 스커드계 (2발, 서해남포) * 3/12 지대공 (7발, 함남 선덕)	* 키리졸브 (3/7- * 독수리 (3/7-4/30) * 쌍용훈련 (3/7-18) - 참수작전 훈련 * 3/3 신형 대구경 방사포 (6발, 원산일대) 김정은 참관 • 유엔 인보리 결의안(3/2) •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3/2) • 3/9 핵무기연구 부문 과학자·기술자 핵무기 병기화 김정은 지도 * 3/10 스커드계 (2발, 황북 황주) 김정은 참관 • 3/15 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김정은 지도 * 3/16 SLBM KN-11 사출시험 (신포조선소) * 3/18 노동계열 (2발, 평남숙천) * 3/21 단거리 (5발, 함흥) 김정은 참관 • 3/24 대출력 고체로켓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전투성능 시험발사 김정은 참관 * 3/29 단거리 (1발, 원산일대) • 박근혜-오바마(워싱턴, 3/31) • 오바마-시진핑(워싱턴, 3/31) • 박근혜-시진핑(워싱턴, 3/31) • 한미일 정상회담(3/31)	* 키리졸브 (3/1-3/24) * 독수리 (3/1-4/30) * 쌍용훈련 (3/7-4/7) * 3/6 스커드계 또는 노동 추정 (4발, 평북 동창리) 김정은 참관 • 3/19 새형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실험 김정은 참관 * 3/22 중거리 무수단 추정 불상 발사체 (1발, 강원도 원산)
4	* 4/13 장거리 광명성3호 (1발) • 김일성 생일(4/15) • 2.29합의 발표 • 헌법 개정, 핵보유국 명기(4/13)	개성공단 폐쇄 사태		*4/2 KN-02 (1발, 서해인근 지상) * 4/3 KN-02 (4발, 평북 동창) * 4/7 지대공 (2발, 평남 평원) • 김일성 생일	* 4/1 단거리 지대공 (1발, 함북 선덕) 김정은 참관 • 4/9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지도 * 4/15 1차 발사 (무수단 1발, 동해) • 김일성 생일 • 국회의원 선거(4/15) * 4/23 SLBM KN-11 (1발, 함남 신포) * 4/28 2차·3차 발사 (무수단 2발, 원산)	* 4/5 북극성-2형 추정 불상 발사체 (1발, 강원도 신포) * 4/16 KN-17(화성-12) 추정 (1발, 함남 신포) • 김일성 생일 • 4/26 트럼프 대북정책 기조 발표 * 4/29 KN-17(화성-12) 추정 (1발, 평북 북창)
5		* 5/18 KN-02 (3발) * 5/19 KN-02 (1발) * 5/20 KN-02 (2발) • 한미연합대잠훈련, 동서해 (5/6-14) • 한미정상회담(5/7)		•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현지지도 * 5/8 북극성1 (신포 인근) 김정은 참관 * 5/9 함대함 (3발, 원산 호도)	* 5/31 4차 발사 (무수단 1발, 원산 일대)	• 5/9 한국 대선 • 문재인 정부 출범(5/9) * 5/14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1발, 평북 구성) * 5/21 북극성-2형(KN-15) (1발, 평남 안주시 연풍호) 김정은 참관 * 5/27 지대공 유도미사일(번개 5호, KN-06) 수발 시험사격 (함경남도 선덕 일대) 김정은 참관 • G7 대북제재 강화 확인 * 5/29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1발, 원산 일대)
6			* 6/26 KN-09 (3발, 원산 호도) 김정은 참관 * 6/29 스커드계 (2발, 원산) 김정은 참관	* 6/14 KN-01 (3발, 원산 호도) 김정은 참관 • 국방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6/22 5차-6차 발사 (무수단 2발, 원산 일대) 김정은 참관	* 6/8 지대함 순항미사일(KH-35 추정) 수발 시험사격(강원도 원산 일대) 김정은 참관 • 문재인-트럼프(6/30)
7			* 7/2 KN-09 (2발, 원산) 김정은 참관 • 한중정상회담(서울, 7/3) * 7/9 스커드 (2발, 황남평산) 김정은 참관 * 7/13 스커드 (2발, 개성 북쪽) * 7/14 방사포/해안포 (강원 고성) 김정은 참관 • 한미연합훈련(7/16- 7/21) * 7/26 스커드계 (1발, 황남장산) 김정은 참관 * 7/30 KN-10 (4발, 묘향산) • 7.27 조국해방전쟁 승전일		* 7/9 SLBM KN-11 (1발, 함남 신포) * 7/19 노동 추정 (3발, 황북 황주) 김정은 참관 • 사드 배치 결정(7/8) • 김일성 사망일(7/8)	* 7/4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 (1발, 평북 구성) 김정은 참관 • G20 * 7/28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1발, 자강도 무평리) 김정은 참관
8	• UFG (8/20-31)	* UFG (8/19-29)	* UFG (8/18-8/28) * 8/14 KN-10 (5발, 원산) 김정은 참관	* UFG (8/17-8/28)	* UFG (8/22-9/1) * 8/3 노동 추정 (2발, 황북 은율) * 8/24 SLBM KN-11 (1발, 함남 신포) 김정은 참관 • 오바마-시진핑(9/3) • 박근혜-푸틴(9/4) • 박근혜-시진핑(9/5) G20	*UFG(8/21-8/31) * 8/26 단거리 탄도미사일(3발, 강원도 깃대령) * 8/29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1발, 평양시) 김정은 참관
9	* 9/27 KN-01 (1발)		* 9/1 스커드계 (1발, 자강도) * 9/6 스커드계 (3발, 원산)		* 9/5 노동 추정 (3발, 황북 황주) 김정은 참관 • 박근혜-오바마 라오스 (9/6) * 9/9 5차 핵실험 (함북 풍계리) • 9/9 당창건 70주년 • 9/20 새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김정은 지도	* 9/3 6차 핵실험(함북 풍계리)
10					* 10/15 7차 발사 (무수단 1발, 평북 구성) • 한미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10/10-10/15) * 10/20 8차 발사 (무수단 1발, 평북 구성) • 한미영 연합 공중훈련 (11/4-11/10) • 11/8 미국 대선 • 11/13 오바마-시진핑	
11				* 11/28 북극성 1 (원산 앞바다) 김정은 참관		
12	* 12/12 장거리 광명성3호 2기 (1발) 김정은 참관 • 김정일 사망일 1주기 (12/17) • 한국 대통령 선거(12/19) • 미국 대선(11/6) • 오바마 집권 2기(1/21)			* 12/21 북극성 1 (원산 앞바다)		
합계	5	5	18	14	25	12

7. 김정은 핵·미사일 실험·발사 공개활동(참관·지도) 일지

연도	날짜	내용	비고
2012년	3월 2일	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	5 (1)
	12월 12일	**광명성-3호 2기 미사일 발사 명령 및 발사과정 참관**	
	12월 14일	미사일 발사 과학자, 기술자들 축하	
	12월 30일	광명성-3호 2기 미사일 발사 과학자 등과 기념사진 촬영	
	12월 31일	미사일 발사 과학자 등과 연회 참석	
2013년	2월 27일	핵실험 관련자들과 사진 촬영	2 (0)
	3월 29일	전략로케트군 작전회의 참가	
2014년	**6월 27일**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지도 (KN-09 추정)**	6 (6)
	6월 29일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 (스커드계 추정)**	
	7월 10일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 (스커드계 추정)**	
	7월 15일	**포실탄사격훈련 지도 (방사포/해안포)**	
	7월 26일	**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 발사시험 현지지도(스커드계 추정)**	
	8월 15일	**전술로케트탄 시험발사 지도 (KN-10 추정)**	
2015년	**2월 6일**	**신형 반함선 로켓 시험발사 참관 (KN-01 추정)**	6 (4)
	5월 3일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현지지도	
	5월 8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 시험 참관 (북극성 1호)**	
	5월 26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 시험발사에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	
	6월 14일	**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 배치되는 신형 반함선 로케트 발사훈련 참관 (KN-01 추정)**	
	11월 27일	**북극성 1호 시험발사 참관**	
2016년	1월 11일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 등과 기념 촬영	21 (9)
	1월 13일	핵과학자들 기술자 등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	
	2월 15일	광명성-4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해 연회 마련	
	2월 17일	미사일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등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참석하고 축하연설/기념사진 촬영	
	3월 3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	
	3월 9일	핵무기연구 부문 과학자·기술자들을 만나고 핵무기 병기화 사업지도	

연도	날짜	내용	비고
	3월 10일	**전략군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 (스커드계 추정)**	
	3월 15일	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환경 모의시험 지도	
	3월 21일	**신형 대구경방사포 사격 현지지도**	
	3월 24일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 지상분출 및 단계분리시험 지도	
	4월 1일	**새형의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발사(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4월 9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지도	
	4월 23일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	
	6월 22일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화성-10, 무수단)**	
	6월 29일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촬영	
	7월 19일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 참관(노동 추정)**	
	8월 24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참관(KN-11)**	
	9월 1일	SLBM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9월 5일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 발사 훈련 참관 (노동 추정)**	
	9월 20일	새 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지도	
	9월 22일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2017년	**2월 12일**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17 (10)
	3월 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스커드계 추정)**	
	3월 19일	새형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실험 참관	
	5월 14일	**화성-12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5월 20일	화성-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5월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KN-15) 발사 참관/지도**	
	5월 27일	**신형 반항공 요격 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KN-06, 번개 5호)**	
	5월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 계열)**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KH-35 추정) 시험발사 참관**	
	7월 4일	**화성-14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7월 10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 관람	
	7월 11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축하 연회 참석	

연도	날짜	내용	비고
	7월 13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7월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현지지도**	
	7월 31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경축 연회 참석	
	8월 15일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	
	8월 23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공개활동	
	8월 29일	**화성-12형(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발사훈련 지도**	
	9월 2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지도	

* ( ) 실제 발사실험 참석
* 해당날짜는 발사 참관일 기준이며, 기념사진 촬영 등 기타내용은 보도일을 기준으로 함.

〈표 I-4〉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공개활동 비중

2017년 9월 3일 현재

연도	전체 현지지도 횟수	군 관련 공개활동	군수공장 등 관련시설	핵미사일 관련 공개활동 횟수
2012	151	49 (32.5%)	4 (2.6%)	5 (3.3%)
2013	212	68 (32.1%)	16 (7.5%)	2 (0.9%)
2014	172	73 (42.4%)	13 (7.6%)	6 (3.5%)
2015	153	59 (38.6%)	8 (5.2%)	6 (3.9%)
2016	133	63 (47.4%)	7 (5.3%)	21 (15.8%)
2017	57	35 (61.4%)	1 (1.75%)	17 (30.0%)
합계	878	347 (39.5%)	49 (5.58%)	57 (6.49%)

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 및 활동 연표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3 (스커드-B, 화성-5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	7발(300)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1발(500)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 (실패)	1발(1,000-1,300)	
UN 가입 신청 의사 표명 (외교부)			
IAEA 핵안전협정 체결 교섭 의사 표명 (빈 주재 국제기구 신임대사 전인천)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성공)	1발(500)	
UN 가입 신청서 제출			
IAEA 핵안전협정문안 합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제안 (외교부 성명)			
IAEA의 대북 핵안전협정 조기서명 및 핵사찰 이행촉구 결의 반박 및 거부 (외교부 대변인)			

1984~1991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984.	04. 09			
1986.	05. _ _			
1990.	05. _ _			
1991.	03. 12	팀 스피리트		
	03. 21			
	04. 05			노창희 주유엔대사, UN 단독가입 공표
	05. 27			
	05. 29			
	06. _ _			
	06. 05		북·미 고위관리 워싱턴 첫 접촉	
	06. 14			노태우 대통령, 한국의 핵무기 철수에 반대(뉴욕타임즈 회견)
	07. 06			노태우 대통령, 획기적 남북민간교류 검토지시(밴쿠버선언)
	07. 08			
	07. 15			
	07. 30			
	08. 05			한국, UN 가입 신청서 제출
	08. 05		UN 안보리 전체회의, 남북한 유엔가입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흡수통일 배제 입장 천명
	08. 15			노태우 대통령, 북한의 특정 지역에 합작공장 건설, 관광·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한 제3국 공동진출 계획 언급(제46주년 광복절 경축사)
	09. 12		IAEA 이사회, 북의 핵안전협정 조인 촉구 결의안 채택	
	09. 14			
	09. 17		제46차 유엔총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승인	
	09. 21		IAEA 총회, '북한 핵안전협정 이행결의안 채택'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미국의 핵 폐기 선언 환영성명에서 한국 내 미국 핵무기 철수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되풀이 주장 (외교부 성명)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500)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시 핵안전협정 조인하겠다"(외무성)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 수락하겠다" (외무성)			
김일성 신년사, '공정성 보장시 핵사찰 수락 용의'			
핵 안전조치 협정 서명 및 IAEA 사찰 수용 발표			
IAEA 핵안전조치협정 체결(92. 04. 10 발효)			
IAEA 핵안전협정서 비준 (최고인민회의)			
IAEA에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 제출 (7개 핵시설과 플루토늄 보유)			

1992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9. 24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통일 3개 실천방안 제시' ①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 전환 ②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 ③ 핵에너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
09. 27	부시 미국 대통령,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핵무기 해체·폐기 선언, 소련측에 다탄두 핵미사일 전면 폐기 제의'	
09. 28		노태우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핵 폐기 선언 환영 표명 및 모든 한반도 주변 핵 제거 강조
10. _ _		
10. 2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10. 22-25)
10. 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11. 01 독수리 연습		
11. 0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1. 12		
11. 25		
12. 11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제의
12. 13		남북 기본합의서 서명
12. 18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 부재" 선언
12. 22		
12. 26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1차 실무접촉(판문점 통일각)
12. 28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2차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12. 31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3차 실무접촉 남북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01. 01		
01. 07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01. 22	북·미 최초 고위급회담(김용순-켄터, 뉴욕)	
01. 30		
03. 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JNCC: 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 설립
03. 2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04. 10		
05. 04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발(1,000-1,300)	
IAEA 미신고시설 2개 방문 요청 거부			
'특별사찰 강요하면 전쟁초래' (노동신문)			
IAEA 미신고시설 2개 특별사찰 요구 거부			
준전시상태 선포			
NPT 탈퇴 서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스커드-C(화성-65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성공)	2발, 1발(1,300) *500km 비행, 성공 추정	함북 무수단→ 동해
북, NPT 탈퇴 잠정 유보			

199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25		IAEA 북한 임시 핵사찰 실시(~1993.02.06) '중대한 불일치(Significant Discrepancy) 발견' • 북: 5MWe 흑연감속로 형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1회에 걸쳐 소량 (80~90g)의 플루토늄 추출 • IAEA:최소 3회 (89, 90, 91)의 재처리로 보다 많은 양(㎏단위)의 플루토늄 추출 /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 2개 미신고시설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	
06. _ _			
07. 02		미 국방부, 한국 내 핵무기 철수 완료 발표	
11. 03	독수리 연습		
11. 09			
12. 18			제14대 대통령 선거
12. 22		IAEA, 북에 2개 미신고시설 방문 허용 요청	
1993. 01. 05			
02. 09		IAEA, 북 미신고시설 2개 특별사찰 수용 촉구	
02. 21			
02. 23		울시 CIA 국장,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 최소 1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핵물질 보유' 주장	
02. 24			
02. 25		IAEA 정기이사회, 북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김영삼 대통령 취임
03. 02	팀 스피리트		
03. 08			
03. 12			북한 NPT 탈퇴에 대한 성명 발표
03. 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 결의안 채택 (특별사찰 수락 3월 31일로 연장)	
03. 31		IAEA 특별이사회, 북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UN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04. 01		IAEA 이사회, '대북 결의안' 채택	
04. 08		UN 안보리, 북핵문제 관련 '의장성명' 채택	
05. 11		UN 안보리 북의 핵사찰 수용과 NPT 탈퇴 철회 촉구 결의(825호) 채택(UN 안보리 북핵·미사일 최초 결의안)	
05. 29			
06. 02		1차 북·미 고위급 회담 (~06.11, 갈루치-강석주, 뉴욕)	
06. 11			
07. 14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07.19, 제네바), 북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문제 등을 논의	
08. 04			한국,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 (북 거부, 08.09)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북한, 미국에 일괄타결안 제의 (강석주 핵협상 대표단장, 외교부 부부장)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중단			
IAEA에 전문 보내 "북한 핵 현황의 계속성 악화는 IAEA측의 책임"			
영변 5MWe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정전협정 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 선언			
영변 5MWe 흑연감속로에서 연료봉 인출 (6월 15일 까지 약 50톤 8천여 개 인출)			
북한, 5MWe 원자료 폐연료봉의 임의 인출 감행 (~05.24)			
	KN-01 (금성-1호), 지대함 순항미사일	(160)	

199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8. 31		IAEA 사찰단 방북 (제한된 활동) (~09.04)	
11. 01		UN 총회, 즉각적 협조를 요구하는 대북 핵 결의안 채택	
11. 11			
11. 14			
11. 15	독수리 연습		
11. 20			
12. 01			
12. 03		IAEA 사무총장, 핵물질 전용여부 검증 불가능 선언	
12. 29		북·미, 뉴욕 실무접촉서 핵사찰 수용 합의 발표 • IAEA 사찰 허용 • 남북 실무회담 개최 • 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1994. 02. 15		IAEA, 북 핵사찰 수용 발표	
02. 25		북·미 핵사찰 합의 내용('93. 12. 29일자) 공개 •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 남북회담 재개 • IAEA 사찰 개시 (03.03~03.12)	
03. 03		IAEA, 북의 핵 의심 시설 7곳에 대한 사찰을 실시했으나, 북의 사료 채취거부로 재처리시설 추가건설 사실만을 확인 (~03.14)	
03. 19			박영수 제5차 남북 실무회담 북한 대표, '서울 불바다' 발언
03. 21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정	
03. 24		IAEA 사무총장, 북 핵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	
03. 31		UN 안보리, 북 추가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04. 10			
04. 28			
05. 04			
05. 17		IAEA 추가/후속사찰 실시 (~05.24)	
05. 27		한스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 UN 안보리에 "북의 사용 후 연료봉 무단인출로 과거 핵활동 관련 정보 습득 불가능" 보고 미 국무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발표	
05. 31			
06. 10		IAEA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연 69만 달러의 기술원조 중단 및 대북 지원금 대폭 삭감)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IAEA 탈퇴' 공식선언, 이에 대한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공표			
김일성 사망(7.9 공식 발표)			
'특별시찰을 통해 군사 대상을 개방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 주장 (인민무력부 대변인)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활동 동결 선언 5MWe 원자로 재장전 계획 취소와 50MWe·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발표			
평화체제 수립 문제 관련 담화문 발표 (외무성)			

1995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6. 13		
	06. 14	미, 장관급 회의 중 '대북 공격(Osirak Option)' 검토	
	06. 15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 대통령 방북, 김일성 주석 회담 (~06.18)	
	07. 08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제네바, ~07.10)	
	08. 05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제네바, ~08.12) •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지원, 폐연료봉 보관, 대체에너지 보장 등 4개항 합의	
	09. 10	북·미 실무급 전문가 회의 개최 (베를린, ~09.14)	
	09. 23	3차 북·미 고위급회담 두 번째 회의 (제네바, ~10.17)	
	09. 28		
	10. 21	**제네바 합의문(조·미 기본합의문) 체결** • 북: 흑연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 동결, 경수로 완공 시 핵시설 해체 • 미: 2003년까지 1,000MWe급 경수로 2기 제공, 이전까지 매년 연간 중유 50만톤 공급	
	11. 01 독수리 연습		
	11. 07		'핵-경협 연계' 대북 경협 축소 완화 방침 표명
	11. 28	IAEA 전문가 그룹, 영변 태천 핵동결 사실 확인	
1995.	01. 15	미, 대북 중유제공 개시	
	01. 21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정보·통신, 금융거래)	
	02. 20		북한, 판문점 JSA 내 무장병력(40명) 투입 시위
	02. 24		
	03. 0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1차 집행 이사회 뉴욕서 개최)	
	03. 25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담 개최(베를린), 한국형 거부 (~03.27)	
	05. 19	북·미, 준고위급 회담(허바드-김계관, 쿠알라룸푸르, ~06.12)서 경수로 협상 타결(한국형 경수로)	
	06. 17	미 기술진 방북, 5MWe 원자료 폐연료봉 8,000여 개 처리 확인 (~06.24)	제1차 남북 차관급 쌀회담(베이징)
	06. 27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7. 15		제2차 남북 차관급 쌀회담(베이징)
	08. 01		쌀 수송선 '삼선 비너스'호의 청진항 사진촬영으로 억류사건 발생
	08. 23	북, UN에 수재에 따른 긴급구호 요청	
	11. 13 독수리 연습		
	11. 17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북·미 평화협정 제의			
폐연료봉 8,000여 개 밀봉작업 개시			
	인공위성(대포동 1호, 백두산로켓, 광명성 1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1발(1,800~2,500) (1,800-2,500) *1단 253㎞ 2단 1,646㎞ 위성 궤도진입 실패	함북 무수단→동해

199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15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000MWe급 가압경수로 2기(한국 표준형)	
1996.	01. 30		IAEA 대변인, 북 주요 핵시설 사찰 거부 언급	
	02. 22			
	04. 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04. 15	팀 스피리트		
	04. 20		북·미 제1차 미사일 회담(베를린, ~04.21)	
	04. 27			
	05. 01		미 국무부, 북의 핵연료봉 봉인 착수 발표	
	09. 10		UN 총회,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 채택	
	09. 18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09. 20		IAEA, 북의 과거 핵 운용 공개 촉구	
	10. 28	독수리 연습		
	10. 29		UN 총회,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촉구 대북결의 채택	
	11. 10			
1997.	02. 11		UN, 북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서명 촉구	
	06. 11		북·미, 제2차 미사일 회담(뉴욕, ~06.13) • 미: 미사일 수출, 생산, 개발, 배치 포기 요구 • 북: 보상받을 시 수출은 고려·생산·개발·배치·포기는 불가	
	07. 28		4자회담 실무접촉(뉴욕)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부지공사 착수	
	08. 05		4자회담 1차 예비회담(뉴욕)	
	10. 27	독수리 연습		
	10. 31		미, 5MWe 원자로 폐연료봉 8,000개 밀봉 완료 발표	
	11. 06			
	12. 09		제1차 4자회담 (제네바, ~12.10)	
	12. 18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8.	02. 25			김대중 대통령 취임
	03. 16		제2차 4자회담 (제네바, ~03.20)	
	04. 23	RSOI		
	04. 29			
	06. 04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8. 17		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제기(뉴욕타임즈)	
	08. 21		북·미 고위급 회담 (~09.05) • 찰스 카트먼(Charles Kartman) 한반도 평화회담특사, 김계관 외교부부부장 • 지하 핵 의혹시설, 핵 연료봉 처리, 미사일회담 재개 등 합의	
	08. 31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 (인민무력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경수로 지연 이유로 제네바 합의서 파기 경고			

1999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01	북·미 제3차 미사일 회담(뉴욕, ~10.02) • 미: 미사일 시험발사, 수출, 개발·생산·배치 중지 요구 • 북: 3년간 30억 달러 제공시 수출 중지 가능	
	10. 21	제3차 4자회담 (제네바, ~10.25)	
	10. 26 독수리		
	11. 06 연습		
	11. 16	북·미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1차 협상 (평양) (~11.18)	
1999.	01. 19	제4차 4자회담 (제네바, ~01.22)	
	03. 16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 1차: 1999. 5월 중순 • 2차: 2000. 5월 • 3차: 미국 요청 시 식량 60만 톤 지원, 감자사업 지원	
	03. 29	북·미 제4차 미사일 회담 (평양, ~03.30)	
	05. 18	미국, 금창리 방문단 1차 현장 조사 (~05.24) • 한국과 미 국무부 조엘 위트(Joel Wit)외 14명,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거대한 복합터널) • 미국의 입장: 기본합의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가 원자로 건설 합의문 위반	
	05. 25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방북 (~05.28)	
	06. 05		서해교전(제1연평해전)
	09. 02		
	09. 07	북·미 고위급 미사일 회담 (베를린, ~09.11), 미사일 발사 유보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 지원 교환	
	09. 15	페리,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의회보고 • 대북정책 추진 3단계 (Perry Process) –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 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보장(중기) –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 정책권고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 한·일과의 고위정책 조정감독그룹 존속 –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09. 17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09. 24		
	10. 01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10. 26 독수리		
	11. 05 연습		
2000.	01. 22	북·미 베를린회담, 북·미 워싱턴 고위급회담 합의	
	02. 02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경수로 본 공사 착공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김 위원장 특사로 방미(~10.12)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핵·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 (외무성 대변인)			
제네바 합의 이행관련 미국에 전력손실 대안 요구 (외무성 대변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흑연감속로 재가동 경고 (조선중앙통신 상보)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 국제협약', '인질반대 국제협약' 가입 결정 (외무성 대변인)			

2001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2. 15			
04. 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05. 24		미, 금창리 2차 사찰 (~05.25) 1차 사찰 결과와 상이점 발견 못 함	
06. 13			제1차 남북정상회담(평양, ~06.15)
07. 10		북·미 제5차 미사일 회담 (쿠알라룸푸르, ~07.12)	
07. 27		북·미 외무장관 회담 (백남순-올브라이트)	
10. 06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10. 09			
10. 12		북·미 공동 코뮤니케(US-DPRK Joint Communique) • 신뢰회복,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 협조 약속 (미군유해발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 •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	
10. 23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10.25)	
10. 25	독수리 연습		
11. 01	독수리 연습	북·미 제6차 미사일 회담 (쿠알라품푸르) (~11.03)	
11. 03	독수리 연습		
2001. 01. 21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취임	
02. 21			
03. 03			
05. 16			
06. 06		부시 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 재개' 공식 선언 •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협상할 의지 표명('포괄적 해결' 제안)	
08. 04		북·러 정상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서명 (~08.05) • 북한 측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09. 11		미, 9·11 테러 발생	
09. 25		IAEA,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10. 16		부시, 북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해야 국제적 신뢰받을 것, 미 전쟁 상황 악용은 오판 언급	
11. 04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부시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외무성 대변인)			
NPR에 반발 미국과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			
중단 되었던 KEDO와의 협상재개 용의 표명 북미 회담 재개 희망			
미국의 핵사찰 수용 요구 거부			
미국에 대한 선 핵개발 계획 포기 거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외무성 대변인)			

2002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1. 26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사찰 투명하게 받아야"	
	12. 14	UN 총회서 대북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2002.	01. 29	부시,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Axis of Evil)'발언	
	02. 01		
	03. 09	미 국방부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 대상 7개국(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에 북한을 포함	
	03. 13		
	03. 20	미, 북의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에 대한 인증 유보	
	03. 21 RSOI/ 독수리 연습		
	03. 27		
	04. 03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 (~04.06)
	04. 11		
	04. 30	북·미, 대화 재개에 합의	
	05. 21	미 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지정	
	06. 13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6. 29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북 계획 철회	서해교전(제2 연평해전)
	07. 31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북·미 외무장관 비공식 회동 (백남순-파월)	
	08. 13		
	09. 16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북 이미 핵무기 보유' 주장	
	09. 17	북·일 정상회담(평양), 일본인 납치 시인 및 평양선언	
	10. 03	켈리 차관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10.05)	
	10. 16	켈리 특사, '북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의 추진 시인' 발표	
	10. 21	부시, "북핵 문제를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10. 25		
	10. 29	미 국방 및 국무장관,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핵해결방식 배제 표명	
	11. 13	미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11월분 대북중유는 예정대로 지원하되 12월분부터 지원 중단 발표	
	11. 15	KEDO 집행이사회,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HEU 등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등 다른 KEDO 사업도 재검토 부시, 대북 성명 발표(핵 폐기 촉구, 북 침공 않겠다)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핵 활동 동결 해제 선언			
IAEA에 핵 동결 시설 봉인·감시 카메라 제거 요구			
핵 동결 해제 조치 개시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감시 장치 제거			
핵시설 봉인 제거 완료해 감시 체제 무력화			
IAEA 사찰단원 3명 추방 통보			
NPT 탈퇴 가능성 시사			
NPT 탈퇴 선언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으며…핵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정부 성명)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최진수 주중 북 대사)			
기만적 대화 유포 중단 촉구			

200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1. 21	미 CIA 보고서 공개, '북은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서, 2003년까지 7-8개의 핵무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추정	
11. 28	IAEA 이사회, 북의 핵 개발 포기 요구 성명 채택 (오스트리아 빈)	
12. 12		
12. 13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
12. 22	IAEA, 북한을 최우선 감시 대상국 지정	
12. 23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와 북한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고 경고	
12. 24		
12. 26	IAEA, "북한이 1000개의 핵 연료봉을 장전했다"	
12. 27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에 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핵 성명 발표
12. 29	미, 대북 '맞춤형 봉쇄'정책 돌입 (정치·경제 제재)	
12. 31	IAEA 북핵 감시 사찰단 2명 북 추방 통보에 따라 철수 부시, 북핵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	
2003. 01. 06	IAEA 특별이사회, HEU 핵개발계획에 대한 해명 및 핵 동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01. 10	미·중 정상 긴급 전화 통화, "심각한 우려" (부시-장쩌민)	NSC 상임위원회 소집, "북한 NPT 탈퇴 철회해야"
01. 11		
01. 12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북핵 특사 자격으로 방한	
01. 13		노무현 당선자, 제임스 켈리 면담 • 북핵 불인정, 평화적 해결, 한국 주도의 3원칙 제시
01. 14	부시 미 대통령, 핵 포기하면 북에 경제 지원 표명 파월 미 국무장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중 기존의 협상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New Arrangement)'도 가능 언급	
01. 27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01.29) •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북핵 논의, 김대중 대통령 친서 전달 •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 전달, 핵무기 개발 포기 및 핵 동결 원상복귀 선언 요구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동결되었던 핵 시설들 가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 공표 (외무성)			
	KN-01 (금성-1호),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중국제 실크웜)	1발(100)	함경남도→ 동해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발(100)	함경남도→ 동해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발(60)	서해 인근→ 내륙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다자회담 수용 시사) (외무성 대변인)			
"8천여 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외무성 대변인)			

200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1. 28		부시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3개 국가는 무법 정권(Outlaw Regime)"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 않겠다" 언급	
02. 05			
02. 06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 침공의사는 없지만, 어떠한 군사적 선택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경고	
02. 07		부시, 북에 군사적 행동도 고려(동시에 평화 해결 노력 지속)	
02. 24			노무현 대통령 취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02. 26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02. 28		미 국방부 관리 인용 "외과수술적 미사일 공격부터 집중폭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쓰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뉴욕타임즈)	
03. 03		부시 미 대통령,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 언급	
03. 04	RSOI/ 독수리 연습		
03. 10			
03. 20		이라크전 발발	
03. 25		중 외교부 대변인, UN제재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중국 주재 하 북·미 당사국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04. 01			
04. 02			
04. 12			
04. 13		부시 미 대통령, 북의 다자 간 대화 수용에 "북한에서 좋은 진전"	
04. 18			
04. 23		북·미·중, 북핵 3자회담 (베이징, ~04.25)	
04. 30		미 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상 7개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미국이 "북남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 (조선중앙통신 상보)			
"먼저 북·미 간 회담을 계속해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 (외무성 담화)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외무성 대변인)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언급 (외무성 대변인)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한·미·일·중·러 통보			
6자회담 틀 내 조미 쌍무회담 제안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 방향에서 용도 변경" (외무성 대변인)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발(100)	함경남도→ 동해

200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12		
05. 15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 공동성명에서 "북핵은 다자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제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검토"	
05. 24		
05. 27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의 양자회담 제의 거부	
05. 31	부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선언	
06. 04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이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번복 불가능한 방식(CVID)으로 핵무기 개발을 종료할 경우 북측의 담대한 제안에 대한 논의가능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	
06. 12	한·미·일 대북정책그룹(TCOG) 회의 (하와이, ~06.13)	
06. 17	미, 대북 식량 지원 유보	
06. 18		
06. 30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개최
07. 03	UN 안보리 '북핵 폐기 촉구' 의장 성명,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	
07. 12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07.15) (다자회담 설득, 북 수용 불가)	
07. 21	미 의회, KEDO 지원 금지법 통과	
07. 23		
07. 28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북핵문제 협의 위해 방중(29일 방한)	
08. 04		
08. 07	왕이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 방북, 6자회담 일정 합의	
08. 12	한·북·러, 6자회담 관련 고위급 회담 (모스크바)	
08. 13	6자회담 관련 한·미·일 3자 협의 (워싱턴, ~08.14)	
08. 27	제1차 6자회담 개최(베이징, ~08.29)	
08. 29	미 국무부, 북핵의 CVID식 해결 촉구	
09. 01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	
09. 05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 핵 폐기 의지 보일 땐 안전 보장 방안을 검토하겠다"	
09. 30	한·미·일 북핵 관련 비공식 회의(도쿄)	
10. 02		
10. 20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	1발(120-170) *실패	강원도 깃대령
김정일, 극비 방중(~04.21) •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핵개발 포기·보상, 신의주 특구 등 협의, 19일) • 장쩌민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연쇄 회담(6자회담 계속 참여, 20일)			

200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29	우방궈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담 재개 동의(~10.31)	
	11. 03	KEDO 집행이사국 비공식 집행이사회(뉴욕), "경수로 공사 1년 정도 중단" (~11.04)	
	11. 21	KEDO, 경수로 한시 공사 중단 공식 발표 (뉴욕)	
	12. 09	원자바오 중 총리-부시 미 대통령 정상회담 부시, 북의 핵 동결·대북 지원 행동 조치 제안 거부	
	12. 19	리비아, WMD 완전폐기 선언	
	12. 24	미, 북에 식량 6만 톤 추가 지원	
2004.	01. 06	미국 민간 대표단(해커, 프리처드 등), 북 영변 핵시설 견학(~01.09)	
	01. 17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기 6자회담 개최 동의, 미국의 입장확인 필요" (~01.20)	
	01. 23	북·미 뉴욕접촉, 2월초 6자회담 개최, 회담 시 북·미 직접협상 참가용의	
	02. 02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80~90년대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 유출" 밝힘	
	02. 24		제2차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베이징)
	02. 25	제2차 6자회담 (베이징, ~02.28) • 의장성명서 채택(28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	
	03. 22 RSOI/독수리 연습		
	03. 27		
	04. _ _		
	04. 07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정책협의회(샌프란시스코) CVID원칙 재확인(~04.08)	
	04. 15	제60차 UN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04. 19		
	05. 12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베이징, ~05.15)	
	05. 22	북·일 2차 정상회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재방북	
	06. 21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베이징, ~06.22)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리바아식 선핵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외무성 대변인)			
미·일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합동해상 훈련 비난 (~08. 08)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 관련 6자회담 연계 시사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해 무기화" 주장 (최수헌 외무성 부상, UN총회 기조연설)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거한 일괄타결 방안의 첫 단계로서 '동결 대보상'의 시행이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 6자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외무성 대변인)			
핵무기 보유 선언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 (외무성 성명)			
김정일, "6자회담 조건 되면 회담 탁(卓)에 나갈 것"			

2005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6. 23		제3차 6자회담 (베이징, ~06.26)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 강조	
07. 02		북·미 외무장관회담(ARF참석, 자카르타)	
07. 09		콘돌리자 라이스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대통령 특사 자격 방한해 "북 핵 폐기 시 놀랄 만한 대가 있을 것" (리비아식 제안)	
07. 24			
08. 07			
09. 11			
09. 18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통일부) •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 없음 • 핵 투명성 유지와 국제 협력 강화 •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 •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
09. 27			
10. 22			
2005. 01. 11		미 의회 하원의원 대표단 방북 (~01.14) 커트 웰던 (Curt Weldon) 등 공화·민주당 의원 6명, 6자회담 재개 시사	
01. 18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서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발언(~01.19)	
01. 20		미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자유 확산과 폭정의 종식 강조	
02. 10			한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에 급파, 딕 체니 미부통령과 협의
02. 19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 방북	
03. 02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03.04)	
03. 17	RSOI/ 독수리 연습		
03. 18	RSOI/ 독수리 연습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03.21), 북을 '주권국가'로 지칭 • 방일 (03.18~19), 방한 (03.19~20), 방중 (03. 20~21)	
03. 25	RSOI/ 독수리 연습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이미 핵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 (외무성 성명)			
UN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엄포 (외무부)			
"부시는 불망나니에 도덕적 미숙아" (외무성 대변인)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120)	함북 청진→동해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작업 완료"(외무성 대변인)			
영변5MWe 원자로 재가동			
김정일 위원장,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 국무위원 면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이 노력할 것"			

2005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31		
04. 2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 한·중·일 방문 북핵 문제 협의 (~04.29)	
04. 25		
04. 29	부시, 김정일에 폭군(tyrant) 지칭	
04. 30		
05. 01		
05. 08	한·중 정상회담 "북한 핵에 깊은 우려"	
05. 09	한·러 정상회담 "6자회담 위해 더 노력" 미·러 정상회담, "북핵 6자회담에서 해결"	
05. 11		한국, "폐연료봉 인출은 협상용"
05. 13	북·미 뉴욕 실무접촉,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 시사	
06. 10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핵무기 완전 제거가 공동목표"	
06. 17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김 위원장: "미국에서 북한 인정·존중 확고할 경우 내달 6자회담 복귀용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
06. 18		
06. 29	부시 미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혐의로 북한 기업의 미국 내 활동·자산 동결" • 북한 3개 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미국 내 자산 동결	
07. 09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접촉 (베이징) • "7월 25일경 제4차 6자회담 개최 미국과 합의" 발표	
07. 14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중대 제안 발표 • 북한 핵 폐기할 때는 2008년부터 200만KW 전력 직접 공급 • 핵 폐기 2년 내 이뤄져야"
07. 13		
07. 14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4차 6자회담 실무 협의(서울), '대북한 송전' 6자회담서 추진	
07. 26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베이징, ~08.07)	
08. 1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적 핵 이용은 북한의 권리"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9월 셋째 주에 6자회담 2단계 회담 갖자" 발표 (외무성)			
"미국의 대조선 제재 실시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외무성 대변인)			
"경수로 제공의 중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北)는 흑연감속로들과 그 연관시설들에 기초한 핵 동력 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 (조선중앙방송)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01.18)			

200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8. 13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대부인 압둘 칸 박사가 1990년대 초 북에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 부품 및 설계도 보낸 사실 공개	
08. 29		
09. 13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베이징, ~09.19) • 미: "핵 프로그램 폐기" • 북: "핵 무기만 포기"	
09. 15	미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anco Delta Asia)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09. 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 채택 〈9·19공동성명〉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 NPT·N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09. 20	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BDA는 북과 거래 중단 발표)	
09. 30		"북한, 핵 상호 사찰 요구 땐 수용" 의사 밝힘
10. 18		
10. 21	미국, 해성무역·조선광성무역·조선부강무역 등 북 8개 기업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입 의혹으로 자산 동결	
11. 09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베이징, ~11.11) • 9·19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 채택	
11. 18	UN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11. 21	KEDO 집행이사회 사업 종료방안 논의 (뉴욕, ~11.22)	
12. 07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북을 '범죄국가'로 지칭	
12. 20		
12. 21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달러 위조는 분명한 사실" (현지 20일)	
2006. 01. 05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 위조지폐 대응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뜻"	
01. 08	KEDO 현장 인력 전원 철수	
01. 10		
01. 18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에서 회동 • 북: 선 금융 제재 해제 요구 • 미: 기존 입장 고수	
02. 02	존 네그로폰테 미 CIA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은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 듯(probably true)하다"고 증언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회담 재개는 불가능 주장 (백남순 외무상)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100-120)	동해→동해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KN-02	3발(100-120)	동해 인근 지상→동해
북 외무성, 힐 차관보 초청(미국 거부, 2일)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60)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60)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120-170)	

200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2. 04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베이징)	
02. 16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대북거래 중단 선언	
02. 28		
03. 07	북·미, 위폐 및 불법금융 거래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 (베이징) • 북한: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 제안 • 미국: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거부	
03. 08		
03. 20	미국, 코하스 AG(Kohas AG) 미국 내 자산 동결(북 대량살상무기 지원 혐의)	
03. 25 RSOI/독수리 연습		
03. 31		
05. 01		
05. 31	KEDO,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 대외 발표문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 책임" •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사업 종결, 10년 6개월간 15억 6200만 달러 투입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6. 01		
06. 07		
06. 18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면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06. 19	라이스 미 국무장관, 대북 미사일 모라토리움 준수 촉구	
06. 22	체니 미 부통령, "북한 미사일 외교적 해결"	
06. 26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중국의 관심 북한에 전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북 미사일 문제 협의 위해 방중
06. 27		
06. 29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북한 청문회에서 북이 최대 13개의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	대포동 2호(은하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 (1기)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6기) 시험발사 ※(미 독립기념일, 현지 4일) 새벽 6발 발사, 12시간 후 1발 추가 발사/대포동 2호 7분간 비행 후 공중폭발	7발(대포동 2호, 3,500-4,500), (노동 1호, 1,000-1,300)	함북 무수단→동해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외무성 대변인)			
"미국이 마카오 자금동결을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 (한성렬 주UN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 확대를 통한 압력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강구해 나갈 것" (외무성 대변인)			

200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7. 05		
07. 06		노무현 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과 "미사일 외교적 해결" 전화 통화
07. 07	힐 차관보, 한중·일·러 4개국 긴급 순방	
07. 10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07. 15	**UN 안보리 결의(제1695호) 채택**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규탄,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	
07. 17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회동(워싱턴) • 5자회담 개최 추진 합의
07. 19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쌀·비료지원 중단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8·15 화상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 등 모든 남북 사업 중단 선언
07. 25	미 상원,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통과 (9. 30 하원 통과) •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보유 관련 물품, 서비스 및 기술 등을 북에 이전하거나 북으로부터 구입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을 미 대통령에 부여	
08. 12	힐 차관보, 북 핵실험 가능성 언급	
08. 17	ABC 방송, 북 장비 이동으로 지하 핵실험 의심 보도 • 미: 북이 핵실험 한다면 주변 국가에 위협을 일깨워 주는 것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 없어"
08. 21	부시 미 대통령-후진타오 중 국가주석, 전화로 북 핵실험 중단 촉구	
08. 26		
09. 09	세계 24개 금융 기관, 대북거래 중단 (중국 포함)	
09. 13	미, UN 전 회원국에 초강경 대북제재 조치 동참 공문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 없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최수헌 외무성 부상, UN총회 연설)			
핵실험 계획 발표(외무성, 조선중앙TV) "미국 제재 압력에 자위적 차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 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1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 (외무성 대변인)			

200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9. 14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 합의	
09. 17		
09. 21	버시바우 대사,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고려"	
09. 25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 20여 기 북한에 제공"	
09. 26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 6자회담 복귀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아시아 순방"	
09. 29	천영우-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핵 '포괄적 접근 방안' 협의 (서울)	
10. 03		
10. 06	UN 안보리 의장 성명서 채택, 북 핵실험 계획 발표에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10. 09	한·일 정상회담 (서울), 북 핵실험에 공동 대응	"핵실험은 불장난,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10. 10	버시바우 대사,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해야"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전두환, 김영삼, 김대중)과 북핵 실험 관련 오찬 간담회 • 김대중: 햇볕 정책은 성과, 북·미간 대화가 해법 • 김영삼: 햇볕 정책 폐기
10. 11		
10. 13	부시, '북한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서명	
10. 14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1718호) 채택** 유엔 헌장 제7장을 인용한 최초의 대북제재 조치 • 유엔 헌장 제7장이 규정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규탄하면서,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국제사회가 취할 것을 촉구 •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누구든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 (외무성 대변인)			
김정일, 평양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후진타오 국가주석 특사)에게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북한도 6자회담에 응하겠다" 밝힘.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군민대회 행사 (평양)			
"남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것"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 (외무성 대변인)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더 없이 좋은 일" (외무성 대변인)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			

200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17		
10. 18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18~19)·한(19~20)·중(20~21)·러(21~22)순방	북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금강산 관광객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10. 19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 (서울, 라이스 순방 중) •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할 것" • 라이스 장관, 노무현 대통령 면담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촉구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가동**	
10. 20		
10. 22	홍콩, UN 대북 제재 결의로 북 화물선 '강남 1호' 억류	
10. 24	중 외교부, "김정일은 현재 2차 핵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없지만 외부로부터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25	라이스 장관, "북 6자회담 복귀해도 UN 안보리 제재 유지하기로 한·미·일·중·러 5개국과 합의"	
10. 31	미·북·중, 3자 회동(베이징)에서 6자회담 개최에 합의 • 힐·우다웨이·김계관 3자 회동(베이징), 6자회담 개최 합의 • 라이스 장관, "6자회담 재개 시 5MW 원자로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해체, IAEA 사찰단 활동 등 요구할 것"	
11. 01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호 결의의 이행사항 중 첫 단계로 북 금수 대상 품목 확정	
11. 04		
11. 13		한국, PSI 정식 참여 유보
11. 18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하노이, APEC), "북핵 폐기 압박·유인책 병행" 한·미 정상회담(하노이) 미국 백악관, "북 핵 프로그램 철폐·핵 야망 포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	한국, UN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서 첫 찬성표
11. 20	부시 대통령, 북 핵 포기 시 종전선언 언급	
11. 27	한·미·중·일 4개국 6자회담 대표 연쇄 접촉서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 (베이징)	
11. 28	미·북 수석대표 회담, 접점 못 찾음 (~11.29)	
11. 30	미, 대북 금수 사치품 60여 개 확정	
12. 01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단거리 미사일	1발(100)	동해 인근 지상→동해

200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18	제5차 2단계 6자회담 (베이징) • 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 • 미: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 행동이 필요할 때 • 북: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 제재 해제가 선결 • 중: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 기대 •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 일·북 평양선언 및 공동성명을 위반한 행위 • 러: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	
12. 19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미대사관) •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문제해결	
12. 20	북·미, BDA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	
2007. 01. 16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BDA 문제 합의(베를린, ~01.18)	
01. 30	북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미 대니얼 글레이저(Daniel Glaser)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BDA 회담(베이징, ~01.31)	
02. 08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재개	
02. 12	미, 북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	
02. 13	**2·13합의 (9·19공동성명 이행 초기 조치)** • 60일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 (Phased Implementation) 합의 [1단계, Phase Ⅰ] • 북한, 영변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shutdown) • 미국, 중유지원개시(initial shipment) [2단계, Phase Ⅱ] • 북한,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 테러지원국(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종료 •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me)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체 문제 등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단계(Phase Ⅲ) 과정에서 추후 협의	
03. 06	미 국무부, "고농축우라늄(HEU) 책무기 개발 계획 포함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해야"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뉴욕)	
03. 07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하노이)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BDA 문제 관련)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 (외무성)			
BDA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 실현 시 2·13합의 실현 (외무성)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발(100)	동해→동해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2발(100)	서해→서해
이제선 북 원자력 총국장,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서한 발송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발(100)	동해→동해
계좌로 BDA 동결자금 송금 확인 (외무성)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3발(100)	함남 신상리→동해

200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13	IAEA 사무총장 방북 (~03.14)	
03. 19	힐-대니얼 글레이저,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 발표 (베이징) •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03.22)	
03. 22	BDA 자금 미입금으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귀국, 우다웨이 부부장 휴회 선언	
03. 25 03. 31 RSOI/독수리 연습		
04. 08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아시아 담당 국장 방북 •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논의,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폐기 필요성 언급	
04. 10	미 재무부, 마카오 당국의 BDA 동결자금 해제 지지 성명 발표 마카오 당국,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계좌 소유주들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발표	
04. 13		
05. 15		
05. 25		
06. 07		
06. 16		
06. 19		
06. 21	힐 차관보 방북 (~06.22) 원자로의 빠른 시일 내 폐쇄 언급	
06. 25		
06. 26	IAEA 실무단 방북 (~06.30),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06. 27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중유 5만 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였다" (외무성 대변인)			
북, 불능화 핵시설 대상에 영변 50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거론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외무성)			

200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7. 14		한국 제공 중유, 선봉항 도착 (총 5만톤 중 1차 6,200톤)
07. 15	IAEA, 영변 원자로 폐쇄 확인	
07. 18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베이징, ~07.20)	
08. 02		대북 중유 5만톤 공급 완료
08. 07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판문점, ~08.08)	
08. 16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선양, ~08.17)	
08. 20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모스크바)	
09. 01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제네바, ~09.02)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09. 11	미·중·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09.15)	
09. 18		
09. 23	중, 2차분 대북 중유 5만톤 공급 완료	
09. 28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10.0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0·3합의)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중유 100만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재확인	
10. 02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 ~10.04) • "핵문제 해결 위해 9·19 공동성명, 2·13합의 이행 노력" 명시
10. 03	제6차 6자회담 2단계 합의 내용을 토대로 10·3합의 발표 • 한반도 비핵화 • 미·북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노력 •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선언	
10. 11	북핵 불능화 실무팀(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외 8명) 방북 (~10.18) • 영변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시찰 및 불능화 위한 10여 개 항 합의	
11. 01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이행을 위한 미국 실무팀, 불능화 조치 착수 (~11.05)	
11. 06	루거 미 의원 보좌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협의	
11. 27	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관련 의혹 부인, 로켓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미국 측에 설명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영변 불능화 작업인원 감축 통보			
서해 NLL수역 남북충돌 경고 (해군사령부 대변인) 기존의 핵 불능화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 (외무성 대변인)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40)	서해→서해
“남북대화 및 접촉 중단 선언, 당국 인원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 통보 (대남전통문)			

2008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1. 29	힐 차관보,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해결 필요 언급	
12. 01		
12. 03	힐 차관보 방북 (~12.05),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친서 전달	
12. 19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12.21) •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추진 및 대 시리아 핵확산 의혹 관련사항 신고 문제 논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12. 26		
12. 31		
2008. 01. 29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한(29일), 방중(30일), 방북(31일)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북한에 촉구	
01. 31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 방북, • 김정일,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02. 05	미 맥코넬 국가정보국장 상원정보위에 출석, 북의 HEU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핵확산 활동의 지속 주장	
02. 19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베이징)	
02. 21	김계관 부상-천영우 본부장 양자회동 (베이징)	
0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02. 26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문제 협의차 방중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	
03. 02 (RSOI/독수리 연습)		
03. 07 (RSOI/독수리 연습)		
03. 13 (RSOI/독수리 연습)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제네바, ~03.14) • 힐 차관보, "신고 형식에 유연 대처"	
03. 19		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타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려워"
03. 26		김태영 합참의장 "핵보관 장소 타격' 발언
03. 28		
03. 29		
04. 02		대북전통문, '유감표명 및 긴장조성행위 중단' 촉구
04. 08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싱가포르)	
04. 0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평남 중산군→서해
핵 신고서 제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100)	함흥 인근→동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조평통 대변인)			
'금강산관광 중단 관련 유감 표명, 남측의 사과 및 재발시 대책' 요구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불필요한 남측인원 추방,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 발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8.10부터 금강산지구 남측 인원 추방' 통보 (대남전통문)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 (조선중앙통신)			
'불능화 중단' 발표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고려한다고 경고 (외무성)			

2008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08	미, 50만 톤 식량 제공 공식 발표	
05. 31		
06. 26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06. 27		
07. 06		이명박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 돼 있다."
07. 08		
07. 10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7·12합의) (~07.12) •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 • 핵 포기와 경제지원 위한 시간계획 작성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07. 11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 이행을 북과 협의할 용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07. 12		대북전통문, '금강산관광 잠정 중단' 통보 (북한 접수 거부)
07. 23	6자 외교장관회담 (싱가포르)	
08. 03		
08. 09		
08. 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중국 선양, ~08.13)	
08. 14	성 김 미 대북특사 방중	
08. 15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북핵 검증 회동 (뉴욕)	
08. 18		
08. 22	북·미, 북핵 검증체계 관련 회동 (뉴욕) • 미,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 제시	
08. 25	한·중 정상회담 (서울),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 촉진	
08. 26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의 로켓 엔진 연소 시험			
핵시설의 불능화 중단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공식 발표(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 봉인 제거 요청			
IAEA에 영변 핵시설의 봉인 해제 및 감시장비 제거, 일주일 내 재가동 통보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집중 제기			
	KN-01 개량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또는 공대함 단거리 미사일 추정 시험발사	2발(160)	서해→서해
IAEA 검증단 핵시설 접근 허용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연료봉 제거)			
'남북관계 전면 차단' 경고 (노동신문 논평원)			
시료채취 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외무성)			
시료채취는 불능화 이후 논의. "무력화 (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 (조선신보)			

2008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9. 05	6자회담 참가국(한·미·일·중) 수석대표 회동 (베이징)	
09. 15		
09. 19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협의 (판문점)	
09. 22		
09. 24		
10. 01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북 (~10.03)	
10. 0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대통령 비방 중지, 남북당국간 전면적 대화재개, 금강산 피격사건 해결, 개성공단 통행 불평 해소 등 제기
10. 07		
10. 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10. 13		
10. 15	프랭크 자누지(Zanuzi)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북핵 폐기 예산으로 3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워싱턴)	
10. 16		
11. 07	리근 미국국장, 북핵 검증, 핵불능화, 에너지 지원 문제 협의 (뉴욕) • 미·북 간 샘플링 문제 협의 • 힐,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	
11. 12		
11. 15		
11. 18	미 식량 50만 톤 중 5차분 북 남포항 도착	
11. 25	미 국무부, 6자회담 틀 안에서 시료채취 명문화 노력	
12. 04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양자 회동하였으나 시료채취 문제로 견해차" (싱가포르, ~12.05)	
12. 08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베이징, ~12.08)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외무성 대변인)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 한다" 발표 (조평통 성명)			
'정치·군사 합의 무효'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인민군 대변인 기자회견, '핵군축' 주장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2009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09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북 핵보유국 표기 • 북,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10일) • 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 • 미 합동군사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일) • 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 (12일)	
12. 12	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 외무차관, "동의한 적이 없다"(13일) • 호주·뉴질랜드 대북중유지원 잠정 보류(17일)	
2009. 01. 08	미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항 도착(총 50만 톤 중 옥수수 2만 1천 톤)	
01. 13		
01. 15	미 대북 지원식량 7차분 '옥수수와 콩 혼합물'과 식용유 등 4천 940톤 선적 완료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방북(~01.19), 미사용연료봉 처리 문제 논의
01. 16		
01. 17		
01. 20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01. 30		통일부 대변인, '유감표명, NLL 도발 시 강력대응' 경고
02. 02		
02. 05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북한의 2006년 핵실험을 '핵무기 폭발'로 표현	
02. 13	힐러리 장관 아시아 순방 전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뉴욕) "북한이 진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	
02. 19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모스크바, ~02.20)	
02. 24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민항기 안전 미담보' 위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군 통신선 차단' 위협 (총참모부 성명)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다음 4 항목의 경고 메시지 공표 •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 • 우리의 평화적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임. • 당면하여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개방되어 있는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군통신도 차단할 것임.			
'국제우주조약 가입' 발표 (조선중앙통신 보도)			
미국 여기자 2명 억류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행위를 이유로 6자회담의 존재 기초 부정 설명 (외무성 담화)			
'PSI 참여시 단호 대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억류			
'고도의 전투태세 갖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조선중앙통신사)	은하2호(로켓)에 광명성 2호(위성) 탑재) 시험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량 발사 (은하2호에 탑재)	1발 (6,700-10,000) *1단 280㎞ 2단 2,300㎞ *국제사회는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	함북 무수단
6자회담 불참,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 (외무성 성명)			
"PSI는 선전포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할 것을 경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대북 적대하는 미국과는 대화 무용 입장 발표 (외무성)			

2009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05	키리졸브		
03. 09			
03. 12			
03. 17			
03. 20			
03. 24			
03. 30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억류
04. 02		한·미 정상회담 (영국 G20회의)	
04. 05			정부 성명,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 발사 강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 및 관련국과 협의 하에 구체적 대응조치' 발표
04. 14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	
04. 18			
04. 19			한,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04. 24		IAEA 사무총장, 북한 핵보유 인정	
04. 25			
04. 29			
05. 08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2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자위적 핵억제력 백방 강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사회주의 수호" (조선중앙통신)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무수단리 12:08 1발, 원산 17:03 2발)	3발(130)	원산 인근→동해 함북 무수단→동해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2발(130)	함흥 신상리→동해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북남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조평통 성명)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 (외무성 담화)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1발	함북 무수단→동해
유엔 대북 결의안(제1874호) 채택에 대해 대응조치 선언 (외무성 성명) 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었다. ②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③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4발(100)	함흥 신상리→동해
	스커드(화성 7호) 5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1호) 2발 발사	7발(300-450) (노동 1호, 1,000-1,300)	강원 깃대령→동해

2009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25		정부 성명,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명백한 위반, NPT체제 복귀 촉구'
05. 26		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05. 27		
05. 29		
05. 30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06. 02	ASEAN 10개국 정상 공동 언론성명 채택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최초의 공동성명	
06. 12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제1874호) 채택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 • 화물 검색, 금융·경제제재 등 강화, 무기 수출 금지 등의 조치 명시	
06. 13		
06. 19	미 재무부, 미 금융기관에 북 불법 금융거래 경계 조치	
07. 02		
07. 04		
07. 06	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의장 구두성명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6자회담 영원회 없다' 발언 (카이로 비동맹회의)			
'미국과의 대화 반대 안해' (신선호 주유엔 대사)			
'북·미 양자대화 제의' 발표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훈련에 무자비한 보복' 위협 (판문점대표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08.19)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와 다자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18일)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 안보리 의장에 편지,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 (박길연 외무성 부상 UN 총회 기조연설, 현지 28일)			
"남조선 고위당국자의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 제안이 '비핵·개방·3000'의 답습으로 백해무익하다" (조선중앙통신)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5일)			

2009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7. 16	UN 안보리, 제1874호 관련 제재대상 확정 • 기업/기관 5, 개인 5, 물자 2	
07. 23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서 "우리는 절반의 조치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이 마련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외에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며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협의해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것" '비가역적 조치의 기준'은 9·19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	
07. 25		
07. 27		
07. 29	미 국무부 대변인,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대화'	
08. 04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평양 방문	
08. 05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여기자 2명 함께 귀국	
08. 10		현정은 현대아산회장 평양 방문
08. 13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추방형식으로 석방
08. 15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한반도 신평화구상' 발표
08. 16		
08. 17		
09. 04		
09. 21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09. 26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발언
09. 29		
09. 30		
10. 04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120-170)	무수단-원산 사이→동해
"미북 평화협정 체결만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도" (노동신문)			
"8,000대의 폐연료봉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 (조선중앙통신)			
한국의 작전계획 5029 완성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며 노골적인 도발" (민주조선)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북-미)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신문)			
"북미간 최대 현안은 평화체제 수립" (조선신보)			

2009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12		
10. 14		
10. 23	리근 미국국장 방미 (뉴욕, ~11.03) 리근 미국국장-성 김 북핵특사 비공식 회동(24일)	
10. 30	월터 샤프(Walter L. Sharp)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	
11. 01		정부 고위 관계자, 작전계획 5029에서 북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
11. 03		외교부 대변인, '유엔결의 명백한 위반'
11. 08		
11. 10		대청해전
11. 11	미 국무부, 보즈워스 방북 발표(현지 10일)	청와대, '대청해전으로 남북관계 악화 원치 않아'
11. 12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11월 17~1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만나 남북정상회담 논의(NHK)
11. 19	한·미 정상회담 (서울) • 이명박 대통령 - 두 정상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 오바마 대통령 -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 일치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 시작할 것 -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통합될 수 있게 도움	
11. 20	미 핵과학자회보, 북한 핵보유국 인정	
11. 23	미 국무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에 (평화협정과 같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	
12. 0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이 중심이 돼 6자회담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인식을 이룩했다” (외무성 대변인)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제의 (외무성 성명)			
“모든 제재는 해제해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6자회담과 병행하여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 가능” (신선호 주유엔 대사)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 요구 (대남전통문)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 것" (노동신문 논설)			
서해 항행금지구역 선포(01.05~03.29)			
‘서해상 포사격 훈련 계속 될 것’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NLL 해상 포사격 실시		
	NLL 해상 포사격 실시		

2010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08	보즈워스 특별대표 일행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회동(9일)	
12. 10	보즈워스 특별대표,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919 공동성명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 (서울 기자회견)	
12. 11	국제 핵물질 위원회(IPFM) '2009 국제핵물질보고서',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1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2차 핵실험에는 플루토늄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16	보즈워스 특별대표 방북결과 브리핑(미 국무부), "6자회담 재개 시 비핵화와 연관된 모든 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진전, 평화협정,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 공급,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것 /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자는 4개국(한,북,미,중)임을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동의 / 비핵화 논의 재개 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의제"	
12. 17	시진핑 국가부주석 이명박 대통령 예방(청와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	
2010. 01. 11		
01. 12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 광범위한 다른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별도의 평화체제 협상 가능"
01. 13	오바마 대통령, "북한이 핵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만 관계개선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월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강화된 안보조치를 계속 취할 것"	
01. 14		
01. 19		
01. 20		국방부 장관, "핵공격 징후 식별시 선제타격" 발언
01. 26		해군본부 대변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조성행위 즉각 중단 촉구, 북한한계선 확고한 수호의지'
01. 27		대북전통문, '불필요한 긴장조성행위 중단' 촉구
01. 28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NLL 해상 포사격 실시		
항행금지구역 5곳 추가 선포(01.31~02.02)			
백령도, 대청도 해상 2곳 해상사격구역 설정			
동·서해상 5곳 해상사격구역 추가 설정 (02.06~02.28)			
동·서해상 항행금지 및 사격구역 설정(02.20~02.22)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비난, 필요시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 총동원			
남측이 금강산·개성관광 막으면 모든 사업·계약 합의 파기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 성명)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비난 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			
'3.25부터 금강산 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 통보, "4월말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작"'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금강산 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 시작			
'부동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정부소유 금강산 면회소 및 소방서 건물 동결'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지구 부동산 동결 조치 실행			
'천안함 북한과 관련 없는 남한 자작극' (조선중앙통신)			
〈외무성 비망록〉 (1)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건은 평화협정 (2) 한반도 및 세계 비핵화 때까지 핵억제력 보유 (3) 핵보유국과 음모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금지 (4) 국제적 비확산 및 비핵화에 타 핵보유국과 동등한 지위 참여			
"우리 영토, 영공을 0.001㎜라도 침범한다면 핵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 버릴 것"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금강산지구 부동산 동결 조치			
김정일, 중국 방문 (~05.07)			

2010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1. 29			
01. 31			
02. 03			
02. 04			
02. 18			
02. 20			대북전통문, '항행금지 및 사격구역 설정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 무시한 도발행위'
02. 25			
03. 04			
03. 08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03. 17			
03. 18			
03. 25			
03. 26			
03. 31			천안함 피격사건
04. 06			
04. 11		핵안보 정상회의 (~04.12)	이명박 대통령,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04.1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 소극적 안전보장에서 북한 제외	
04. 13			
04. 17			
04. 21			
04. 22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	
04. 23			
04. 27			
05. 03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고발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주장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남북관계 전면 폐쇄,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심리전 수단 설치시 직접조준격파사격' (전선중부지구사령관 공개경고)			
남북관계 전면 단절 8개항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 검토에 착수, 대북심리전에 무자비한 대응,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합의 무효화, 국제해상상선망 중단, 해상분계선 침범시 즉각 물리적 타격, 함선·비행기.기타 기동 수단들의 영해·영공·영토 통과 전면 불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유엔 안보리 회부 관련 무자비안 대응조치 취할 것" (국방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심리전 재개는 직접적인 선전포고,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지비한 군사적 타격할 것'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고)			
'제재에 무자비한 타격' 주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010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19		
05. 20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05. 21		
05. 24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 • 해상항로 폐쇄, 남북교류협력 중단, 무력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유엔 안보리 회부, 사과 및 관련자 처벌 요구 국방부 장관, 대북조치 발표 • 대북심리전 재개,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 차단, 한미연합 대잠훈련 실시, PSI 관련 역내외 해상 차단훈련 준비 한국 정부, 5·24 조치 실행 •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05. 25		국방부 장관, '북한이 심리전 장비 공격시 자위권 발동'
05. 26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북한 지도자들에 천안함 책임 물을 것"	
05. 27		
06. 02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6. 04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유엔 안보리 회부
06. 09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설치 완료
06. 11		
06. 12		
06. 19		
11. 09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방북, 영변 핵단지 내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보고서 발행 (~11.13) • "우라늄 농축시설이 설치된 속도를 보면 북한이 파키스탄 및 이란과 협력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 핵확산의 위협도 더욱 커진 셈"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노동신문)			
"조선 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외무성 대변인)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 및 제2차 북·미 대화 제안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 리용호 외무성 부상)			

2011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1. 23		연평도 포격사건
11. 30		
12. 29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북한이 공개한 약 2천대의 원심분리기를 활용한 우라늄 농축을 고농축 우라늄(HEU) 형의 원폭 제조에 특화할 경우 연간 1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2011. 01. 18	미·중 정상회담 및 '미·중 공동성명' 발표 (01.19) 후진타오 중 주석 방미,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01.21) •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촉구"	
02. 28 카리졸브		
03. 10		
03. 15		
03. 31	토머스 도닐런(Thomas Donilo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북한은 먼저 한국과 만나 군사적 도발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한 뒤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지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04. 25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방북 (~04.28)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회담,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비공개	
06. 21	에드워드 워너(Edward Warner) 미 국방부 핵정책특보, "현재 미국은 전략 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핵 억제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07. 07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 "북한, 1998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기술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달러(32억원)와 보석 등 뇌물 전달"	
07. 28	뉴욕 북·미 고위급 대화 • 미,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 등 요구 • 이에 대해 대북제재 임시중지, 식량제공(미국이 3년 전 공약했던 50만 톤 중에서 미달된 33만 톤) 제시	
09. 20		
09. 21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베이징) • 한, 북측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실험 중지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동의 요구 • 북,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 고수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한·미 정부가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 사실상 거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김정일 사망			
	KN-06 (번개-5호), 지대공 유도미사일	3발(150)	동해 인근→동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 발표 (조선중앙통신)			
"단언하건대 우리의 위성 발사는 북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조선중앙통신)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2발(160)	동해 인근→동해

2012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13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D.C.) •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증대 • 한·미 동맹의 실효성 강화 및 즉각 대응능력 보강 • 대비 태세 강화	
	10. 24		북·미 2차 고위급 대화(스위스 제네바) (~10.26)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실험 중지 등 비핵화 선행조치 및 6자 회담 재개 등 협의	
	11. 02		영국 민간 연구기관 '영-미 안보정보협의회'(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 BASIC), "북한을 9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정의, 최소 6기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11. 28		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간 핵 협력 가능성은 높다"	
	11. 30			
	12. 03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북한,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기술 제공"	
	12. 17			
2012.	01. 11			
	02. 27	키리졸브		
	02. 29	키리졸브	[2·29합의]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 동시 발표 (평양, 워싱턴)** • 9·19 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 • 신뢰조성조치 합의 • 대북 적대정책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 • 민간교류 확대 합의	
	03. 09	키리졸브		
	03. 16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는 2월 핵 모라토리엄 발표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식량을 지원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	
	03. 19			이명박 대통령, 북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장거리 핵무기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대 도발 행위로 규정
	03. 26		핵안보 정상회의 (서울, ~03.27)	
	03. 29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북한 제4차 당대표회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광명성 3호 로켓 발사가 오전 7시 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됐으나 "구관측 위성의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보도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은하3호에 탑재) ※ 1~2분 비행 중 공중폭발, 20여개로 분리되어 평택·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낙하	1발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남쪽
"첫째,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전면 배격, 둘째,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 셋째, 2.29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외무성 성명)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 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 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 (외무성 대변인)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다' (헌법 서문)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발(80-90)	평남 인근→서해
"광명성 3호-2호기 위성 12.1~22. 발사" 발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2012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4. 07	미국 정부 관계자, 괌 공군기편으로 비밀리 방북 (방북자: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담당보좌관, 조지프 디트라니(Joseph Detrani) 국가정보국장실 북한담당관)	
0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04. 13		
04. 16	미·중,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의장성명 합의 UN 안보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04. 17		
05. 04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북에 핵 실험 자제 촉구 공동성명(오스트리아 빈)	
05. 13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 (베이징) • 북한 핵실험 도발 강행에 대한 저지 합의	
05. 23		
05. 30		
07. 30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은 접견 (~08.03)	
08. 18	미 고위급 관료, 비밀리에 방북 (~08.20)	
09. 27		
09. 29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북한이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전면 이행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며,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	
10. 08	한·미 당국, 탄도미사일 협상 타결 •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800㎞로 연장 합의,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기존 500kg 제한 유지	
11. 0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 성명 채택	
12. 01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광명성 3호-2호기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발사시기 조절문제 신중히 검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문답)			
"위성발사 예정일을 12.29까지 연장", "1단계 로켓 기술 결함 발견"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문답)			
	광명성 3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은하3호에 탑재) (09:49) ※ 정상궤도 진입	1발 * 1단 429㎞ 2단 2,600㎞ * 첫 위성궤도 진입 성공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남쪽
"09:59 궤도 진입, 김정일 유훈 관철"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성발사장 방문 보도			
최춘식 등 과학자·기술자 100여 명 공화국 영웅 칭호 부여			
"대화와 대결 중 선택" (국방위원회 담화)			
"핵억제력 포함 물리적 대응" (외무성 성명)			
"전면 대결전에 진입, 높은 수준의 핵실험 할 것" (국방위원회 성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 선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KN-02(추정) 단거리미사일 발사	수발	동해 인근 지상→동해
"이번 핵시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 다종화된 핵억제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 (조선중앙통신 보도)	**3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201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04	한·미·일 고위급 회담 (워싱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대응 논의	
12. 06		한·미, 대북정보감시태세(워치콘) 3단계→2단계 상향 조정
12. 08		
12. 10		
12. 12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 정부 성명 발표 • 국회 국방위원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12. 12		
12. 14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12. 22		
2013. 01. 02		
01. 22	**UN 안보리,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제2087호)** • 기관 6개, 개인 4명 추가 • 2006년의 제1718호, 2009년의 제1874호에 이은 세 번째 안보리 대북제재로 이전의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범위 확대, 제재 강도 강화. 북한의 추가도발 시 중대 조치 표명	
01. 23		
01. 24	러시아 외무차관, "안보리 결의 북한 반응 유감" 표명	정부 성명, "북 핵실험 성명 대단히 유감"
01. 25		
02. 04 **한미연합**		
02. 06 **해상훈련**	중국 외교부 부부장 "한반도 핵무기 출현 반대" 의사 표명	
02. 10		
02. 12		NSC 긴급회의 소집, 북 3차 핵실험 규탄 정부 성명
02. 14	50개국·5개 국제기구 규탄성명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5개 지역·국제기구 규탄 성명 미국 상원, '북 핵확산 금지법안' 발의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3 (스커드 B, 화성-5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300)	
	KN-03 (스커드 B, 화성-5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300)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 활동 전면 중지' 발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김영철 대장)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외무성 성명)			
UN결의안에 대해 반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 공식 선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핵보유국, 위성 발사국 지위 영구화" (외무성 성명)			
"무자비한 보복 행동뿐" (인민무력부 담화)			
"정전협정, 어느 일방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백지화" (외무성 대변인 문답)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120-170)	동해 인근 지상
김정은, 초정밀 무인타격기 훈련 지도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최고사령부 성명) "조선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유엔안보리에 공개 통고" (외무성 성명)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남북한 군 통신선 단절 통보			
김정은, 전략로케트군 작전회의 긴급소집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아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조선중앙통신)			

201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2. 19	한미연합 대잠훈련		
02. 22		푸틴 러시아 총리, 북한 3차 핵실험 "국제법 위반" 비난	
02. 23		UN 사무부총장 "북핵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해야" 기자회견	
02. 24			
02. 25		러 외무, "6자회담 재개가 유일한 북핵 해법"	박근혜 대통령 취임
02. 26		미국 상원서 '북한 핵확산 금지법안' 통과	
02. 27			
03. 03			
03. 05		중국 정부 정례 브리핑, UN 안보리의 합당한 조선 제재 방안 지지 보내	
03. 06			군, "북 도발 시 지휘세력까지 응징"
03. 07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094호) 채택** • 기존보다 더 확대된 금수조치 및 금융제재 • 북한 외교관들의 위법, 이상행위 감시 강화	
03. 08			정부 성명, "긴장 조성 행위 매우 유감"
03. 09			
03. 11	키리졸브 /독수리	미국, 북한의 '정전협정파기' 발언 반박…'새 제재안' 발표	
03. 13			
03. 14			
03. 15		미국, 북한 미사일 대비 요격미사일 추가배치	
03. 21		미 하원, 북한 규탄 결의안 발의	
03. 20			민간 전산망 마비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03. 26		일본·호주,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	
03. 27			정부 성명, "북의 군 통신선 차단 철회 요구"
03. 29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정부·정단 단체 특별성명) "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업지구 차단·폐쇄될 것"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화)			
당 중앙위원회,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자위적인 핵 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 채택** (1) 핵무기는 미국 핵위협에 대하 정당방위 수단 (2) 핵무력은 세계 비핵화 실현 때까지 침략과 공격 억제, 섬멸적 보복타격 복무 (3)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 질량적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 강구 (4) 핵무기는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 (5) 적대국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침략 및 공격행위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및 위협 안함. (6)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 안전성 보장 규정 엄격히 준수 (7) 핵무기 기술, 핵물질 비법적 누출하지 않을 것 (8)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 (9) 핵군비경쟁 반대, 핵군축 국제적 노력 적극 지지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조치 (원자력총국 대변인)			
개성공단 출경 차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지속적으로 가증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 첨단핵타격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개성공단지구 관련 중대조치 발표 (김양건) ① 우리(북) 종업원들 전부 철수 ② 개성공업지구사업 잠정중단 및 존폐여부 검토			
"남조선 내 외국기관·기업·외국인 사전대피 소개대책 세워야" (아시아태평화위원회 담화)			
"3.20 해킹 공격 부인, 반미 대결 소동" (총참모부 대변인 문답)			

201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30		국방부 장관, "북 도발 시 미 본토 전력까지 동원해 제압"
03. 31		
04. 01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북한, 위협으론 대화 안돼..기회 있다" 입장 표명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시 "북 도발 시 정치적 고려 없이 강력 대응"
04. 02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긴급 소집 •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을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04. 03		
04. 04		
04. 07	일본,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 발령	
04. 08		정부 성명, "북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유감, 북한 책임져야"
04. 09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긴장 고조 행위 반대"	
04. 11	G8 외무장관 회담 공동성명 "북한 미사일 발사시 추가 제재"	통일부 장관 성명, "북 도발 위협 매우 유감,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 통해 해결"
04. 12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적대행위 지속 시 남북대화 없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도발행위 중지, 전면 사죄할 것"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남쪽 태도 여하에 따라 먼저 최종적·결정적 중대조치를 취하게 될 것"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개성공업지구 완전 폐쇄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먼저 적대핵위 중지해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한·미연합훈련 관련 '서해 불바다' 위협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로케트 발사훈련은 정상적 군사훈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100)	강원 원산→동해
	300mm 방사포 또는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120-170)	강원 원산→동해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120-170)	강원 원산→동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05.28) "대화와 협상 재개 희망"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전쟁억지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생각은 없다" (노동신문)			

201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4. 18			제37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한미 합참의장 "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04. 25			정부,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회담 제의 •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중조치 취할 것"
04. 26			
04. 27			
04. 30			
05. 05			
05. 06			
05. 07	한미연합 대잠훈련 /서해		
05. 08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확인 (워싱턴 D.C.) • 북핵불용 매시지 및 대화를 통한 북의 태도 변화 촉구	
05. 10		중국 4대 국유 은행, 대북 송금 업무 중단	
05. 13	한미연합 대잠훈련 /동해		
05. 14			
05. 18			
05. 19		반기문 UN 사무총장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 우려 표명	
05. 20			
05. 22			
05. 28		미국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북한, 9·19 비핵화 공동성명 이행해야"	
05. 31		미 국무부 '2012년 국가별 테러보고서' • 북한, 5년 연속 미국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 •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지정 국가: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4개국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남북당국회단 대표단 파견 보류 통보 남측 수석대표 급(級)에 대해 문제 제기			
	300㎜ 방사포	4발	강원 원산→동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의			
이산가족·금강산관광 회담 모두 보류 통보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			
개성공단 실무회담 북 대표 기자실 난입, “개성공단 파탄나면 군 주둔지 복원할 것”			

201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6. 07	미·중 정상회담 (캘리포니아, ~06.08) • 북핵: 북한 비핵화 및 핵보유국 불용 합의, 미중 공조 체제 확인, 6자 회담에는 유보적인 입장, 북한에 비핵화 선행조치 요구	
06. 09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 "남북당국회담(서울, 06.12~13) 개최 합의"
06. 11		
06. 17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06.18) •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	
06. 25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 정당, 언론사 해킹 발생
06. 26		
06. 27	박근혜 대통령 방중, 한·중 정상회담 (베이징)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	
07. 10		정부, 이산가족 상봉 회담 수용,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은 보류
07. 11		
07. 16		정부, 6.25 사이버 공격 북한 소행 발표
07. 25	중국 국가 부주석 리위안차오, 김정은 만나 "한반도 비핵화" 강조	
08. 10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UFG 연습 북측에 통보	
08. 11	파나마 정부, 북한 선박 청천강호 수색결과 발표 • 1950년대 구 소련산 미그 21 전투기 2대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로켓 추진식 수류탄 등 미사일 발사 장비 발견	
08. 14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08. 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축사,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및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UFG 연습 비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UFG 연습 비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국 대통령 실명 비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한미동맹, 맞춤형 억제전략" 비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비난 (총참모부 담화)			
"조선반도 비핵화는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 "외부의 핵위협이 가증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외무성 대변인)			
"우리의 핵 억제력은 그 무엇과 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결코 아니다" (노동신문)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 (노동신문)			

2013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8. 19	UFG 연습		
08. 20			
08. 2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9.25~30 이산가족 상봉 합의
08. 27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회담	
08. 29			
09. 16			개성공단 재가동
09. 23		중, 대북 수출 금지 품목 공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기술 및 생화학무기 생산가능품목	
10. 02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서울) • '맞춤형 억제전략' 승인 등 13개항 공동성명 발표
10. 03		〈38노스〉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MWe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더 많은 증거 발견	
10. 04			
10. 07			
10. 08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남해, ~10.10)	국가정보원, 지난 8월 5MWe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하고,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 실시 확인
10. 10			
10. 14			통일부, 북의 핵시설 영변 원자로 2기와 원자력 발전소 3기 등 15개이며 대부분이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0. 23			
10. 28		미·중 6자회담 대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타진	
10. 30			
11. 04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11.08)	
11. 11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외무성)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 (노동신문)			
적십자 실무회담 거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비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 (국방위원회) • 상호 비방중상 금지,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 제안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국방위원회)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제의 • "설 지난 후 남측이 편리한 시기에 정하면 될 것"			
"우리는 6자회담 재개 지지"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1. 22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관심이 없다"	
11. 25		
12. 03		
12. 05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늘려 주장	
2014. 01. 06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핵 문제 및 '통일대박론' 언급 정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 제의
01. 09		
01. 15		
01. 16		정부 입장,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로 남북관계 첫 단추를 채워야"
01. 24		
01. 27	글린 데이비스와 우다웨이, 미·중 수석대표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 협의	
01. 29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우리는 북한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길 희망한다"	
02. 08		
02. 09		유엔사령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훈련계획 북측에 통보
02. 12		남북 고위급 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02. 14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등 합의
02. 17	류전민 중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 대표단 방북 (~02.20), 박의춘 외무상 만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 문제에 대한 대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해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중국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 (외무성)	KN-09 단거리 발사체 (신형 대구경 방사포)	4발	강원 원산→동해
	스커드-B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200)	강원 깃대령→동북 방향 해상
	스커드-C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500)	강원 원산 송전리→동북 방향
	300㎜ 대구경 신형 방사포(KN-09) 4발 240㎜ 구형 방사포 3발	7발(300mm 방사포 155, 240mm 방사포 50)	법동/호도반도 →동북 방향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우리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단위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케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넘게 되면 우리 방어형로케트들의 훈련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력한 공격형로케트 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전략군 대변인 담화)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 거부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우리의 핵억제력은...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 (국방위원회 성명)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2. 20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북한과 북중 양자관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문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 공동의 의무"라고 언급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금강산, ~02.25)
02. 21			
02. 24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02.25		"미·러 북핵 대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 • 러시아 외무부, "양측이 한반도 정세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02.26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02. 27		미국 국무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03. 03			
03. 04			
03. 05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MDA) 북한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계획 강화 표명(기자회견)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지 검토 요청	정부, 북한에 '12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03. 06			
03. 07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방북	정부, 적십자 실무접촉 호응촉구 통지문 발송
03. 14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전술미사일(비유도) 추정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70)	원산 갈마반도 →동해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 (노동신문)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전술미사일(비유도) 추정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김정은 직접 참관	30발(70)	원산 일대→동해
	소련제 프로그 지대지 전술미사일(비유도) 추정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16발(60)	원산 일대→동해
북한 6자회담 차석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중국 베이징 방문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 천안함 폭침 부인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 서부지역에서 내륙관통, 동부지역으로 최초 발사	2발(650)	평북 숙천→동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외무성 성명)			
서해 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및 사격	해안포-방사포 (일부 포탄 NLL 이남 탄착) * 2010.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NLL 이남 최초 탄착	500여발 (100여 발 NLL 이남 탄착)	서해 NLL 인근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을 할 것" (리동일 UN 주재 차석 대사)			
한국 500㎞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국방과학원 성명) "우리의 강위력한 미사일무력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억제력으로서 그 주되는 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미국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이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위력과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			
한국 500㎞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16		
03. 17	중,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 •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03. 22		
03. 23		
03.25		
03. 26	핵안보 정상회의 (헤이그) • 한·미·일 정상회담 일본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엄중 항의	
03. 28	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드레스덴 선언)
03. 30		
03. 31		일부 포탄 NLL 남쪽 남측 수역에 떨어져 우리 군 대응사역
04. 04		군,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발표
04. 07		
04. 11	한·중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베이징에서 양자회동 통해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협의	
04. 18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정은, 인민군 창건 82주년을 즈음하여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 •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 (외무성 담화)			
"핵실험 연례행사" 위협 (유엔주재 차석대사)			
무인기 북한 소행설 부인 (국방위원회 검열단 담화)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 발언 비난 (국방위원회 중대보도 및 조평통 대변인 성명)			
리용호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방중	경비정·단속정 서해 NLL 침범		
우리 측 경고사격 관련 보보 위협 (서남전선사령부 공개보도)			
	서해상 우리 측 함정에 포격도발		
포격도발 부인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공식 발표			
김관진 국방부장관 비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고집한다면 북미 핵 대결의 최후 승리는 정의의 핵을 틀어쥔 조선에 있다는 역사의 이치가 미국의 종말로 증명될 것" (조선중앙통신)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4. 25	한·미 정상회담 (서울, ~04.26)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협의: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을 고려해 10월 경,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 •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 공감 •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 재확인 〈38노스〉 북 4차 핵실험 우라늄원료 사용 가능성 제기	
04. 27		
04. 29		
05. 08		국방부, 소형무인기 북한 소행 발표
05. 10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05. 11		
05. 12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 비난
05. 13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국과 모든 종류의 북한 비상사태 논의중"이라고 밝힘.	
05. 14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 북핵 우려 표명	
05. 20	시진핑-푸틴, 양국관계 격상 합의…북핵 우려 표명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실시
05. 21		
05. 22		장성급군사회담 대표 명의 경고 전통문 발송
05. 23	북한 리용호 6자회담 수석대표, 몽골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 관료출신 전문가와 접촉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 국방부, 북한 포격도발 비난 성명 발표
05. 26	북·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대북제재 일부해제를 골자로 한 스톡홀롬 합의(~05.28)	
05. 29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 돈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 만장일치로 가결, 대북제재 강화 내용 법안 통과	
06. 04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6. 05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노동신문)			
김정은,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지도 (조선중앙통신)	KN-09 단거리 발사체 (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3발(190)	원산 호도반도 일대→동해
김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500)	원산 일대→동해
	KN-09 단거리 발사체 (300mm 신형 방사포) 추정	2발(180)	원산 북쪽→동북
"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훈련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유발시킨 정의로운 자위권행사...자위적억제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해나가게 될 것" (전략군 대변인, 인민군신문사 기자 질문에 대답)			
국방위원회 특별제안 "남북 간 모든 합의 이행, 비방중상 중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北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정부성명' 발표			
北 "정부성명에 온 겨레가 화답해야"…南 호응 촉구			
김정은,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발사훈련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500)	황남 평산→동해 (공군기지 부근)
"미국 항공모함 남조선 입항이 남북관계 개선훼방" (국방위원장)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500)	개성 북쪽→동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수단" (강석주 노동당 비서)	240㎜, 122㎜ 방사포 및 해안포	150여 발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부근→동해
"전술로케트발사를 비롯하여 우리 군대가 취하는 모든 군사적조치들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 (외무성 성명)			
"우리 전술로케트발사나 포사격을 비롯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땅에서 우리 군대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정정당당한 군사행동이며 자위력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이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김정은, 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 발사훈련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500)	황남 장산곶→동해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6. 16			
06. 26			
06. 29			
07. 02			
07. 03		한·중 정상회담 (서울) •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 천명 •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 재확인	
07. 07			
07.08			
07. 09			
07. 12			
07. 13		아베 일본 총리, "미사일 발사, 북·일 합의에 영향 없어"	
07. 14		미 정부, 북한 무력시위에 "도발로는 안전보장 못받아"	국방부 성명, "NLL 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가차 없이 응징"
07. 16	한미연합 연습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아베 방북하면 한·미·일 연대 흔들려"	
07. 17		UN 안보리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국제민간항공기구, 미사일 발사 항의서한 북한에 전달	남북 인천 아시안게임 실무접촉 회담 개최, 합의 없이 결렬
07. 19			
07. 21			
07. 26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만약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수단을 가지고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든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 미제의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 (황병서 총정치국장)			
	KN-16, 단거리 발사체 (300㎜ 신형 방사포 추정)	4발(130-210)	평북 묘향산 일대→동해
"을지포커스가디언연습 강행 시 청와대, 백악관 타격 목표 될 것"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김정은, 전술로케트탄 시험발사 지도 (조선중앙통신)	KN-16, 단거리 발사체 (300㎜ 신형 방사포 추정)	5발(220)	원산 일대→동해
UFG 연습 비난 (총참모부 성명)			
UFG 연습 비난 (외무성 담화)			
UFG 연습 비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220)	자강도 용림→동해
	KN-04 (스커드-C, 화성-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210)	원산 일대→동북방 동해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비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비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경비정 1척 NLL 침범, 대응사격 도발		
	경기 연천 일대 민간인 풍선에 조준사격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7. 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한 미사일 우려 의장성명 채택	
07. 30			
07. 31			
08. 11			정부,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제의
08. 14			
08. 17			
08. 18	UFG 연습		
08. 20	UFG 연습		
08. 27	UFG 연습	미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면서 SLBM을 전력화하기 위한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천톤급 이상의 잠수함 개발가능성 언급	
09. 01			
09. 05		IAEA, 영변 핵시설에 관한 연례보고서,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흑연 원자로의 가동을 보여주는 수증기와 냉각수의 배출 확인	
09. 06			
09. 24			대통령, 제69차 UN총회 기조연설 • 북한 핵·인권문제 제기
09. 26		제58차 IAEA총회 '북핵결의안' 채택 • 북한의 모든 핵활동 규탄 및 중단 촉구(162개국 만장일치)	
09. 27		섀무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 "북, 미국 본토위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 수순"	
10. 04			북한 고위급대표단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위원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10. 07		미 국무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간 상호사격 사태 관련, 북한에 긴장고조 행위 중단 촉구	군, 경고방송 및 대응사격 실시
10. 10			군, 북한 민간인 풍선 조준사격에 기관총 대응사격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고위급 접촉과 전단 살포 중지 양자택일”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 전통문)			
최룡해 당 비서 러시아 방문(11.17~24), 푸틴 대통령 면담, 김정은 친서 전달			
(UN 북한인권 결의안 비난)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억제력 무제한 강화할 것”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비난하면서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 (국방위원회 성명)			
“인권 압력으로 비핵화 파탄, 미국 책임져야” (조선중앙통신)			

2014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21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6자회담 재개 가능"	
10. 24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갖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워싱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10. 29	한·중, 북한 핵개발·핵보유 '불용' 재확인 •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베이징 회담	
11. 08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방북 • 오바마, 김정은에 친서 전달 • 북한억류자 케네스 배, 토트밀러 석방	
11. 10	APEC 정상회담 (베이징, ~11.11) • 오바마 "억류자 석방은 작은 제스처…북,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한·중 정상회담, "북핵포기 전략적 선택하도록 노력 강화"	
11. 12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11. 17		
11. 18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 공동행사 진행 • 북측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대표 등 참석
11. 19		통일부, 이희호 여사 방북신청 승인
11. 20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최룡해 노동당 비서 회담 •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	
11. 21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실무협의단 방북
11. 23		정부, "북한 핵전쟁 위협 강력규탄, 단호대응 엄중 경고
11. 24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 로그비노프 특임대사 모스크바 핵비확산회의에서 "북핵 개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간주 않는다"고 언급	
12. 12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 위해 북·미 양자대화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 피력 (방중 기자회견)	
12. 15		
12. 16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미대화 주저 안해 … 대북협상에 한국 포함돼야"	
12. 18	시진핑 "한반도비핵화에 건설적 역할" …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단호히 배격...조선반도 비핵화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핵무력을 포함한 지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 (외무성 성명)			
"합동군사연습 임시중지시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 임시중지 용의...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 (조선중앙통신 보도)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시 선결조건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유엔주재 차석대사)			
	SLBM 수직발사관 사출시험 실시		함남 신포조선소
우리 정부 대북정책 비난 (국방위원회 정책국)			
	신형 함대함 미사일 (KN-01) 시험발사 *김정은 참관	4발(100)	원산 일대→동북방 동해
	단거리 전술 미사일 추정	5발(200)	원산 일대→동북방 동해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			
	실크웜 미사일 지대함 및 SA-3 지대공 미사일, 122mm방사포 등 발사시험		서해 남포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비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계열 추정)	2발(490)	서해 남포 인근→동해
	KN-06 (번개-5호), 지대공 유도미사일 *김정은 참관	7발(250)	함남 선덕 일대→동해
	단거리 발사체 (KN-02 추정) 미사일 발사 (10:30)	1발(140)	서해 인근 지상→미확인
	단거리 발사체(KN-02 추정) 미사일	4발(140)	평북 동창리→ 대동강 하구 해안

2015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20			
	12. 29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2015.	01. 02		오바마 미 대통령,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 발동 –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	
	01. 10			
	01. 13	한미연합 해상훈련		
	01. 14			
	01. 23		러·일, 모스크바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	
	01. 25			통일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비난 관련 유감 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
	01. 28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일본)	
	02. 05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초당적 발의	
	02. 06			
	02. 08			
	02. 10			
	02. 20			
	03. 02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국방부,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03. 12			
	03. 31		일본, 대북 독자제재조치 연장 정식 결정	
	04. 02		미·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	
	04. 03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6 (번개-5호), 지대공 유도미사일	2발(150)	평남 평원 화진리 일대→ 미확인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방문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 오를 것" (조선중앙통신 보도)			
한국 해군함정 NLL 침범 주장 및 예고 없는 직접조준 타격 위협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 전통문)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KN-11 (북극성-1호)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실험	1발(900)	신포 인근 해역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조선중앙통신)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KN-01 추정)	3발	원산 호도반도→ 동해 마양도 방면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 발사는 전략적 타격수단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우리의 핵타격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중·단거리로케트는 물론 장거리로케트의 정밀화, 지능화로 최상의 명중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자위적 핵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더 완벽하게 강화해 나갈것"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			
한국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원색적 비난 (전략군 대변인 담화)			
	단거리 미사일(KN-01 추정)	3발(100)	원산 호도반도→동해 마양도 방면

2015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4. 07		
04. 23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 입장 확인	
04. 24		
05. 03		
05. 08		
05. 09		
05. 11	미 정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거듭 비판	통일부 대변인, "북한 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 민간교류는 장려"
05. 20		
05. 24		통일부 입장 발표, "우리가 제안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 이 과정에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
05. 30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아시아안보회의), 3각 공조 강화 방안 논의	
06. 03		국방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06. 04		
06. 14		
06. 19	미 상원, '북한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 표현 담긴 국방수권법안 통과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단속정 1척 서해 NLL 침범		
	중부전선 MDL 침범		
서울안보대화 거부, "입으로만 줴쳐대는 대화타령은 조소와 비난만 받을 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UFG 연습 강행시 군사적 보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UFG 연습 비난 (외무성 대변인 담화)			
DMZ 지뢰도발 부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대북심리전 방송 무차별 타격"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UFG 연습 비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8. 20. 17시부터 48시간내 심리전 방송 중지·철거 최후 통첩"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	연천지역 포격 도발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 (최고사령관 명령) 지뢰도발 부인 및 포격전 비난 (외무성 성명) 김양건 당비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회담 제의 전통문			

2015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6. 26		기획재정부, 북한관련 제3국 인사 7명을 금융제재대상으로 최초 등재 •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 지원한 대만인사 6명(개인3, 기관3) 및 시리아 기관 1개를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하의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 • UN 안보리 지정 제재대상자 외,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 지원한 상기인과 우리 국민 간 외환거래 금지
06. 30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07. 11		군, 경고사격
07. 17		서울안보대회(SDD)에 북한 초청 전통문 발송
07. 19		
08. 04		DMZ 내 목함지뢰도발 사건 발생
08. 10		합참, 목함지뢰도발 사건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 성명 발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8. 12		
08. 13		
08. 14		
08. 15		군, 대응사격 및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발령
08. 20		
08. 21		합참 명의 답신 전통문,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 국방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북한 도발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겠다"
08. 22		남북 고위당국자 협의 (~08.24 판문점) •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비서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시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 (국가우주개발국장 기자문답)			
신설 위성관제종합지휘소 CNN에 공개			
김정은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KN-11 (북극성-1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실패	1발(900)	원산 앞 바다
	KN-11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실패 추정	1발(900)	
	SLBM 발사시험 실패 추정		원산 앞 바다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 성명)	**4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SLBM 사출 시험 영상 공개 (조선중앙TV)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8. 25	UN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일본에서 국제자문단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자제 촉구를 위한 안건 논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합의 • 당국회담 개최 • 남측 국인 부상에 유감 표명 • 확성기 방송 중단 •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 이산가족상봉 진행 • 민간교류 활성화
09. 14		
09. 23		
10. 10		
10. 16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10.13~16) •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	
10. 20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10.22)
10. 24		남북 이산가족 상봉 (2차, ~10.26)
11. 02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4D 작전계획' 승인
11. 28		
11. 30		국방부, "북한 SLBM 발사 시험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12. 21		
12. 25		
2016. 01. 06	UN 안보리 북한 핵실험 규탄 언론성명 발표 • 중대한 추가 제재 결의 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01. 07		정부,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
01. 08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및 확성기 방송 비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국제기구에 통보 (02.08 ~ 02.25, 매일 07~12시)			
국제해사기구(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간 수정 통보 (02.07~02.14)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60)	
특별 중대보도, "광명성 4호 성공적 발사...앞으로도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	광명성호 (광명성 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3단 로켓 분리, 궤도 진입	1발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 오키나와 상공 통과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개성공단 폐쇄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육로 차단, 군통신선 및 판문점 연락채널 폐쇄, 남측 인원 추방			
사드배치 관련 비난 (조선중앙통신)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통치기관, 2차 타격대상은 아태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본토"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1. 10	미군 B-52 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01. 12	미 하원 대북제재법안(H.R.757) 통과	정부, 개성공단 출입 '필요 최소 인력'으로 제한
01. 13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할 것" 군, 무인기 침투에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대응
01. 15		
02. 02		
02. 03		정부 성명, "발사계획 즉각 철회 촉구 및 '혹독한 대가' 엄중 경고
02. 05	미, 북한 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 호' 일본 후쿠오카 사세보에 배치	
02. 06		
02. 07	**UN 안보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언론성명 발표** 중대한 조치 조속 채택 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및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 • 국방부,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 가지 축소 발표
02. 08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02. 10	미국 상원, 북한만을 겨냥한 최초의 대북제재법안(H.R.757) 통과 일본,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12.02 정식 채택)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02. 11		
02. 13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		
02. 15		
02. 17	미군 F-22 '랩터' 4대 오산기지 전개	
02. 19		
02. 23		
02. 24		합참 의장, 도발적 행태 즉각 중단 촉구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16 (300㎜ 신형 방사포 추정)	6발(100)	원산 일대→ 동북방 동해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 비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 (국방위원회 성명)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 상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핵탄두 모형 및 설계도와 KN-08 공개 (김정은)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필요한 핵물질들을 꽝꽝 생산...이미 실전배비한 핵타격 수단들도 부단히 갱신...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 (노동신문)			
김정은, 전략군 탄도미사일(스커드) 발사 훈련 참관 •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 •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타격수단들에 즉시 공격명령을 내릴 것"(조선중앙통신) 한국 독자적 대북제재 반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 무효, 남측 모든 자산 완전 청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스커드 계열 추정 단거리 미사일 발사 (05:20)	2발(500)	황북 황주 일대→동해
쌍룡훈련 비난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남조선 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 타격전술에는 우리식의 초정밀 기습타격으로 대응" (총참모부 성명)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0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270호) 채택** • WMD개발 사용가능 모든 물자 차단(Catch all) • 불법물품 적재 추정시 입항, 영공통과 금지 • 소형·재래식무기 포함 북한 무기 수출입 금지 • 무기생산 가능물품 거래 불허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에 항공기, 선박 및 승무원 제공 금지 • 핵·미사일 개발 연루 북한 정부, 노동당 자산 동결 • 북한 관련 공적·사적 금융 거래 금지(은행지점 폐쇄)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03. 03			
03. 05		EU,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북한 개인 16명, 단체 12개 추가	
03. 06			
03. 07	키리졸브/독수리		국방부 입장 표명,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 즉각 중단"
03. 08			정부, 1차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 외국 선박의 북한 기항 180일 내 국내 입항을 금지 • 34개 단체, 개인 43명에 금융제재
03. 09		홍콩, UN 안보리 제재대상 북한 선박 '골드스타 3' 입항 거부	
03. 10			통일부 대변인, "북한 주장 절대 수용 불가"
03. 12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군, "도발시 북한 정권의 최고지도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 시험에서 성공" (조선중앙통신 보도) •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단행" 지시 (김정은)			
	KN-11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900)	신포조선소 지상시설
김정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800) * 1발 공중 폭발	평남 숙천 일대→동해
김정은, 상륙 및 반상륙 방어연습 참관 (조선중앙통신 보도)			
김정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신형 대구경방사포 실전배치를 앞두고 최종시험사격"	KN-16 (300㎜ 신형 방사포 추정)	5발(200)	함남 함흥 북방 일대→동해
한국 공군 정밀타격훈련 관련 비난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			
'대출력 고체 로케트 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김정은,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댈 수 있는 탄도로케트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보도 • 김정은, "악의 소굴인 서울시 안이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조선중앙통신)			
"최후통첩 불응시 청와대 선제타격"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최후통첩장)			
청와대·서울 주요 시설 타격 훈련 동영상 공개 (조선중앙TV)			
	KN-16 (300㎜ 신형 방사포 추정)	1발(200)	강원 원산 일대→동북방 내륙지방
GPS 교란전파 최대출력 공격			
김정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전투성능판점을 위한 시험사격' 참관 (조선중앙통신 보도)	KN-06 (번개-5호), 신형 단거리 지대공 탄도미사일	3발(150)	함북 신덕→양강 내륙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13	미군 핵항공모함 존스테니스호 부산 입항	
03. 15		
03. 16	미 오바마 대통령,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 발동 •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 포함	
03. 17		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03. 18	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03. 20		
03. 21	한·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 (서울)	공군, 북한 핵심 군사시설 정밀타격 훈련
03. 23		통일부 대변인 논평, "비열하고 천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03. 24	UN 안보리, '북한 제재 이행 감시' 전문가패널의 활동 기한을 2017년 4월까지로 연장	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 •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지시 합참,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 개최 • "도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히 응징할 것"
03. 25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
03. 26		합참 작전본부, 북한 최후통첩장 관련 군 입장 발표 • "북한의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
03. 27		
03. 29		
03. 31		수도권, 강원지역 GPS 위기대응 주의단계 발령
04. 01	EU,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무역 및 금융제재 발표	국방부, GPS 공격 관련 대북 경고성명 발표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KN-02 (독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120-170)	
장사정포로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 공격 영상 방영 (조선의 오늘)			
김정은 '신형 ICBM 대출력엔진 지상분출시험' 참관 "핵공격 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맞서야" (조선중앙통신 보도)			
	(1차 시도)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3,500) *상승단계 공중폭발, 실패(05:30)	동해안 일대→동해
김정은,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 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KN-11 (북극성-1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1발(30)	함남 신포→동북 동해상
	(2차, 3차 시도)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3,500) * 1발 수초만에 추락(06:40) * 1발 공중폭발, 실패(19:26)	원산 일대→동해
"핵무기는 우리의 생명"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발표) • 핵공격 능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해 놓은 오늘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더는 딴 꿈을 꾸지 말 것 •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을 비롯한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임의의 시각에 도발자,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전환 • 이제는 누가 간절히 바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우리의 핵에 대하여 계속 무지하게 걸고 들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주변정세악화의 화근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하는 용단 내려야 함.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4. 03		
04. 05	중 상무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 발표 • 북한으로부터 25종 품목 수출입 금지	국방부 입장 발표, 북한 장사정포 공격 영상 공개 간련 대북 경고
04. 09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04. 15		
04. 16	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	
04. 23		
04. 24	UN 안보리 '북 SLBM 실험은 결의 위반' 언론성명 채택 •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와 UN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이행 강화를 강조	
04. 28	UN 안보리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논의	박근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래는 없을 것"
04. 30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제7차 당대회 개막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 제국주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강화 • 미국의 핵전쟁 위험에 대한 핵억제력 •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 • 핵전파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 •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60)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확대 강화될 것" (조선중앙통신 논평)			
'9·19 공동성명' 무효화 언급하며 "미국의 대조선 압살책동에 핵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 (조선중앙통신 논평)			
남북군사회담 호응 촉구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담화, 남북대화 촉구 "관계개선 의사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남북한군사회담 실무접촉 제의 (인민무력부 전통문)			
"핵포기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 그만두고 대화에 나와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담화)			
남북군사회담 재촉구 (인민무력부 전통문)			
"한반도 긴장조성 책임은 미국에 있음. 대북 적대시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자멸적인 정책"(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한국군 경고사격 비난, "보복태세 갖추고 섬멸적인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어선·단속경 각 1척 서해 NLL 침범		
"경고 없이 조준타격" 위협 (총참모부 통첩장)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는 '망상', "자위적 핵무력 강화"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06		
05. 07		
05. 09		
05. 11		
05. 12		
05. 18	스위스 독자 제재조치 발표 • 자국 내 북한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은행 계좌 폐쇄 • 사치품 수출품목에 대한 제재 확대 • 선박 및 항공기 운항 • 교육 등 다방면 실시	
05. 19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EU 독자제재 추가 및 조치 강화 발표 • 개인 18인/단체 1개 추가(총 개인 66인/단체 42개)	
05. 20		국방부 입장 발표, '선 비핵화 조치' 촉구
05. 21		
05. 22		
05. 23		국방부 대북 전통문,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핵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회담 제안에 매우 유감"
05. 24	스위스, 대북 독자제재를 위한 수출금지 사치품목 25개 지정	
05. 25	모나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회원국 첫 사례	
05. 27	G7 정상선언, 북한 추가 핵실험·미사일발사 중단 경고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군 입장 발표, "정상적인 작전활동에 북한 억지주장"
05. 28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4차 시도)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3,500)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단추 누르자마자 폭발, 실패(05:20)	원산 일대→동해
남북대화 관련 "정당한 제의를 거부한다면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한·미·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문제 논의한 것에 대해 "자위적 핵억제력에 맞서는 세력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KN-01 (금성-1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60)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도발로 인해 우리는 핵억제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B-52H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기지들을 정밀 타격권안에 잡아넣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5차, 6차 시도)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400) (고각: 1,413) * 1발 150㎞ 비행 후 공중폭발(05:58) * 1발 400㎞ 비행 후 낙하(08:05)	원산 일대→동해
김정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화성-10호) 시험발사 지도 및 성공 보도 • "선제핵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도와 유일적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 (조선중앙통신)			
UN 안보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채택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안보리의 공보문을 전면 배격한다" (외무성 대변인)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27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EU 독자제재 추가 및 조치 강화 발표 •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등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 강화	
05. 31		
06. 01	**UN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미 재무부,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	
06. 02		
06. 09		
06. 14		
06. 16	EU 각료이사회 성명 발표 • EU 가입후보국인 구유고 연방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잠재적 가입후보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몰도바와 아르메니아가 EU의 대북제재에 동조하기로 결정	
06. 20		
06. 22		
06. 23	UN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 각료회의 개최, 미일공조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방침(방위성) EU, "북, 유엔결의 위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대변인 성명)	
06. 24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핵보유는 미국식 힘의 논리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선택"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개최 • 국무위원회 신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등			
조선반도 비핵화 조건 제시 (정부 대변인 성명) • 미국의 핵무기 공개 •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기지들 철폐 • 미국이 핵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담보 • 미군 철수			
	KN-11 (북극성-1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1발(10) *공중폭발, 실패	함남 신포→ 동남방 동해
사드배치 비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시행될 것"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미국이 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미국이 먼저 핵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사드배치 비난,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핵보검을 없애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미사일)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미사일) 1발 발사	3발(500-600)	황북 황주 일대→동해
김정은, 화성포병부대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지도 •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정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 (조선중앙통신)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1,000) *1발은 발사 직후 폭발, 1발은 1,000여 ㎞ 비행 후 일본 EEZ내 낙하	황북 은율 일대→동해상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6. 28		
06. 29		
06. 30	미군 핵잠수함 오하이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기항	
07. 06	미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림.	
07. 08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07. 09		군,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규탄"
07. 11		
07. 13		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결정
07. 14	EU, 북한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가 지정 성명 발표	
07. 15		국방부, "오만방자한 위협적 언행 즉각 중단" 경고
07. 16	북핵 개발 가장 강력히 규탄하는 ASEM 의장 성명 채택	
07. 19	미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07. 20		
07. 27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발표** •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	
08. 03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관련 비난 “핵위협과 공갈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UGF 연습 비난, “조선반도의 전략적 구도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 것을 엄숙히 경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 식의 핵선제타격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과 전쟁의 아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공화국남반부 해방의 승전포성을 울릴 역사적 기회만을 고대하고 있다”(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참관 • “예고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개발에 총력을 집중....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데 대하여 지시”(노동신문)	KN-11 (북극성-1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1발(500) *500여 ㎞ 비행, 일본 방공식별구역 낙하	함남 신포 해상→동해
김정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발사 훈련 현지지도 •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 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조선중앙통신)	KN-05 (노동 1호, 화성-7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1,000) * 일본 방속식별구역 내 낙하	황북 황주 일대→동해
“우리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 생존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을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고 있다.”(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위협하려드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공격능력을 배가로 강화하기 위한 사변적인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취해나갈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5차 핵실험 성공 발표 •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 소형화·경량화·다종화 • 핵무기 병기화 높은 수준 확고히 •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생존권·평화 수호 •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 지속 (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5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8. 04		EU,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08. 17			
08. 21			
08. 22	UFG 훈련		
08. 24	UFG 훈련		
08. 27	UFG 훈련	UN 안보리,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09. 01	UFG 훈련		
09. 05			
09. 07			
09. 08			
09. 09		UN 안보리, 5차 핵실험 규탄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언론성명 채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합참,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 발표
09. 10		ASEAN 1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엄중한 우려 공유 표명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김정은,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 시험 지도 • "지구관측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09.20)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몰려 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우리는 도발의 본거지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로선이다.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핵억제력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 (리수용 외무상, UN 총회 제71차 회의에서 한 연설 중)			
"3단계맞춤형억제전략은 백악관과 청와대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는 악몽의 전주국으로 될 것" (노동신문)			
"사드 따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공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 (노동신문)			
"우리의 1차 보복대응타격에는 핵무기나 로케트와 같은 전략무력이 동원될 필요도 없음. 일단 섬멸의 불을 토하면 제일 먼저 뒈질 것은 미국놈들이며 순식간에 불바다로 완전 잿더미에 묻힐 곳은 남조선땅임." (조선중앙통신)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비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 (노동신문 논평)			
"우리는 핵무장을 국가로선으로 정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왔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공격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9. 11		
09. 15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 후 북핵 규탄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채택	
09. 19		
09. 22	믹타(MIKTA), 뉴욕에서 외교부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09. 23	UN 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 •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킴	
09. 26	미국 재무부, 북한 핵개발 지원 중국의 단둥홍샹 직접 제재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북핵실험 규탄결의문 채택	
09. 27		
09. 30	IAEA, 역대 가장 강도높은 표현의 북핵 규탄 결의를 16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사드, 경북 성주CC에 배치 결정
10. 01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권유
10. 02		
10. 03		
10. 06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우리의 대응보복타격이 개시되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침략기지들은 물론 남조선도 순식간에 완전 불바다, 폐허로 될 것" (평양방송)			
"우리는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다 통과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선제타격기도를 짓부셔 버리고 백악관과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말 것" (노동신문, 외무성 대변인 성명)	(7차 시도)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3,500) *공중폭발, 실패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8차 시도)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3,500) *공중폭발, 실패	평북 구성시 평방현비행장
"3각 군사동맹 책동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핵무력은 질량적으로 강화될 것" (노동신문) 김정은, 특수작전대대 방문 보도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의 인간 추물들 제거가 기본 임무"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서해 갈리도·장재도 방문 보도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 승인"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와 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외무성 비망록)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녀나갈 것이며 적들의 사소한 도발도 선군의 무쇠주먹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6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0. 09			
10. 10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 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실시	
10. 15			
10. 17		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10. 20			
11. 04	한미영 공중훈련	한·미·영 연합 공중훈련 '무적의 방패' (~11.10)	
11. 10			
11. 13			군, 입장 발표, "도발시 강력 응징할 것"
11. 21			
11. 23		한·미·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11. 25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도발, 국제질서 훼손" 규탄	
11. 30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321호) 채택** • 광물 수출금지 확대(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 • 북한 국외노동자 송출제한 압박 • 금융 제재 강화 • 북한 재외공관 활동 제한 •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 • 북핵 6자회담지지 • 북한 화물 검색 강화 •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자 추가(개인 11명, 단체 10개)	
12. 01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정은 전선포병부대 집중화력타격연습 참관 보도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의 군사 대상물과 반동통치기관들을 타격" (조선중앙통신)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 환경모의시험,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김정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참관 •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탄도탄으로 개발" (조선중앙통신)	KN-15 (북극성-2형) 준중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1발(500)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동해
김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 •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영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연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조선중앙통신)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3발	4발(1,000) (고도: 260)	평북 철산군 동창리 →동해
"우리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식의 탄도로케트들의 위력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의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되었다....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하여 우리 전략군은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쑤들을 무지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히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수 있는 최정예전략무력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			

201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12. 02		미,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 제재대상 확대(단체 16, 개인 7) 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 제재대상 확대(단체 6, 개인 9) • 북한 기항 일본선박, 일본입항금지 • 방북시 재입국 금지대상 확대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 제재대상 확대(단체 34→69개, 개인 43→79명) • 수출입·해운 통제 강화 • 출입국제한 신설
2017.	01. 26			
	01. 2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02. 07		미 의회, '북한 ICBM 규탄-사드배치 결의안' 발의	
	02. 12			
	02. 13		UN 안보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02. 14		ASEAN 1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묵과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
	03. 01	키리졸브/독수리		
	03. 06			
	03. 07		UN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03. 08		ASEAN 1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 표명 및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03. 09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정은,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 자상분출시험 참관 •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위성운반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 (조선중앙통신)			
	KN-07 (화성-10호), 무수단,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3,500) *공중폭발, 실패	강원도 원산비행장 일대
"우리 전략군은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핵위협공갈을 분쇄하기 위하여 자기 령토에서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쓰고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는데 대응하여 우리 전략군도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정례화하고있다." (노동신문 논평)			
	KN-17 (화성-1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60)	함남 신포 일대→동해
	KN-17 (화성-1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직후 폭발	함남 신포 일대
	KN-17 (화성-1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직후 폭발	평남 북창 일대→북동 방향

201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3. 19		
	03. 22	미군, B-1B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03. 23	UN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인도, 유엔 결의 11년만에 대북 무기거래 금지 조치	
	03. 24	터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후원 개인·기업 자산동결	
	03. 29	미 하원 외교위원회, 대북 관련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 통과 • 대북제재현대화법 •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및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촉구 결의안	
	03. 31	미 트럼프 행정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미 재무부,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개와 개인 11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석탄관련기업 포함)	
	04. 04	미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의결	
	04. 05		
	04. 16		
	04. 29		
	04. 30		
	05. 10	북·미, 오슬로서 비밀 접촉	
	05. 12	NPT 62개국 "북한 핵·미사일 포기하라" 촉구 성명 미 CIA, 코리아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 신설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정은, 새 형의 로켓 시험발사 현지지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주체탄》이 탄생" (조선중앙통신)	KN-17 (화성-12호)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1발(787) (고도:2,110)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 북동방향 (블라디 남쪽 97k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KN-15 추정)	1발(500)	평남 북창 일대→동쪽
"유엔 안보리 성명 고리타분…전면 배격" (외무성 대변인)			
김정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 "지난해보다 요격유도무기체계의 목표발견 및 추반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명중정확도도 높아졌다, 지난해에 나타났던 일련의 결함들도 완벽하게 극복되였다... 작전능력이 철저히 검토된 저 무기체계를 꽝꽝 생산해내여 온 나라에 숲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공중우세론,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는 적들의 제공권망상을 완전히 제압 분쇄해 버려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지대공 유도 미사일 (번개-5형, KN-06 추정)	수발	함남 선덕 일대
김정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발사 공개 활동 • "우리는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당의 웅대한 국방공업정책관철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스커드 ER급 지대함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450) (고도:120)	강원도 원산→ 동해 방향
김정은,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 (조선중앙통신)	지대함 순항미사일 (스커드-C 추정)	수발(200)	강원도 원산→ 동해 방향

201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5. 14	EU·나토,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대화복귀 촉구	
05. 17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05. 21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무모·무책임, 강력 규탄"
05. 23	일본,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캐치올 규제 도입	
05. 24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북한 도발 않는게 대북관여 최소조건"
05. 25		외교부, "제재·대화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완전한 북핵폐기 추구"
05. 27		
05. 29		
05. 30	미군, ICBM 공격 대비 요격시험 성공	
06. 02	**UN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제2356호) 채택** • 블랙리스트에 북한 기관 4곳, 개인 14명 추가	
06. 08		
06. 28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06.28~07.02) •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 합의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참관 •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 •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장착한 이동식발사대차의 기동특성과 발사준비공정의 모든 기술적특성들도 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요구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증" •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 • "원자탄,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조선중앙통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 KN-14) 시험발사 (09:30)	1발(933) (고도:2,802)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 → 동해(일본 EEZ)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참관 •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 •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 과시...미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 •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 KN-14) 시험발사(23:41)	1발(998) (고도: 3,724)	자강도 무평리 → 동해 47분 12초 비행

2017년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7. 04		
07. 06		문재인 대통령,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신한반도 평화비전」(베를린 구상) 발표 • 5대 정책방향 (1) 6·15, 10·4 계승한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2) 북한체제 안전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3)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위한 평화의 제도화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5) 비정치적 교류협력 • 4대 실천과제 (1)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2)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3)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4) 남북한 대화 재개
07. 07	G20 정상회의 (함부르크, ~07.08)	
07. 28		

북한의 주요 발언 및 조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발사체·실험체	발사수 (사거리 km)	장소·궤적
김정은,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 • 전략군이 준비하고 있는 괌도포위사격방안에 대한 김락겸 대장의 결심보고 청취 •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			
	단거리 탄도미사일(300㎜ 신형 방사포 또는 스커드 개량형 추정) 발사(06:49) * 첫 발 성공,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발사 성공	3발(250) (고도: 50)	강원도 깃대령 → 동북방향 (김책시 연안)
김정은,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발사훈련 지도 •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이 동원 • 우리 국가의 수도에서 첫 발사훈련 진행 •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 •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KN-17)발사(05:57)	1발(2,700) (고도: 550)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 → 동북방향
김정은,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 •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 핵탄위력을 타격대상에 따라 수십kt급으로부터 수백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수소탄 •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대로 꽝꽝 생산 •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			
6차 핵실험 성공발표	6차 핵실험		함북 풍계리

연도 월 일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	남북관계 및 한국
08. 05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371호) 채택 • 북한 석탄·철광석·납·해산물 수출 봉쇄 •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 북한과의 합작투자 차단	
08.15		
08. 26		
08. 29		
09.02		
09. 03		

Ⅲ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정책 및 법령 자료

1. 핵정책 주요 발언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2002. 3. 9		부시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 핵선제사용 가능대상 7개국(북한포함)
2003. 1. 10	정부 성명	NPT 탈퇴선언 ·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으며...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
2003. 6. 18	외무성 대변인	·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
2003. 10. 2	외무성 대변인	·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 방향에서 용도 변경
2004. 7. 24	외무성 대변인	· "리비아식 선핵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2004. 9. 27	최수헌 외무성 부상	·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해 무기화"
2005. 2. 10	외무성 성명	·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
2005. 3. 31	외무성 대변인	· "이미 핵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군축회담이 되어야"
2006. 10. 9	**조선중앙통신 보도**	**1차 지하 핵실험**
2006. 12. 1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2009. 1. 16	외무성 대변인	·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2009. 5. 25	**조선중앙통신 보도**	**2차 지하 핵실험** · 자위적 핵억제력 백방 강화 ·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사회주의 수호
2010. 4. 6		오바마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 소극적 안전보장에서 북한 제외
2010. 4. 21	외무성 비망록	(1)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건은 평화협정 (2) 한반도 및 세계 비핵화 때까지 핵억제력 보유 (3) 핵보유국과 음모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금지 (4) 국제적 비확산 및 비핵화에 타 핵보유국과 동등한 지위 참여
2013. 2. 12	**조선중앙통신 보도**	**3차 지하 핵실험** · 미국 적대행위에 대한 안전과 자주권 수호 조치 · 소형화·경량화 원자탄 · 다종화된 핵억제력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2013. 3. 29	조선중앙통신	·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아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2013. 4. 1	최고인민회의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 (1) 핵무기는 미국 핵위협에 대하 정당방위 수단 (2) 핵무력은 세계 비핵화 실현 때까지 침략과 공격 억제, 섬멸적 보복타격 복무 (3)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 질량적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 강구 (4) 핵무기는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 (5) 적대국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침략 및 공격행위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및 위협 안함. (6)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 안전성 보장 규정 엄격히 준수 (7) 핵무기 기술, 핵물질 비법적 누출하지 않을 것 (8)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 (9) 핵군비경쟁 반대, 핵군축 국제적 노력 적극 지지
2013. 4. 4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 첨단핵타격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 버리게 될 것"
2013. 10. 23	외무성 대변인	· "조선반도 비핵화는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 · "외부의 핵위협이 가증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2014. 3. 5	전략군 대변인 담화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넘게 되면 우리 방어형 로케트들의 훈련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력한 공격형 로케트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 "우리의 핵무력은...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자위적 보검"
2014. 3. 14	국방위원회 성명	·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 "우리의 핵억제력은...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
2014. 3. 17	노동신문	·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
2014. 6. 16	노동신문	·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
2014. 7. 28	황병서 총정치국장	· "만약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수단을 가지고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든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 미제의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2015. 5. 9	조선중앙통신	·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2016. 1. 6	**정부 성명**	**4차 지하 핵실험** ·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 ·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
2016. 3. 11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전략군 탄도미사일(스커드) 발사 훈련 참관** ·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 ·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타격수단들에 즉시 공격명력을 내릴 것"
2016. 5. 7	조선중앙통신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 제국주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강화 · 미국의 핵전쟁 위험에 대한 핵억제력 ·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 · 핵전파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 ·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2016. 6. 23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중거리미사일(화성-10호) 시험발사 지도** · "선제핵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도와 유일적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
2016. 7. 6	정부 성명	**조선반도 비핵화 조건** · 남조선 내 미국 핵무기 전체 공개 · 남조선 내 모든 핵무기와 기지 철폐 및 국제사회 검증 · 미국의 핵타격 수단 조선반도 전개하지 않겠다는 약속 · 핵 또는 핵을 동원한 전쟁행위로 공화국에 대한 위협 공갈, 핵 불사용 확약
2016. 7. 2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화성포병부대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지도** ·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정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2016. 8. 22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우리 식의 핵선제타격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과 전쟁의 아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공화국남반부 해방의 승전포성을 울릴 역사적 기회만을 고대"
2016. 8. 25	노동신문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 "예고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개발에 총력을 집중....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데 대하여 지시"
2016. 9. 6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발사 훈련 지도** ·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 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2016. 9. 9	**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5차 지하 핵실험** ·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 소형화·경량화·다종화 · 핵무기 병기화 높은 수준 확고히 ·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생존권·평화 수호 ·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 지속
2016. 9. 11	외무성 대변인 담화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
2016. 9. 2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 시험 지도** · "지구관측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
2016. 9. 2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몰려 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우리는 도발의 본거지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
2016. 9. 27	노동신문	· "3단계맞춤형억제전략은 백악관과 청와대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는 악몽의 전주국으로 될 것"
2016. 10. 1	노동신문	· "사드 따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공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
2016. 10. 2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1차 보복대응타격에는 핵무기나 로케트와 같은 전략무력이 동원될 필요도 없음. 일단 섬멸의 불을 토하면 제일 먼저 뒈질 것은 미국놈들이며 순식간에 불바다로 완전 잿더미에 묻힐 곳은 남조선땅"
2016. 10. 6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우리는 핵무장을 국가로선으로 정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왔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공격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
2016. 10. 9	평양방송	· "우리의 대응보복타격이 개시되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침략기지들은 물론 남조선도 순식간에 완전 불바다, 폐허로 될 것"
2016. 10. 10	조선중앙통신	· "우리는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다 통과하였다"
2016. 10. 15	외무성 대변인 성명	· "미국과 괴로호전광들의 선제타격기도를 짓부셔 버리고 백악관과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말 것"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2016. 11. 25	외무성 대변인 담화	·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녀나갈 것이며 적들의 사소한 도발도 선군의 무쇠주먹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
2017. 1. 26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 환경모의시험,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2017. 2. 13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참관** ·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탄도탄으로 개발”
2017. 3. 7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 ·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영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연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
2017. 3. 9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	· “우리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식의 탄도로케트들의 위력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의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 · “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하여 우리 전략군은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쑤들을 무지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히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수 있는 최정예전략무력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
2017. 3. 19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참관** ·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국방공업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 ·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위성운반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 ·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
2017. 3. 24	노동신문 논평	· “우리 전략군은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핵위협공갈을 분쇄하기 위하여 자기 령토에서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 ·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쓰고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는데 대응하여 우리 전략군도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정례화”
2017. 5. 15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새 형의 로켓 시험발사 현지지도** ·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착상하고 연구완성한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주체탄》이 탄생“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 · “로케트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국방과학자,기술자들이 우리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유도 및 안정화체계,구조체계,가압체계,검열 및 발사체계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이 완전히 확증되였으며 새로 개발된 로케트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환경조건에서 재확인” · “가혹한 재돌입환경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특성과 핵탄두폭발체계의 동작정확성을 확증”
2017. 5. 22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극성-2형 시험발사 참관** ·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북극성-2》형무기체계전반의 기술적지표들을 최종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 “《북극성-2》형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무기체계의 부대실전배비를 승인..이제는 빨리 다량계렬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2017. 5. 29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 “시험사격은 불의에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는 적 공중목표들을 타격소멸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정황을 조성하고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 · “지난해보다 요격유도무기체계의 목표발견 및 추반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명중정확도도 높아졌다, 지난해에 나타났던 일련의 결함들도 완벽하게 극복” · “작전능력이 철저히 검토된 저 무기체계를 꽝꽝 생산해내여 온 나라에 숲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공중우세론,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는 적들의 제공권망상을 완전히 제압 분쇄해 버려야”
2017. 5. 3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발사 공개 활동** · “임의의 지역의 적대상물들을 초정밀타격할수 있는 새형의 정밀유도탄도로케트의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며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새롭게 설계제작한 무한궤도식자행발사대차의 운영믿음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시험발사는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단계까지의 세밀한 원격관측을 위하여 중등사거리사격방식으로 진행” · “우리는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당의 웅대한 국방공업정책관철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워야“ ·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2017. 6. 9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 “국방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킨 신형 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를 새로 연구개발하고 첫 시험발사를 진행” ·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
2017. 7. 4	국방과학원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참관** ·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 ·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장착한 이동식발사대차의 기동특성과 발사준비공정의 모든 기술적특성들도 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요구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증" ·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 · "원자탄,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2. 1~6차 핵실험 성명

□ 제1차 핵실험 성명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 95(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주체95(2006)년 10월 9일

평양(끝)

□ 제2차 핵실험 성명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였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다.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주체98(2009)년 5월 25일

평양(끝)

□ 제3차 핵실험 성명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체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 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 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였다.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다.

주체102(2013)년 2월 12일. 평 양 (끝)

□ 제4차 핵실험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 눈부신 기적과 위훈으로 날과 날을 이으며 거대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지혜,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수소탄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이 세상에 적대시라는 말이 생겨난 이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처럼 그토록 뿌리깊고 포

악무도하며 집요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잔악한 날강도무리가 바로 미국이다.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타격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적대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인권》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 있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무리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쟁취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흉악한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

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무궁번영할 것이다.

주체105(2016)년 1월 6일

평 양(끝)

□ 제5차 핵실험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왔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

시험분석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리용곁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것이 확증되였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였다.

핵탄두가 표준화,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렬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조치는 계속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9월 9일.

평 양. (끝)

□ 제6차 핵실험 성명 (2017. 9.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시험측정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렬 대 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전투부의 위력지표들과 2단열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였지만 지표면분출이나 방사성물질 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였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렬련쇄반응시발조종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리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였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위력을 높이는데서 핵심기술인 핵장약에 대한 대칭압축과 분렬기폭 및 고온핵융합점화,뒤이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렬-융합반응들 사이의 호상강화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제작에 리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결합구조와 다층복사내폭구조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복사차폐재료와 중성자차폐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 식의 해석방법과 계산프로그람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구조 등 주

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폭발시험과 각종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 배치형 핵폭발조종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 되였을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왔다.

주체106(2017) 9월 4일.

평양. (끝)

3. '조선반도와 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2010. 4. 21)

조선반도와 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이어져오는 인류의 강렬한 념원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일환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 몇해 동안 진행되여왔으나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당사자들 사이의 불신이 뿌리 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심히 외곡하고 있는데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애초에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세계최대의 핵피해국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 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 그대로 악몽이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 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는《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 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원자탄 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에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 보냈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 000여개를 넘어섰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1969년《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이후《프리덤 볼트》,《팀 스피리트》,《련합전시증원연습》,《키 리졸브》,《독수리》와《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

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다.

이처럼 전후에 태여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배비된 미국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여 핵화약내를 맡으며 자라난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핵현실이다.

2.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단계를 거치며 경주되여왔다.

첫 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령공,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둘째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배합하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영국은 비록 조건 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부터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 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나중에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 후였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 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 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

해버렸다. 지어 부쉬 행정부는 2002년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적대시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핵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었다.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뿐이였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고있었던것이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 나온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불변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필요한만큼 핵무기를 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주체99(2010)년 4월 21일. 평 양 (끝)

4.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2013. 4. 1)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회 할 데 대하여」(20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주제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가이다.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들릴 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 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 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 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정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 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5.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중 핵 관련 부분 (2016. 5. 7)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중략)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사업을 힘 있게 벌려 국방공업발전에서 최첨단돌파의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 먹은 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핵무기연구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 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의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생산 보장하는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첨단수준에 올라선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앞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 전쟁억제력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대한 걱정 없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 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건설업적을 만년토대로 하여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야 합니다.

(중략)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무장장비가 비상히 현대화되여 전쟁양상이 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장장비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국방과학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낄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야 합니다.

국가반항공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항공경보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화력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게 하여 조국의 령공을 요새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전화의 군자리로동계급을 따라배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조국수호정신,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중략)

총결기간 우리 당은 자주정치, 선군혁명령도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중략)

미국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전쟁위험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중략)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 나라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념원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2016. 7. 7)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

핵이 없는 세상, 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더우기 수십년 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하실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 것도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적대세력들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정책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이미 우리는 그 관철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의연히 우리의 핵이 조선반

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느니,《북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그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느니 하는 궤변만 집요하게 늘어놓으면서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의 건설적제안도 《선 북핵포기》라는 황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는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대화노력에 대해서도 《선 북비핵화》의 악청으로 정면도전해 나서고 있다.

(중략)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페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 있다.

(중략)

얼토당토않은 《핵위협》과 《도발》의 감투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일방적인 《북비핵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 손으로 만들어놓은 핵매듭을 제 손으로 푸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은 《선 북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여야 한다.

수십년 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차적제거대상이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여있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고 순차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첫째,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

여야 한다.

둘째,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중략)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핵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도화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주체105(2016)년 7월 6일

7. 2017년도 김정은 신년사 중 핵·미사일 관련 부분 (2017. 1. 1)

(전략)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영용한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국방분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비상히 높이였습니다.

(하략)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2017. 3. 31)

미증유의 거대한 뢰성이 이 행성을 뒤흔들어놓은 때로부터 어언 4년이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제시는 자위적 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일대 과시였다.

지금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유훈을 받들어 새로운 병진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주체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위대한 병진의 기치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로정에서 우리 조국의 국력과 지위가 그 얼마나 높은 경지에 솟구쳐올랐는가를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기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자주와 정의의 앞길을 밝힌 세기적 선언

감회도 새로운 2013년 3월 31일.

백승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력사에 또 하나의 특기할 세기적사변이 기록되게 되었다.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2012년 12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2087호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더욱 광기를 부리면서 또다시 보다 강도높은《제재결의》2094호를 조작해내는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북침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였다.

날강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흉악한 목적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고 제도전복을 이루어보려는 것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혼연일체가 되여 적들의 침략전쟁책동에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맞받아나가는 반미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다같이 밀고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을 안아오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인민적인 로선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중략)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주의 리념과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비껴있는 자위적 핵무력을 백배, 천배로 강화하여 침략자 미제와의 세기적대결을 결산하고 이 땅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의 결정체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은 단순히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전략적

로선이다.

전원회의는 선군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세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에 철퇴를 내리고 국제정치의 력학적 구도와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선군령장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병진의 길은 누구나 할수 있는 범상한 선택이 아니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 천출위인만이 내릴 수 있는 대용단, 대결단이였다.

이것은 그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희세의 정치가, 강철의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민족사적 대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난을 헤치시며 핵보유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계승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을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기존 핵렬강 중심의 국제정치구도를 깨버리시고 세계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강국으로 존엄떨치게 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은 세계적으로 제일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면서 항시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공갈하고 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선택이였다.

미국은 모든 전략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에 총집중하여 우리를 겨냥한 핵선제공격연습들에 열을 올리였다.

우리의 문전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가 해마다 커졌고 적용되는 전쟁수행방식이 포악무도해졌으며 투입되는 전쟁장비는 주로 핵타격수단들이였다.

해마다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B-1B》,《B-2A》,《B-52》전략폭격기들,《F-22》스텔스전투기들, 핵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쓸어들어 실전훈련을 벌리는 등 핵전쟁도발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폭제의 핵을 정의의 핵으로 짓눌러버리는 것이였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우리를 핵억제력 강화의 길로 떠민 근원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의 제시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자위의 핵방패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공화국북반부를 병탄하며 전체 조선민족을 현대판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의 야망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생존권을 굳건히 고수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 것은 자주시대 혁명사상, 혁명리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핵무력건설은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과는 량립할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여왔다.

그것은 핵무력건설에 강력한 최첨단기술력량과 수단들, 막대한 자금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다같이 밀고나가면서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위대한 강국으로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중략)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이 길만이 국력이 강하고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국에로 가는 지름길이며 장구한 조미대결전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지난 4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억척으로 새겨진 신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병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비현실적》이니,《성공할수 없다.》느니,《경제와 민생을 피페하게 만들것》이니 하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공갈로 병진로선 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조치를 취할 때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그 무슨 《제재결의》라는 것들을 조작해내여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경제교류와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봉쇄하였으며 지어 무기개발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반식료품들과 체육기자재, 어린이들의 놀이감까지 제재항목으로 규정해놓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굴종과 맹종이 체질화된 주대없는 나라들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편승하여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시비중상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에 갖은 훼방을 놀아댔다.

(중략)

그 헌신과 로고는 전략잠수함탄도탄, 각이한 전술 및 전략탄도로케트전투부들에 장착할

수 있는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북극성-2》형 등 최첨단수준에서 련이어 개발된 주체적인 핵공격수단, 핵무기들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그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었다.

(중략)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핵탄두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하였다.

우리의 로케트공업이 개발창조형으로 전환되고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된 소식이 무한대의 우주공간을 꽉 채우며 일파만파로 전해졌다.

(중략)

지난해 2월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재,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우리 조국은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참으로 다계단으로 변이 터진 4년, 기적으로 차고넘친 신화창조의 4년이였다.

(중략)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병진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인 자위적핵보검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로 강성번영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병진로선 만세!

주체106(2017)년 3월 30일. 평 양. (끝)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진무·조남훈·정상돈·이호령·전경주.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정성윤·이동선·김상기·고봉준·홍민.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_____. 『북핵일지 1955~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 논문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 2017.

3. 기타자료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5, 2015.9.21.
「조선로동당 규약」.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부. 〈http://www.mofa.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CSIS.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IHS Jane's Weapons. 〈https://www.ihs.com〉.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Study Series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